

희릉문화

통권 제31호



회룡문화

회룡문화 통권 제31호



의정부문화원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C o n t e n t s

1. 발간사	4
2. 사진으로 보는 2015 의정부문화원 주요사업	6
3. 광복70년 기념 특별기획	
* 중국 상하이 종합청사 답사기행	50
* 문화가족 명사특강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56
4. 문화가족 타지역 문화유적답사	
* 천리포수목원, 웅도, 수덕사 답사기행	70
5. 이국진의 문화읽기	
* 문화는 시대의 자아(自我)다	80
* 기부 문화의 필요성	86
6. 의정부의 문화인물	
* 구성마을과 월봉 이서이야기	94
7. 의정부의 문화유산	
* 망월사 신규 유형문화재	124
8. 문화학교 소개	132



함박눈꽃송이가 온누리에 쌓이고 새로운 꿈을 힘차게 펼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문화원도 올미년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지나간
날의 문화활동을 기록으로 만들어 문화가족과 시민여러분께
드리고자 “회룡소식지”를 발간코자 합니다.

지난 해는 메르스 사태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 각종 문화행사가 축소되고 연기된 상황속에서도 우리 문화
원은 상반기에 문화가족 대동한마당, 가족문화대축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전개 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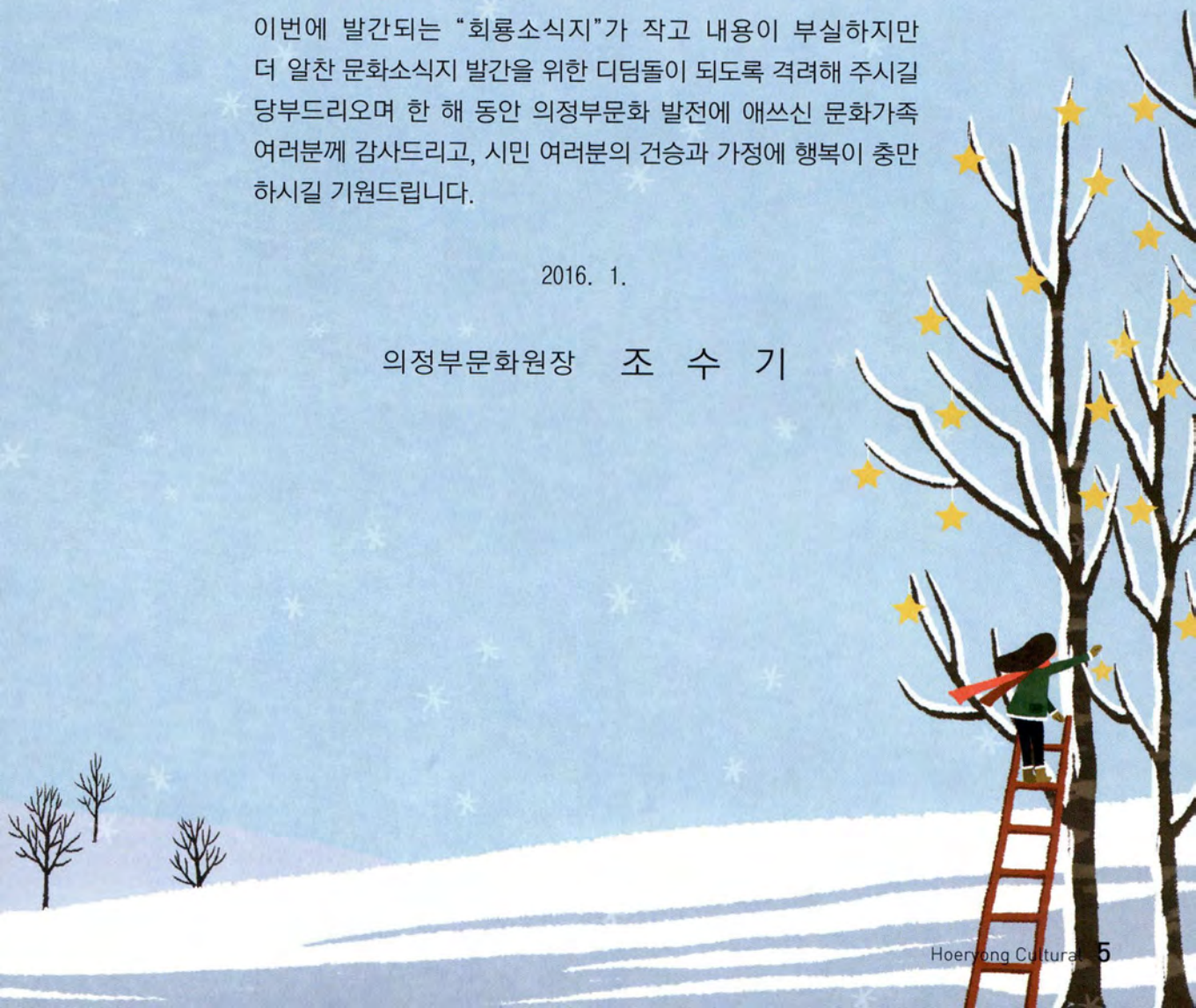
하반기에는 광복70주년을 맞는 기념행사로 “무궁화 및 태극기
전시회” 회룡문화행사와 경기도 생활축전을 병행 개최함으로써
시민들께 문화예술의 향수에 헌신 봉사하는 문화단체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초 언론발표에 의하면 우리 문화원이 시의 의뢰를 받아 2013.1부터 2014.6.30까지 편찬한 「의정부시사(議政府市史)」가 201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했다는 뉴스는 우리 문화원이 공연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기록편찬 능력도 우수함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회룡소식지”가 작고 내용이 부실하지만 더 알찬 문화소식지 발간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격려해 주시길 당부드리오며 한 해 동안 의정부문화 발전에 애쓰신 문화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6. 1.

의정부문화원장 조 수 기



의정부문화원 부설 - 제31기 문화학교 운영 연중사업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의정부문화원 부설 문화학교는 전 시민 모두가 "한사람 한문화"를 몸에 익혀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문화의 센터이며 매년 약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 약 800여 명의 수강생들이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시설현황 부지면적 : 5,497.00㎡(1,662.84평) 연면적 : 2,036.12㎡(396.35평) 주차대수 : 80대
강의시설 : B1층 - 강의실 1실, 1층 - 문예극장, 2층 - 강의실 4실, 3층 - 강의실 4실

강좌현황 운영기간 : 2015년 1월부터 12월 운영강좌 : 총20종 42강좌운영
강좌구분 : 전통강좌, 일반강좌, 악기강좌, 아동/청소년 강좌 등



다크종이인형



밸리댄스반



한국무용반



공모전반



규방공예반



문인화반



난타반



첼로반



서양화반



서예반



청소년에인첼버오케스트라반



기타반



민요반



요가반

향토전시관 운영 연중사업

2012년 개관한 의정부문화원 향토전시관은 의정부문화원이 시민들과 함께 약10여년 동안 수집한 향토생활용품 약 500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2013년 2관을 추가 개관하여 현재 1관 2관 약 50평의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향토전시관은 우리 문화원을 방문하는 가족 및 학생들에게는 옛 선조들의 삶과 생활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유년시절의 추억을 되새겨 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연간 7천여명이 방문하는 의정부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 연중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지역내의 문화소외 기관 및 다중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내의 우수공연팀을 초청하여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노인·장애인·외국 이주민, 청소년 등의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사업이다.

사업실적 총 공연횟수 : 62회

수혜기관 : 가능1동 주민자치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경민여자중학교, 금오요양원, 금오주공9단지 경로당, 금오중학교, 나눔의샘, 녹양은빛대학, 대건노인대학, 대한노인회, 보육시설연합회, 부대찌개 거리, 부용천 수변무대, 상금오희망데이케어센터, 송민학교, 어린이도서관, 은빛사랑채 녹양노인복지센터, 의정부 보훈지청, 의정부3동 희망데이케어센터, 의정부과학도서관,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여자중학교, 의정부역광장, 의정부역사, 의정부영아원, 의정부외국인복지센터, 의정부요양병원, 의정부정보도서관, 의정부중학교, 장애인주단기 보호시설 곰두리네집,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정부시 장애인 징검다리 축제, 천보중학교, 행복로, 회룡역





문화가족 대동한마당 기획사업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문화가족의 화합과 신년의 활기찬 출발을 기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특히 윷놀이, 제기차기, 고무신 멀리던지기 등 전통놀이를 활용한 문화원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전통 놀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행사일시 : 2015. 3. 5(목) 11:00~15:00 장소 : 의정부문화원 야외

참석인원 : 문화가족 300여명





전통예절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기획사업

의정부시민의 전통문화예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고 특히 어린이들의 우리문화예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 예절지도사를 육성하여 문화원의 전통예절 사업인 우리문화바로알기 교육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된 전문인력 육성 사업이다.

교육기간 : 2014. 10. 1~2015. 9. 30 자격취득 인원 : 14명 자격증 명칭 : 예절교육지도자 협력기관: 의정부시교육사회협의회





제5회 가족문화대축제 기획사업

제5회 가족문화대축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시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 의정부시를 구현하고자 의정부시와 의정부문화원이 함께 매년 진행하는 가족축제이다.

일시 : 2015. 5. 5(화) 10:00~16:00 (개막식 11:00~11:30)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무대 참여인원 : 10,000여명

주요프로그램 : ◆개막행사 : 식전공연(군악대, B-boy), 어린이날 표창수여 ◆공연마당 : 어린이 천막극장(인형극), 아동극 상연(구름빵), 축하공연 ◆게임마당 : 레크리에이션, 에어바운스 놀이터 ◆체험마당 : 숲속의 동물원, 17종 체험부스 운영
◆전시마당 : 군수품 전시, 장난감전시, 도서전시







문화가족 타 지역 문화유적 답사 기획사업

우리 문화가족들에게 선진문화유적탐방을 통하여 타 지역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우리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갖고자 우리 문화원이 매년 추진하는 문화탐방 사업이다.

일시 : 2015. 5. 27(수) 07:30~21:00 장소 : 충청남도 태안, 서산 일원 참여인원 : 135명

탐방일정 : 천리포수목원 - 용도 -수덕사





나라사랑 태극기 무궁화 전시회 기획사업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뜻 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시민 모두가 광복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기고 호국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 모두의 가슴속에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문화축제이다.

일시 : 2015년 8월 15일 10:00~18:00 장소 : 의정부 행복로 참여대상 : 의정부 시민 5,000여명

주요행사내용

【전시】 나라사랑 태극기 전시(시대의 흐름에 따른 태극기 변화)

국내 70여 재래종 무궁화 분재 500본 기획전시

【공연】 군악대, 의정부시립무용단, 청소년 예인챔버오케스트라

【체험 및 부대행사】 태극기·무궁화 포토존 운영 / 태극기·무궁화 페이스페인팅 / 가족참여 나만의 태극기 만들기 / 나라사랑 퀴즈 대회







의순공주 대제 재연공연 기획사업

의정부의 대표적인 문화원형 인물인 의순공주의 넋을 기리고 의순공주의 삶을 통해 역사를 재조명하여 그분의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고장에 대한 애郷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로 금오리 마을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통문화예술의 한 장르인 전통굿을 재연하는 사업이다.

일시 : 2015년 9월 6일 15:00~20:00 장소 : 의정부 행복로 특설무대

참여대상 : 의정부 시민 3,000여명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기획사업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경기도내 각 시·군의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여 경기 민속예술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청소년부와 성인부로 격년으로 진행되는 경기도 대표 전통예술경연 축제이다.

금년 2015년에는 성인부 대회로 우리 의정부시는 유현리, 지금의 녹양동 버들개마을에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유현리 기우제』 작품을 버들개 마을 전통놀이보존회 회원 50여명이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기간 : 2015년 9월 18일~19일 (의정부 참가 18일) 장소 : 경기도 오산시종합운동장





유현리 기우제의 유래 : 유현리는 의정부 녹양동마을 어귀에 고개가 하나 있는데, 버드나무가 무성한 고개라 하여 버들개로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 유현(柳峴)이라하여 유현리가 되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유현리버들개농요가 전해져 내려 올 만큼 농사를 지어 생활해 온 농경지역이다. 따라서 날씨와 기후 등 자연현상 따라 풍년과 흉년을 가능했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민감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해지면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며 목민관이나 또는 마을대표가 제단을 모으고 주육을 갖추어 놓고 한재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자우(慈雨)를 내려주기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그리하면 신기하게도 비가 내려 백성들의 시름을 덜게해주고 농사도 풍년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고장바로알기 기획사업

우리고장바로알기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중 내고장 바로알기 단원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현장답사 교육프로그램으로써 2005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매년 의정부문화원에서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연간 약 5천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는 의정부문화원의 대표 교육사업이다.

사업대상자 현장답사교육 교육 : 의정부문화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해설사가 각학급에 동행
이동방법 : 전세 버스 이용 교재 :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을 소개하는 '우리고장바로알기 문화수첩' 제공

답사지
의정부시의회-공공하수처리시설-자원회수시설-빙상경기장-신속주선생 묘역-정문부장군 묘역-북관대첩비-박세당선생 묘역-사랑채-노강서원-의정부문화원-향토유물전시관-북부기초과학교육원-현충탑-김풍익중령 전적비





정주당놀이 재연행사 기획사업

의정부시의 중요무형문화재인 정주당놀이의 원형 발굴 및 복원, 계승을 위하여 의정부문화원과 정주당놀이보존회가 함께 진행하는 전통문화 발굴사업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 문화원형 인물인 의순공주와 금오동 마을 전승 놀이인 정주당놀이의 문화적 가치를 증명하고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대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전통문화 발굴계승 사업이다.

교육사업 기간 : 2015년 1월 ~12월 연중진행 **사업내용** : 정주당 전통가락 연구 및 교육활동 / 정주당놀이 복원연구

재연행사 일시 : 2015년 10월 9일 **장소** : 의정부행복로

주요내용 : ① 제의식 : 족두리묘소에서 제례(봉안군파종회 전통제례 재연)

② 행사내용 : 전승가락 재연, 초청팀 공연, 정주당 놀이 대동 한마당, 부대행사 : 정주당 국수잔치





제30회 회룡문화제 기획사업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의정부시의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회룡문화제는 의정부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의정부 역사를 재조명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특히 화려한 역사를 간직한 옛 양주문화권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우리 의정부의 문화적 미래를 축제를 통해 확인하고 또한 희망도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30년의 전통을 지켜온 회룡문화제가 다시 한 번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길 기원하는 시민축제였다.

주제설정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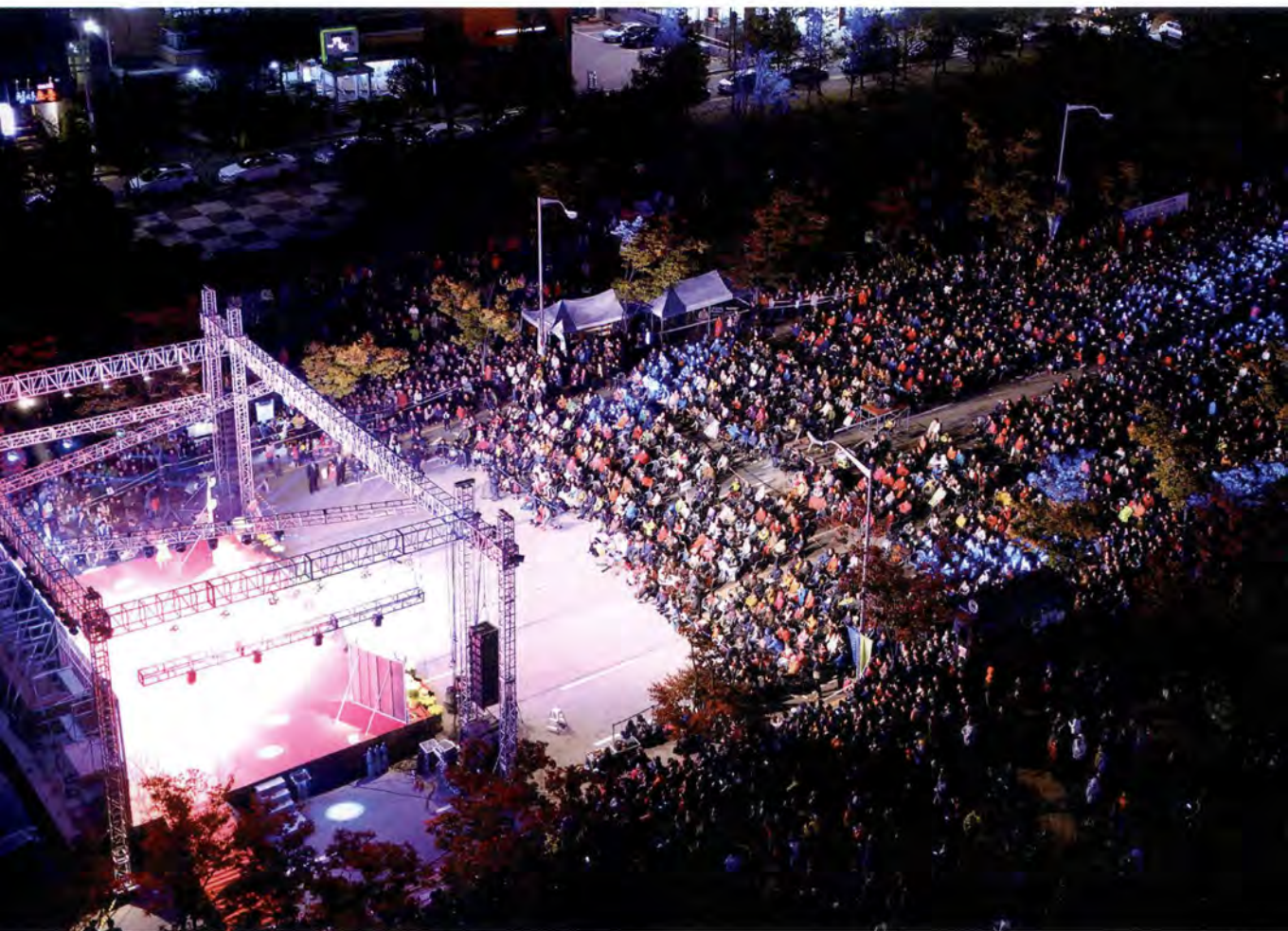
Partnership-day

소통과 통합의 시작
의정부의 희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날

Thema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작

화려한 역사의 옛 양주문화권
그 중심에 우뚝서있는 의정부의 미래





10월 8일 경기도청북부청사 앞 특설무대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의
개막선언과 기념타고로 회룡문화제의 개막을 알렸다.





회룡종합전시회는 규방공예, 문인화, 한국화, 닥종이인형, 서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작가들이 전시에 참여하여 약150작품을 전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특히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별전으로 의정부문화원에서 25년간 진행되어온 닥종이 인형 강좌를 통해 배출된 공예 작가들의 『추억의 닥종이 인형』전시가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어른신들이 주인공인 되는 은빛회룡제, 의정부 출신의 젊은 프로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부의 미래를 이야기한 의정부 in 뮤직페스티벌, 지역의 기타 동호인들의 축제인 의정부 in 기타페스티벌 등이 의정부 전역에서 펼쳐졌다.







또한 의정부의 대표 문화원형 인물인 의소공주의 넋을 기리는 대표무형문화제 정주당놀이재연행사, 다양한 장르의 지역 동아리들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문화한마당축제인 회룡난장, 동서남북 주요 공원을 찾아가 회룡문화제 축제를 함께 즐기수있게 준비한 찾아가는 회룡문화제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지역의 개인 및 여러 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만드는 시민화합의 축제가 되었다.





회룡문화제 축제의 전야제 축하행사로 시작된 『우리동네가 최고! 회룡노래자랑』은 끼와 흥이 가득한 의정부시민 약150여 명이 예선에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예선을 통과한 15명의 대표들이 11일 행복로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폐막행사의 메인프로그램에 열정의 무대로 행복도시 의정부의 행복함을 대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폐막의 축하공연으로 꽃바람여인의 조승구씨와 신세대 트로트가수 선경 그리고 아이돌 그룹 레이샤 등이 출연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시민모두가 제30회를 맞이한 회룡문화제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시민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30개의 대형 조명 풍선을 날리며 제30회 회룡문화제의 화려한 막을 내렸다.



제30회 회룡문화제 홍보포스터 및 프로그램 팸플릿



우리문화 바로알기 교육사업 기획사업

우리문화 바로알기 교육 사업은 의정부문화원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확립과 전통예절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의정부시의 지원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교육사업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의정부시교육사회협회의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의정부문화원에서 육성한 전통예절지도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더욱더 뜻 깊은 사업이었다.

◆기간 : 2015년 10월부터 12월 ◆장소 : 의정부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참여대상 : 어린이집 10개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1개교 1,000여명





의정부문화원 문화학교 제31기 졸업발표 기획사업

문화학교 졸업발표회는 의정부문화원 부설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한 해동안 배우고 익힌 문화예술기량을 공유하고 그동안 노력 해주신 강사 및 수강생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해주는 자리이다.

금년으로 31기를 맞이하는 문화학교는 매년 약 1,000여 명의 수강생들이 교육에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800여 명이 수료하여 생활문화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일시 : 2015. 12. 15(화) 오후1시 ~ 5시 ◆장소 :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 및 로비

◆참가수료생 : 42개 강좌 783명

제31기 의정부문화원 문화학교 발표회

일시 2015. 12. 15(화) 오후1시 장소 문화원 문예극장





어르신문화학교운영

기타공모사업

어르신문화학교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르신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능동적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있는 사업이다.

어르신문화학교 사업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배움'에서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 문화재능기부 활동, 문화동아리활동 등 어르신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년 우리 의정부문화원에서는 어르신포토봉사단, 한마음실버밴드, 춤누리무용단 활동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한해동안 진행하였다.



어르신포토봉사단

- ◆사 업 명 : 은빛인생 2막3장 『꿈을 실은 사진관』시즌2 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4월 2일 ~ 11월 30일
- ◆참여인원 : 교육참가자 - 22명
- ◆주요활동 : 교육활동 - 36회 108시간/ 야외촬영 7회
봉사활동 - 무료포토존 5회/ 사진전시회4회/ 기록사진 12회



한마음실버밴드

- ◆사 업 명 :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출동 1,2,3 세대 한마음밴드>
- ◆사업기간 : 2015년 4월 1일 ~ 12월 31일
- ◆참여인원 : 교육참가자 - 15명
- ◆주요활동 : 교육활동 - 70회 140시간
봉사활동 - 봉사공연 11회



춤누리무용단

- ◆사 업 명 : 연륜가득 마음가득 춤누리예술단 시즌4 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4월 3일 ~ 11월 13일
- ◆참여인원 : 교육참가자 - 19명
- ◆주요활동 : 교육활동 - 20회 60시간
봉사활동 - 봉사공연 7회



메르스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

광복70년 기념 의정부아리랑 음악회

기타공모사업

광복70년 기념 의정부아리랑 음악회는 2015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문화예술로 활성화 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 등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삶에 활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경기문화재단이 실시한 공모지원사업의 하나로 의정부문화원이 신청한 『광복70년 기념 의정부아리랑 음악회』란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광복70년 역사의 커다란 의미를 담아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경기북부의 중심 의정부에서 아리랑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위해 70년의 무게를 짊어지고 희생해온 지역의 일꾼들을 모시고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자 기획되었다.

일시 : 2015년 12월 6일(일) 15시~17시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주최 : 의정부문화원 참석인원 : 의정부시민 약 600명



메르스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

광복70년 기념음악회

의정부 아로128

2015. 12. 6(일) 오후 3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전석무료공연 관람연령 7세 이상

의정부문화원 031)872-5678 | 의정부청년회의소 031)872-1120

주최 의정부문화원 주관 의정부문화원 :: JCI 의정부청년회의소 후원 경기문화재단

시낭송



개그맨 정성호



앨범밴드 크레용



The Play



퓨전MC



2015년 경기문화재단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공모지원사업 펜화로 소개하는 우리고장 이야기 기타공모사업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공모지원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차세대 인적자원을 배양하고 경기 북부 지역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실시한 공모지원사업으로 의정부문화원의 『펜화로 소개하는 우리고장 이야기』가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장 의정부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미술장르인 펜화를 활용하여 익히고 표현하는 복합예술교육 사업으로 충의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우수 교육사업이다.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종합청사 답사기행

의정부문화원장 조 수 기

2015년은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광복절 70주년 기념 한국독립의 발자취 답사를 목적으로 한

경기도내 문화원장 해외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

일정은 2015.10.10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와 항주일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경기도 문화원장 31명중 20명이 참가하였고

여행비용은 자부담 50%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금 50%로 이루어졌다.



중국 상하이는 우리나라 서해 군산 앞바다에 위치한 것 같지만 막상 위도는 제주도보다도 남쪽에 위치한 아열대성 기후로 우리나라 날씨보다도 따뜻하고 비가 자주 내려서 도시 곳곳에 습기가 많아 농촌주택들은 1층은 창고나 헛간으로 사용하고 2층에 거실과 잠자는 방을 만들고 산다고 한다.

2015.01.10 오전 09:30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08361기)도 인천에서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따라 평택, 충남 아산, 서산, 전남 목포, 광주를 거친 후 이어도근방에서 항로를 중국으로 돌려 90분 만에 상하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시차가 1시간이 늦기 때문에 우리시간으로는 11시에 도착했겠지만 중국공항청사의 시계는 10시를 가르키고 있었다.

버스를 이용해 항주로 이동했다.

항주에서는 성황각과 성황문 그리고 서호를 돌아보기 위해 3시간 이상을 가는 관광버스가 중고차 인데다가 45인승을 55인승으로 내부를 개조하여 자리가 많이 불편했다.

서호에서 옛 시인을 그리다

청주의 명소인 서호로 가서 배를 타고 바다처럼 드넓게 보이는 인공호수인 서호를 돌아보았다.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배 모양이 기와집 지붕을 하고 건물처럼 꾸민 관광여객선은 배를 타는 인원 따라 규모가 다르고 노를 젓는 2인승 보트에 탄 연인 배도 있었다.

중국 10대 명소중 하나라는 이곳은 옛날 왕들이 이곳을 몇 번 다녀갔느냐에 따라 집권의 권력판도

를 알 수 있듯이 중국 송나라 때 만들었지만 역대 왕들의 휴양지처럼 권력과 돈이 들끓던 관광명소라고 가이드는 소개했다.



우리나라 호수와 차이가 있다면 규모가 바다(여의도면적의 3배)처럼 크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중국전통양식의 고층 누각을 지어서 호수를 관망하고 인공 섬을 만들어 관광명소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관광명소가 되기 전에도 역대 정권의 권력자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다녀간 발자취가 곳곳에 기록되어 아는 관광객의 가슴에 감동을 준다.



송성가무의 웅장함

날이 어두워 아쉬움을 안고 송성가무쇼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 용인민속촌처럼 만들어진 분위기의

마을이라 할 수 있는 송성마을로 이동하였다. 송성민속촌은 별 볼거리도 없는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송성가무쇼를 보는 입장권은 또 따로 사야 한다고 했다. 중국 송나라 때 수도가 항주였기 때문에 수많은 고적과 전설도 많은 이곳 항주에 오면 서호를 보고 송성가무쇼를 꼭 봐야 항주를 다녀왔다고 할 수 있다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송성가무쇼를 보러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송성가무쇼는 프랑스 물랭루주(캉캉쇼)쇼, 미국 라스베이거스 쇼와 함께 세계 3대 쇼 중 하나라는 가이드(중국교포3세) 안내로 극장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공연되는 쇼의 내용은 송나라의 번영과 역사를 만든 영웅들의 이야기와 사랑과 갈등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항주를 보여주는 총 4막으로 90여분간 공연되는 송나라의 역사와 항주의 미래상이라 할 수 있다. 3000석 규모의 객석에 만원으로 들어찬 관객 중에는 외국관객도 많이 눈에 띄었다.

연기자들의 분장이나 빠른 동작의 연기도 수준급이었지만 최신 전기통신기술을 이용해 무대뒷면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과 벽면에 라이트를 이용해 가면극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동물과 일기변화(천둥, 번개, 소나기, 눈) 자연의 계절변화(나무, 꽃, 풀) 등을 효과음향과 음악에 맞춰 공연함으로

써 현대에 촬영한 고대영화를 보는 것처럼 웅장한 맛이 있었다.



특히 관람객중 한국인이 많아서인지 아리랑음악과 부채춤 공연도 첨가되어 반가움도 더해지고 장고춤과 상모 돌리는 공연이 친근감을 배가시켰다. 또한 200여 명의 출연자가 빠른 동작과 서커스식 연기로 아름답고 장엄해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보는이의 환호성을 자아내게 하는 큰 공연이었다.

임시정부청사 방문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기념으로 뜻 깊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는 것이 이번 중국

여행의 주목적이었다. 상해임시정부청사는 상해시 마당로 306-4호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대문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유적지”라고 한글로도 표기돼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는 날 비가 내려서 소지한 우산을 쓰고 10여분 걸어들어 간 주택가 골목에 붉은 벽돌로 지은 3층 양옥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유적지 표시와 안내문이 게첨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일행은 1인당 20위안(약 3천원)씩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 안내인의 설명을 들었고 10여분 소요되는 영상자료도 시청했는데 해설인이 중국인 음성 특이 사무적이고 무감정적 설명을 해서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선열들의 열정과 애국심을 느끼기에는 미흡하고 아쉬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를 안내한 가이드 설명에 의하면 임시정부청사는 1926년부터 1932년까지 6년간 사용했던 현 건물을 중국정부에서 보수한 이후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입장료를 받고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이 50%, 중국인 20%, 일본인 20%, 기타 10%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방문자 중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등 귀빈과 기업인, 정치·외교계의 주요 인사들도 이곳을 방문하여 성금함에 금일봉을 성금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측은 관리유지비보다 입장수입이 많은 관계로 관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임시청사 1층은 회의실로 사용했던 곳으로 작은 탁자와 의자가 놓여있고 김구주석의 흉상이 태극기 앞에 앉아 있는 작은방인데 가이드 설명에 의

하면 일본헌병이나 친일파에게 노출될 때를 대비하여 손님 접빈용 방처럼 꾸미고 검소하게 운영했다고 한다.



2층을 오르는 계단의 옆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단의 활동기록과 사진을 비치하고 있는데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사실과 역사적인 애국운동의 역사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게 한다.

3층에는 김구선생과 애국단원 중 이곳에서 김구주석을 보좌하던 참모비서가 함께 숙식하던 침실인 듯 작은 침대와 간단한 가구와 부엌모습이 검소한 생활면모를 인식케 한다.

한인애국단원들은 목숨을 조국독립을 위해 바친다는 일념으로 중국의 각 곳에서 항일투쟁 활동을 하면서 늘 일본 군인들에게 붙잡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주둔해있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선진국대사, 공사와 그들 국가의 재중국 외국인 거주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도 프랑스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는 프랑스 조계마을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프랑스 조계는 중국정부로부터 치외법권적 영주권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독립군이 다른 곳에서 일본

군인에게 쫓겨 오다 프랑스 조계로 숨어들면 독립군을 잡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호처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건물 안과 복도에 게첨 된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들의 항일투쟁기록과 미국,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이승만, 김규식, 안창호, 이준 열사 등이 조국광복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기개로 싸우고 순직한 애국지사와 열사의 피와 땀의 댓가로 오늘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시한번 애국지사와 선열들에게 머리 숙여 존경과 추모의 인사를 올려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느꼈다.

홍구공원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임시정부청사를 돌아보고 우리는 1930.04.29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개최한 일본의 전승절 기념식장에서 도시락과 물병모양의 폭탄을 던져 일본수뇌부를 사상케 한 역사 깊은 곳을 찾아 갔다.

지금은 수목이 우거지고 연못에 색색의 비단잉어가 한가롭게 노니는 공원으로 중국인들이 모여서 산책하고 체조와 배드민턴 등을 즐기는 평화로운 도시공원이 되었다.

그러나 1932년경에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하던 한민애국단에게는 일본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전승기념일이 대한국민의 울분과 항일독립 투쟁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윤봉길 의사는 전승절 행사장 단상에 폭탄을 던져 일본의 상하이 파견대장인 시라카와 대장,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타 등을 즉사시키고 10여 명의 일본군 요인들을 살상케 한 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형을 받았지만 윤의사는 몇몇하게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침략자를 응징했다고 외쳤다.

윤봉길 의사의 쾌거로 짓눌려 분루를 삼키던 중국사람들과 한국국민들은 크게 용기와 희망을 일깨워 윤의사를 추모하고 항일투쟁을 가열시켜 나가게 되었고 세계인들도 한국독립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윤의사 추모비와 사당 앞에서 추모의 묵념과 “만세 삼창”을 올리고 윤의사의 뜻을 받들어 평화적 통일로 완전한 광복을 이룩하자고 다짐했다.



맺는말

이번 여행이 비록 3박 4일의 여정이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것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해에 우리나라가 1919년 삼일만세운동 이후 중국에서 건국한 임시정부청사를 찾아가 선열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찾아보고 그분들이 남겨주신 유업을 받들어 분단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이 나라가 완전한(하나된) 광복을 이룩하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명과 책무를 다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홍구공원에서 만난 중국인은 “한국과 중국은 친구이며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부수뇌부에게 폭탄을 던져 응징한 쾌거를 함께 기념해야 한다.”고 글씨로 써보이며 엄지손가락을 추켜 세워주며 매헌(윤봉길)선생은 훌륭한 독립운동가라고 했다.

일제강점 36년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민족이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순국애국지사들이 목숨 바쳐 독립투쟁 한 보람으로 1945.08.15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 광복을 맞이했지만 일본정부는 그들의 만행과 침략전쟁의 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숨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때에 우리는 일본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경제발전은 물론 그들보다 선진적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일본에게 문화를 전수해 줬던 우리들의 자존적 문화유산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새로운 한류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가족 명사특강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 내용정리 편집부 -

의정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정부문화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명사초청 특강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광복70년을 맞아 현재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 조국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지켜야하는 천명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호사카유지 교수를 초청하여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라는 주제로 2시간동안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각 국 고지도, 문서 등 다양 한 역사적 사료를 통해 독도 영유권의 진실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왜곡주장을 지적하고, 그것이 모두 허위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조목조목 설명했으며 열정 가득한 강연을 마쳤다. 이번 특강에 참석하지 못한 문화가족을 위해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해설 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다.

- ◆일시 : 2015년 11월 27일 14:00~16:00 ◆장소 :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 ◆참여대상 : 의정부 시민 200여명
- ◆강사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인문대학교수/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I.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산도로 불렸다.

1. 우산국과 우산도(=독도)

- * 512년에 신라는 우산국(울릉도+독도)을 합병했다. 『삼국사기』
- * 1454년,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은 (중략)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 신라 때 우산국이라 칭했다. 『세종실록지리지』

우리가 부르는 '독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문서는 1904년 일본 군함 니타카(新高)호의 항해 일지에서 발견되었다. 그곳에서 “한인은 리앙코루도암을 ‘독도’라고 쓰며, 일본 어부 등은 생략하여 ‘랑코도’라고 호칭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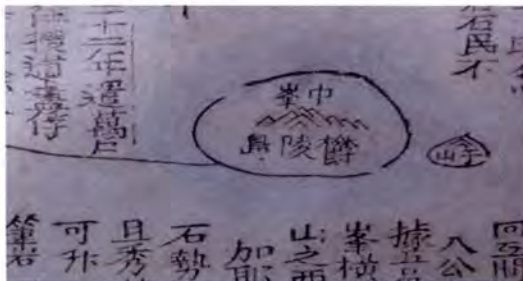
우리나라 문서 중에는 1906년 심홍택 울릉군수의 보고서에 “본군 소속 독도가.....” 라는 내용으로 처음 등장한다. 그 이전에는 우산도, 가지도, 자산도, 석도 등의 이름으로 문서와 지도상에 나타나 있다. 울릉도 주민들은 한때 이 섬을 ‘독섬’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돌섬’을 의미하는 사투리이다. ‘독도’라는 명칭은 바로 ‘독섬’의 음을 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2.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변화

1) 독도의 옛이름

명 칭	유 래
우 산 도	'우산'은 울릉도에 있었던 고대 소국인 우산국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독도의 이름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가 지 도	'가지도'는 물개가 많이 살고 있는 섬이라는 뜻이다. '가지'란 물개의 일종인 강치의 우리말 '가재'를 한자로 음역하여 부른 것으로, 독도에 강치가 많이 서식한 데서 유래했다. 독도의 서도 북서쪽으로 '가재바위'라 불리는 바위도 있다.
석 도	'석도'라는 명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등장한다. 이는 돌섬을 의미하는 '독섬'의 뜻을 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2) 19세기 중반 해좌전도



해좌전도 부분도

3) 19세기 중반 해동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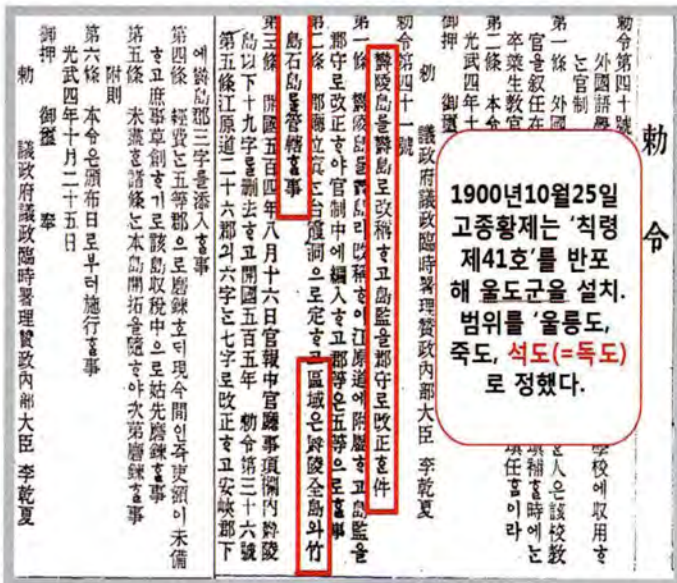
해동여지도 부분도

3. 조선의 공문서 : 우산도=송도(=독도)

* 『동국문헌비고』(1770), * 『만기요람』(1808)

* 『증보문헌비고』(1907):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于山)은 왜가 말하는 송도(松島)이다.”

국제법상으로는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통해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 할 것을 공포하여 우리 영토 주권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카이로 선언」에 따라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로 회복되었다. 또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러한 연합국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것이다.



1900년 '고종 칙령제41호'



증보문헌비고

호사가 소장은 “일본이 독도가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학술적으로 왜 허위인지에 대해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제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도 단순히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우겨서는 안 되며, 잘못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일본과 주변 나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로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II.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허위다.

❖ 첫 번째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1은,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는 모두 애매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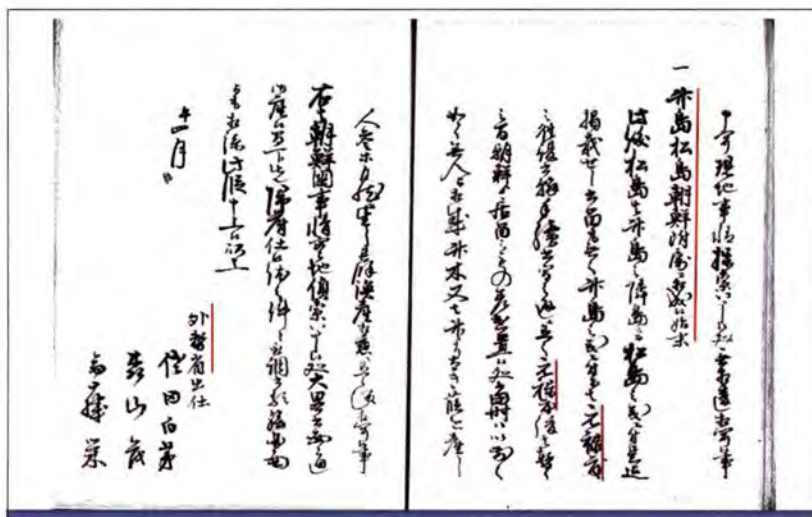
→ 그는 일본의 공문서자체가 이 주장이 허위라고 증명한다.

다음은 「일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이다.

☞ 17세기 말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되었다는 일본 측 공문서가 3가지 존재한다.

- 1) 1696년 '돗토리번 문서'(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재)
- 2) 1870년 '조선 교제시말 내탐서' (외교자료관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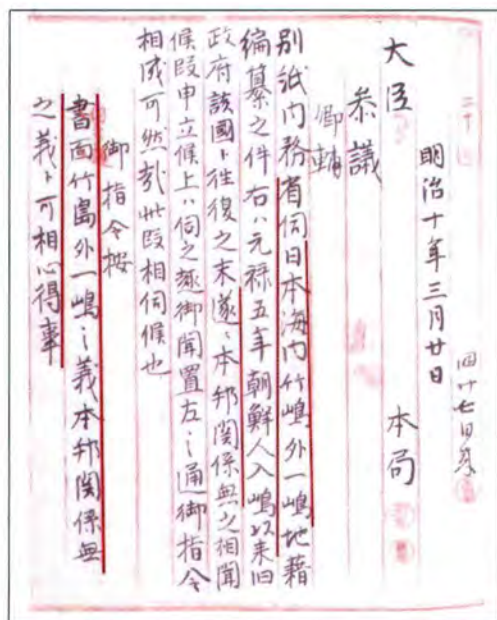
→ 1870년 일본 외무성이 17세기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되었다고 확인했다.



1870년 일본 외무성 공문

- 3) 1877년 '태정관 지령문' (국립공문서관 소재)

→ 1877년, 일본 정부(태정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공식확인한다.



일본 태정관 지령문 본문

옆의 문서는 태정관 지령문의 내용이다.

“일본해(=동해) 내 죽도와 그 밖에 있는 한 섬(=독도)은 (중략)

원록5(1692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중략) 드디어 본방과 관계가 없어졌다.”

지령문에 의하면, “서면(書面)에 있는 죽도와 그 밖에 있는 한 섬(독도)의 건은 본방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조선의 부속이다, 일본 영토 밖이다.

*죽도와 그 외의 한 섬이 울릉도와 독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첨부지도(태정관 지령문 첨부지도)이다.

*죽도(울릉도) 아래쪽에 있는 섬이 송도(독도)이다. 이 두 섬이 일본 땅이 아니라 조선의 부속이라고 일본 정부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일본 측 첫 번째 독도영유권 주장이 허위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분명하게 반박해야 한다.



태정관 지령문 첨부지도



송도(=독도) 부분도

❖ 두 번째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2는,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정식 편입했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 일본의 한국 침략과정이다.

- 1)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중국 여순(旅順)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1개 사단으로 왕궁(경복궁)을 포위했다.
 - 2)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여 일본의 한국침략이 시작된다.
 - * 제3조에는 '한국영토를 보전(保全)하겠다.' 라는 문구가 보인다.
 - * 제4조에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의 모든 시설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록됨. 이것은 한국전토를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다.
- 1904년 2월 러일전쟁 도발을 신호탄으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1905년 2월 일본이 독도를 비밀리에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편입시켰으나, 침략과정에서의 영토취득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언제부터 독도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 알아보자.

- ◆ 독도명칭이 처음으로 기재된 것은 1904년 9월 25일 일본군함「니다카(新高)호에서다. 군함일지에는 “한인(韓人)은 이곳을 독도(獨島)로 쓰고, 본방 어부(漁夫) 등이 줄여서 리안코島(=란코도)로 칭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905년 1월28일자 공문

한편, 일본정부에서도 독도편입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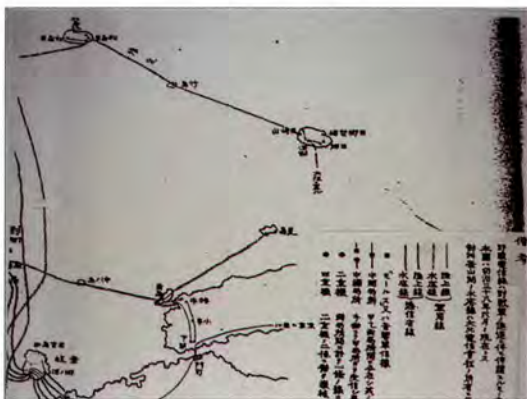
- * 일본 내무성에서는 독도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란코도(독도)가 한국영토일 가능성이 높다. 일개의 불모지의 암초를 편입함으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다고 서양열강들이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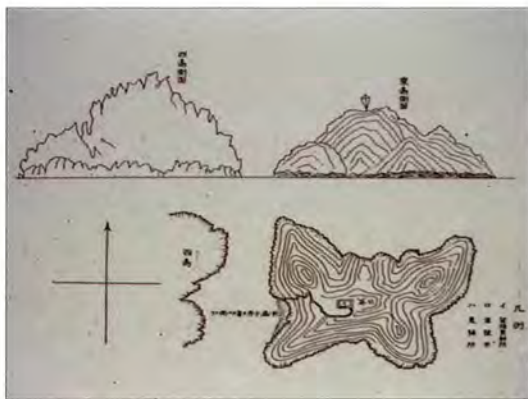
* 일본 외무성에서는 독도편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때가 때인 만큼 란코도를 영토편입 해야 한다. 란코도에 망루를 설치하여 해저케이블을 연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를 비밀리에 오키섬에 편입하게 되는 것이다.

☞ 1905년 1월 28일, 일본정부는 독도를 무명, 무국적(무주지)의 무인도로 규정하고, 울릉도의 이름이었던 죽도(다케시마)를 독도의 이름으로 하여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비밀리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1905년 6월까지 한국본토-울릉도-독도-오키섬-일본본토를 연결시키는 해저케이블을 완성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1905년 8월까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다.



독도 해저케이블 설치도면



독도에 망루 설치도면

◆ 외교로 서양열강들의 입을 막은 일본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 (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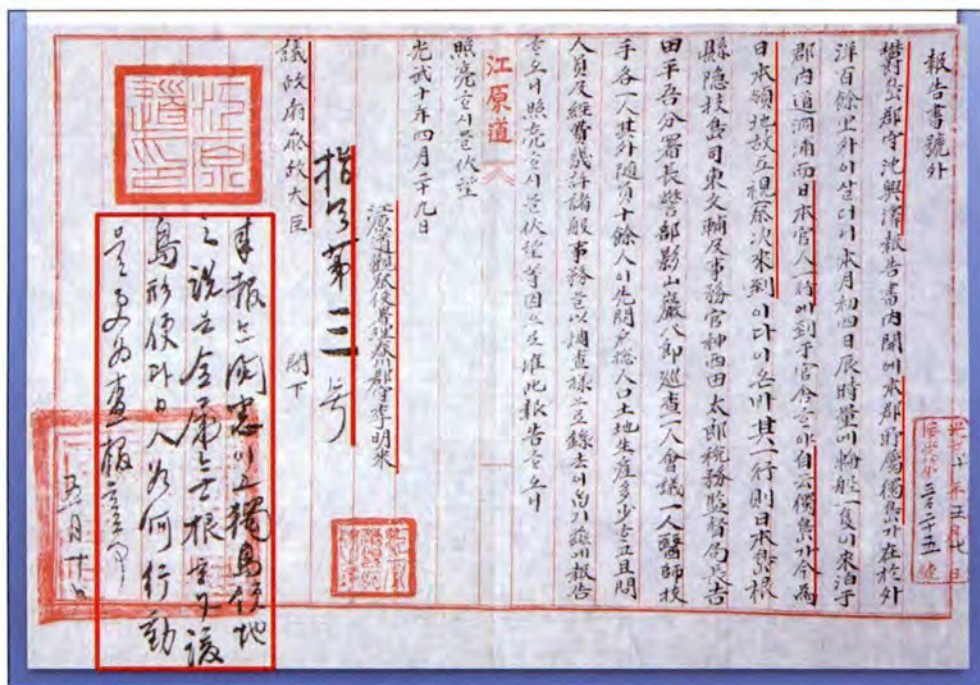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이다. 이 기록의 내용은 미·일 양국이 모두 극비에 부쳤기 때문에 1924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기록에는 서명된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것은 없었고, 일본-미국 관계를 다룬 대화에 대한 각서(memorandum)만이 있었다. 각서에 따르면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일부 미국 역사가들은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조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이는 미국이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에 협력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태프트가 자신의 의견이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만의 의견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1905년 9월 러,일간 '포츠머스 조약'(러)

포츠머스조약이란 미국 뉴햄프셔 주 포츠머스에서 1905년 9월 5일 조인된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을 말한다.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굳어져 갈 무렵 미국 대통령인 루스벨트의 주선으로 일본의 외무부장관인 고무라 주타로와 러시아 전권 대사인 비테 사이에 맺은 조약이다. 이때 중국은 청일전쟁 패배로 발언력을 상실하게 된다.

1904년 2월 23일 일본군 1개 사단이 서울에 진주하며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시정 개선에 대해 일제의 충고를 허용한다.'는, 「한일의정서」를 강압적으로 체결하고, 내정 간섭의 길을 열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중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같은 해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을 통해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러시아로부터도 마침내 한국에 대한 지도·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승인받았다. 열강들로부터 한국의 보호국화에 대한 승인을 얻어낸 일제는 이어서 한국에 보호조약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1905년 11월 서양열강들의 입을 막은 일본은 한국에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 강요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1906년(광무 10) 4월 29일자 공문

다시 말해서,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한국의 독도를 일본에 편입한다는 것을 비밀로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 후 1906년 3월 시마네현의 일본관인들이 독도를 시찰하여 그 후에 울릉도에 들러 구두로 독도가 일본땅이 되었다고 통보한다. 이에 울도군수 심흥택이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였고, 의정부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설은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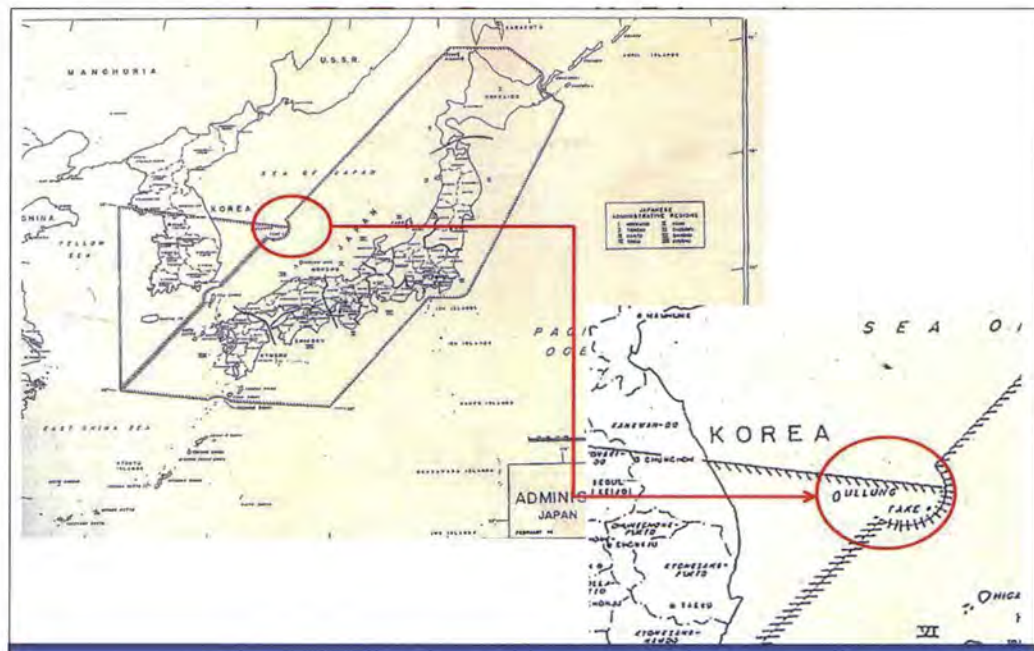
이에 대한 한국의 반박 결론 : “침략으로 취득한 영토는 무효이다.”(1943년, 카이로선언, 1945년 포츠담 선언) 라는 것이다.

❖ 세 번째로 주장하는 일본 측의 왜곡된 입장-3 「리스크 서한」

1) SCAPIN 제677호 (SCAPIN: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영토를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것이 1946년 1월 29일 작성된 SCAPIN 제677호이다: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 이 SCAPIN 제677호의 제3조에는 “일본은 일본의 4개 本島(北海島・本州・九州・四國)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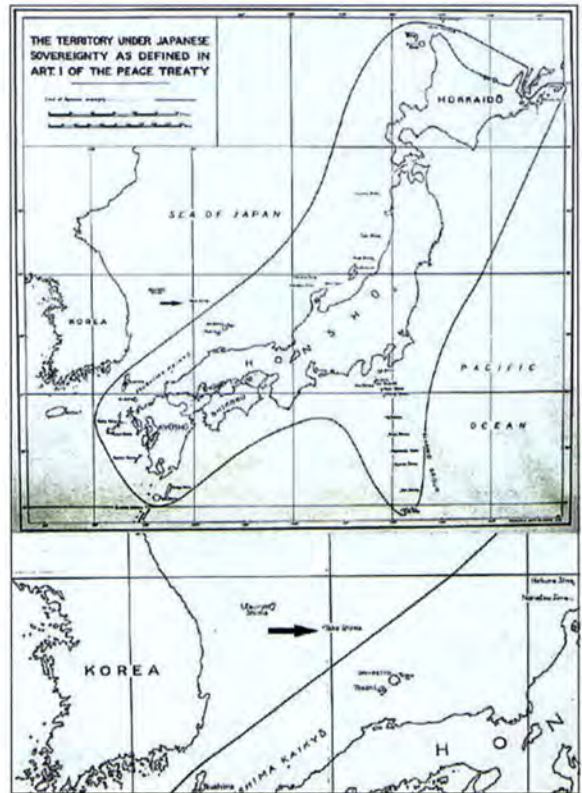
1946년 연합국의 SCAPIN 제677호 도면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리앙쿠르암 (Liancourt Rocks=獨島, 竹島)·濟州島 등이다”고 규정하여 ‘독도’ 등을 일본영토에서 분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리앙쿠르섬, 죽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2)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1951년 7월 한국은 한국영토조항에 독도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 요구를 거절(리스크 서한)했다. 즉 독도는 일본영토로 남았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의거해 설계된 국제 질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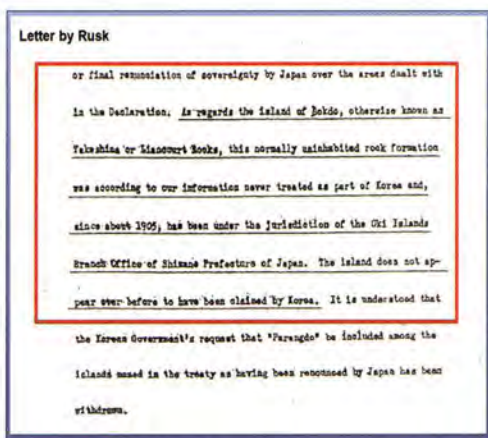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 조약당시 한일경계도

◆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작성과정

- * 미국이 도중에서 전략상 독도를 일본영토로 바꾸려고 했다.
- * 영연방이 독자적 초안을 준비함. (1951년 4월)=독도는 한국영토
- * 영국과 미국이 냉전을 고려해 일본이 수용하기 쉬운 초안을 채택하게 하기위해 독도의 이름을 조문에서 삭제하였다.
- * 극동위원회 11개국이 영미합동초안에 합의한다.
- * 1951년 6월 : 한국영토조항 확정: 제2조 (a)항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력 및 영유권을 포기한다.>
- * 독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앞의 합의(SCAPIN 문서)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독도=한국영토”라는 것이다.

3) 일본의 최대 왜곡주장 : 「러스크 서한」

- * 1951년 7월 19일, 한국정부, 한국영토조항에 '독도' 삽입 요구(한국은 비조인국)
- * 1951년 8월 10일 미국 국무성, 대한민국에 독도는 사실상 일본영토라는 '러스크 서한'을 송부한다.
- * '우리(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중략)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하에 있고 일찍이 한국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중략)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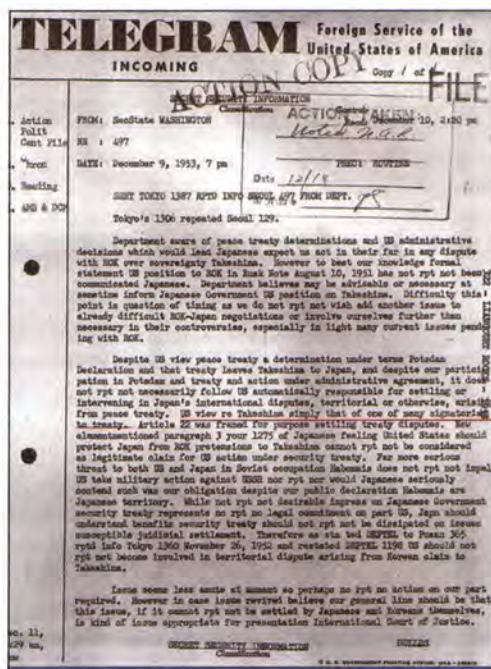
러스크서한 원문

4)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인 비밀문서이다.

「러스크 서한」은 비공개 문서이고, 주한 미국 대사관은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성명을 발표 했다. (1952년, 주한 미대사관 성명문)

*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 벤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 (1953년 8월)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 벤 플리트 보고서(1953년 8월)에는 「러스크 서한」은 공표된 문서가 아님을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책임자였던 텔레스 대사가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라고 밝힌 바가 있다.



텔레스대사 미국무성 비밀문서

붉은 줄 친 부분 원문과 해석문이다.

US view re Takeshima simply that of one of many signatories to treaty.

번역 : 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많은 서명국 중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텔레스 국무장관(당시)이 기록한 비밀문서를 정리하자면, 미국은 1954년 미국무성 비밀문서로 「러스크」의 역사적 지식 부족이라 하면서 「러스크 서한」으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된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그 후 2014년 10월과 2015년 5월에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로이스 위원장이 “올바른 이름은 독도”라고 얘기한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지명위원회는 독도의 주권국가를 '한국'으로 인정했다. (2015년 현재)

밴 플리트 보고서(1953.8): 러스크서한은 공표된 문서가 아님을 명기

4. Ownership of Dokto Island

The Island of Dokto (otherwise called Liancourt and Take Shima) is in the Sea of Japan approximately midway between Korea and Honshu (131.80E, 36.20N). This Island is, in fact, only a group of barren, uninhabited rocks.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identially informed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regarding the islands but our position has not been made public. Though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at the islands are Japanese territory, we have declined to interfere in the dispute. Our position has been that the dispute might properly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is suggestion has been informally conveyed to the Republic of Korea.

밴 플리트 보고서

결론적으로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이자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문서이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결정했고,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앞의 합의를 계승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앞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세 가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Ⅲ. 한일협정과 독도문제

1.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공문' (1965년 6월 22일)체결

* 양국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간의 분쟁은 먼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양국정부의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기로 한다.

2. 교환공문의 특징

- 1) 독도명칭이 본문에서 삭제되었다.
- 2) 해결방법을 '외교상의 경로' 및 '조정'으로 했다.
- 3) 조정의 대상은 '양국 간의 분쟁'이므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일본의 입장이다.
→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 측 움직임이 본격화(1994년 이후).

3. 한일 양국의 독도문제에 대한 입장

- * 일본 정부 : 국제사법재판소든 조정이든 대화, 협의할 용의가 있다. 독도는 명백한 분쟁지역이기 때문이다.
- *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때 교환공문에 독도문제는 들어가지 않았다. 독도는 한일 간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독도는 사법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조정, 중재의 대상도 아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분명한 한국영토이기 때문이다.

※ 자연이 인정해 준 한국의 땅 독도의 모습이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독도 동도에 나타난 한반도



천리포수목원, 옹도, 수덕사 답사기행

- 편 집 부 -



천리포 수목원 전경

문화가족 일행은 5월 27일 오전 7시 문화원에 집합하여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서해안으로 향했다. 충남 태안에 있는 「천리포수목원」주차장에 내리니 바닷가라 그런지 바람이 제법 세다. 자유 시간으로 한 시간 남짓 둘러본 수목원은 다양한 식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곳이다.

서해안 천리포수목원

천리포수목원은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수목원이다. 한국식물과 세계식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식물의 세계적 위치 규명, 식물자원보호와 실용화를 위한 사업 및 국민에 대한 식물 교육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1996년 8월 5일 설립 허가된 대한민국 산림청 소관의 재단법인이다.

천리포수목원은 1962년도부터 전 재단 이사장 민병갈(閔丙瀾 : Carl Ferris Miller, 79년도 귀화)원장이 매입하면서

비롯되었다. 약 60ha로 이루어진 천리포수목원은 1970년부터 부지의 연차적인 확보와 함께 현지에 적응이 가능한 식물들을 한국 및 유사한 기후권의 여러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천리포수목원은 그 동안 한국의 모든 관련 분야 및 학과의 전문인들에게 연구 및 실험 자료로써 활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식물자원의 가치와 그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천리포수목원의 해양성 기후조건은 여름에는 내륙보다 서늘하고 겨울에는 오히려 온난하므로 난대성 식물에서 아한대성 식물들까지 재배할 수 있는 식물종류의 폭이 넓은 것이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천리포수목원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다양한 상록 활엽수들과 고산성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등 60여 개국으로부터 수집된 식물들은 목련을 비롯하여 약 6,686종에 이르며, (1999.4.18 기준), 이를 포함한 1만4천여 종의 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식물종 보유 수목원으로 2000년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 받았다.

이러한 명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푸른 논의 한국인 밀러의 정원 천리포수목원은 192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출생하여 1979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민병갈(Carl Ferris Miller)에 의해 설립된 국내 최초 민간 수목원으로 시작했다.



설립자 민병갈 흉상

민병갈(閔丙渴, 1921년 4월 5일 - 2002년 4월 8일)은 한국 최초의 사립수목원을 세운 미국계 귀화 한국인이다. 칼 페리스 밀러(영어: Carl Ferris Miller)가 그의 귀화 전 이름이다.

192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웨스트 피츠턴에서 태어났고, 버크넬(Bucknell)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였다. 그는 러시아어와 독일을 할 줄 알았고, 한자를 배우기도 하였다. 그는 징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1944년 콜로라도 대학의 해군 정보학

교 일본어 과정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1945년 4월 일본 오키나와 섬 미군사령부의 통역장교로 배치되었다. 그는 1946년, 한국에 연합군 중위로 처음 오게 되었다. 당시 25살이었고, 그 후 다시 1947년 1월 주한미군사령부 사법분과 위원회 정책고문관으로 지원해 한국으로 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다시 미국으로 귀국하였고 그 후 1953년 한국은행에 취직해 자리잡을 때까지 전쟁시에 일본과 미국, 한국을 왔다갔다 해야만 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천리포수목원 조성을 시작하여 1979년 민병갈이라는 이름으로 귀화하였다. 그는 서울의 증권사에서 일하면서 수목원 조성에 힘을 쏟았고, 한국과 식물에 대한 공부에 힘을 쏟았다.

천리포수목원은 1979년 재단이 되었고, 1989년까지 10년 동안 해외 교류 학습을 통해 영국 왕립 원예협회(RHS) 공로 메달을 수여받았다. 재단 출범 전해인 1978년 민병갈은 남해안 답사여행에서 감탕나무(Ilex)와 호랑가시나무의 자연교잡(交雜)으로 생긴 신종 식물을 발견하였고, 세계에서 한국의 완도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으로 검증되었다. 민병갈은 국제규약에 따라 발견자와 서식지 이름을 넣은 학명 'Ilex x Wandoensis C. F. Miller'를 국제학회에 등록했고 한국 이름은 '완도호랑가시'로 정했다. 천리포수목원에서 배양된 완도호랑가시는 종자목록(Index Seminum) 발행을 통한

다국간 종자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퍼져나갔고, 천리포수목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1978년부터 1998년까지 36개국 140개 기관과 교류 관계를 맺어 다양한 품종의 나무를 들여왔다. 민병갈은 국제적인 교류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환경과 식물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1997년 4월 국제목련학회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1998년 5월에는 미국 수목원이 주축을 이룬 범세계적 학술친목 단체인 HSA의 총회를 천리포수목원에서 개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2002년 4월 8일 81세로 숨을 거두었고, 한국에 수목장으로 묻혔다.



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은 민병갈 사망 후 후임 이사장에 문국현(文國鉉) 유한킴벌리 사장을 추대하였고, 2010년에 이은복 한서대 명예교수를 이사장으로 추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민병갈은 2002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해 미국 프리덤 재단(Freedom's Foundation)에서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우정의 메달을 수상했다. 안타깝게도 이 상훈은 그의 죽음으로 여동생인 준 맥데이드(June MacDade)가 대리수상하였다. 그가 조성한 천리포수목원은 다양

한 식물 품종으로 주목받았고 2000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수목학회가 지정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미국 호랑가시학회가 선정하는 '공인 호랑가시 수목원'이 되었다.

수목원 설립자 민병갈은 2002년 4월 8일에 영면하셨지만, 천리포수목원은 공익법인으로 등록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겨주었다. 식물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수목원 본연의 역할은 물론, 국민에게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식물이 주는 유익함을 널리 알려 '자연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40년 만에 열린 비밀의 정원 천리포수목원은 설립이후 40년간 연구 목적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비개방 수목원이었다. 그러나 민병갈 설립자의 나무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총 7개의 관리 지역 중 첫 번째 정원인 밀러가든(Miller Garden)을 2009년 3월 1일부터 개방하게 되었다. 이후에 '밀러가든'은 연 30만명 이상이 찾는 서해의 푸른 보석이 되었다.



*위의 기재된 사진과 글은 천리포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

웅 도

위치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부두길(안흥외항)



웅도는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는 충남 유일의 유인등대섬이다. 지난 1907년 1월 서해안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등대가 세워진 후 106년 간 외부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태초의 모습을 간직해왔던 곳이다.

그러나 항로표지원이 외로이 섬을 지키는 동안 소문은 계속 번졌다. 2007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등대 16경'에 포함됐고, 2012년에는 국토경제신문이 발간한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섬 20선》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에 개방하기 전부터 그 섬과 등대의 아름다움은 알음알음 섬 밖으로 향했다. 그래서 군은 뛰어난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웅도를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웅도를 민간에 개방했다. 웅도는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하루 2회 출발하는 안흥 유람선을 이용해 방문할 수 있다. 유람선 정기 운항 시간은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2시이고 관광객이 많을 경우 수시 운항도 실시한다.

태안 읍내에서 약 20km 거리다. 안흥항은 내항과 외항으로 나뉜다. 내항과 외항은 신진대교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다. 육지 끝의 정족리에는 내항이, 다리 건너 신진도에는 외항이 있다. 항구의 기능은 외항이 생겨난 뒤 내항에서 외항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안흥외항에서 웅도까지 약 12km 거리다. 안흥외항을 떠난 배는 가의도 곁을 지나 웅도에 다다른다. 유람선이 하루 한 차례 오가고, 섬에 내려서는 1시간가량 머물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조바심이 난다. 하지만 서두를 이유는 없다. 웅도는 산책로를 따라 섬 정상의 등대까지, 등대에서 선착장 반대편의 섬 서쪽까지 내려갔다 돌아오는 왕복 구간이다. 직선거리로 약 365m, 잠깐씩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녀와도 부족하지 않다.



웅도 선착장

선착장에 내려서자 등명기 모양 쉼터 '환영의 빛'이 등대섬답게 여행자를 맞아준다. 산책로 초반은 계단을 따라 오른다. 첫 모퉁이를 돌 때 웅기 쉼터가 나온다. 섬의 중간 높이로 선착장 풍경을 품는다. 웅기는 이 섬에 웅도라는 이름이 붙은 기원이다. 섬이 웅기를 옆으로 누어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웅도다. 섬 곳곳에 있는 웅기 형상 조형물도 같은 의미다. 두 번째 모퉁이에는 동백꽃 쉼터와 동백잎 쉼터가 반긴다. 동백꽃 쉼터는 동백꽃의 붉은색 차양, 동백잎 쉼터는 동백 잎의 초록색 차양으로 꾸민 쉼터다. 그 사이에 장승이 섰다. 동백꽃 쉼터는 웅기 포토 존과

가자미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웅기 포토 존은 웅기를 반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정상 of 등대가 보이도록 배치했다. 동백꽃 쉼터는 웅기 쉼터보다 높아 전망대로는 한 수 위다.

단도와 가의도가 손에 닿을 듯 선명하고, 멀리 신진도까지 보인다. 가의도 남쪽은 목개도와 정족도가 눈을 맞춘다. 동백꽃 쉼터와 동백잎 쉼터를 지나면 동백 터널이다. 웅도는 봄날에 동백꽃이 섬을 물들인다. 붉은 꽃의 터널이 그 백미다. 여름에는 초록 잎이 반짝이며 길을 연다.

동백 터널을 나오자 비로소 등대 앞 중앙광장이다. 섬의 정상은 등대와 중앙광장, 숙소동으로 구성된다. 중앙광장에는 커다란 웅기 조형물이 다시 한 번 웅도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 옆으로 고래 조형물이 있다. 그리고 보니 멀리서 본 웅도는 고래를 닮았다. 실제로 일대 어민들은 고래섬이라고 부른다. 등대에 전시관도 있다. 웅도 모형 등이 있어 발길이 닿지 않는 섬의 면면까지 살펴볼 수 있다.

산책로는 등대에서 서쪽 아래로 계속된다. 섬 가장자리 못미처 끝나는데, 울타리 너머에 물범 조형물이 시선을 끈다. 먼 바다에는 충남 최서단의 격렬비열도가 보인다. 그 이름처럼 새가 무리 지어 날아가듯 바다에 떠 있다. 굳이 전망대나 쉼터라고 이름 붙이지는 않았지만, 너른 바다가 마음을 일렁이게 한다.



웅도 중앙광장



바다 한가운데서 본 옹도 등대

옹도를 뒤로하고 나올 때는 섬의 모양을 눈여겨 볼 일이다. 옹기를 누인 듯도 하고, 고래가 헤엄치는 듯도 하다. 바위섬을 유람하며 좀 더 머물지 못한 아쉬움을 달랜다. 옹도는 들어가는 데 30분이 걸리지만, 나오는 길은 1시간 조금 넘게 걸린다. 가의도 주변의 재미난 바위섬들을 관람하기 때문이다.

태안군은 북쪽 이원면에서 남쪽 고남면까지 세로로 길쭉한 반도다. 학ampo에서 영목까지 약 230km에 리아스식 해안이 펼쳐진다. 그 중 가의도는 가의라는 중국 사람이 피신해서 가의도라 하고, 신진도의 가장자리라 그리 부른다고도 한다.

동서로 길게 뻗었는데 동쪽 바다에는 독립문바위와 뚝대바위가 도열한다. 독립문처럼 문이 있는 바위와 뚝대처럼 솟은 바위다. 사자바위와 거북바위 역시 바다에 줄지어 섰다. 사자바위는 고개를 돌린 사자의 모습과 신기할 만큼 닮았다. 멀리 중국 땅을 바라보며 태안반도를 지킨다고 전한다. 사자를 뒤따르는 자그마한 바위 끝에 거북바위가 있다. 섬 주민들이 제를 올리던 바위다. 코바위와 부부바위도 유람의 즐거움이다.

배에서 내리면 안흥항을 돌아본다. 항구에는 집어등을 단 배가 많다. 옹도 서쪽의 격렬비열도 일대는 오징어 집단 서식지다. 태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이제 동해 못지않다. 오징어를 사기 위해 일부러 안흥항을 찾는 사람도 적지 않다.

수 덕 사

신진도항에서 버스를 달려 수덕사로 향한다. 봄날이라 그런지 태양빛이 길게 늘어진다. 꽤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직 매표소는 문을 닫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다.

매표소를 지나 먼저 일주문을 지나게 된다. 일주문은 여기에서부터 사찰의 경내가 시작됨을 일깨워주는 알림의 문이다. 일주문이란 '부처님을 향한 모든 진리는 하나'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수덕사 일주문은 기둥사이에 공포가 짜여있는 다포계형식으로 맞배지붕을 하고 있으며 소전 손



수덕사 일주문

재형이 쓴 "덕숭산수덕사(德崇山修德寺)"와 "동방제일선원(東方第一禪院)"이라는 현판을 걸어 사찰의 격을 나타내고 있다. 1960년 신축되었으며 1998년 법장스님에 의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수덕사 일주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고암 이응노 화백이 머물던 수덕여관이 있다. 고암은 1944년 수덕여관을 구입해 6.25동란 시 피난처로 사용하였으며, 수덕사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옮기기도 하였다. 고암은 1969년 동백림사 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일주문을 지나서 위쪽으로 향하면 금강문 현판을 만난다. 금강역사상은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금당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문 양쪽을 지키는 수문신장(守門神將)이다. 문의 왼쪽에는 밀적금강(密迹金剛)이 손에 금강저를 쥐고 있으며, 천상계의 나라연금강(那羅延金剛)은 문의 오른쪽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호령하듯 속계와 성계(聖界)의 경계를 지키고 있다.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다문천왕

세 번째 문은 사천왕문(四天王門)이다. 사천왕은 수미산 주턱에 있는 주신인데 동방은 지국천왕, 남방은 증장천왕, 서방은 광목천왕, 북방은 다문천왕이 악귀를 다스린다. 수덕사 위쪽에 있는 대웅전을 향해 계단을 오르다 보면 누각(樓閣)형 건물인 황화정루(黃河精樓)에 다다른다. 엄밀히 말해 누각건물이지만, 1층 가운데 칸을 비워 출입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엄연한 문이다. 사찰에 누각이 세워질 경우 일반적으로 주불전과 마주하는 곳이 제자리다. 누각은 대개 이층의 형태를 취한다. 누각강당은 대웅전을 친견할 수 있게 하는 공간적 승화감을 가져다주며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절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의식 집전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반한다. 황화정루도 이층의 누각으로 대웅전과 마주하여 1992년에 준공되었으나 그 규모가 거대하고 용마루 선이 높아 대웅전을 외호한다는 근본취지에서 벗어나 1994년에 지금의 장소로 이전 개축하였다고 한다.



황하정루(黃河精樓)

산지형 사찰에서 보이는 위계질서를 고려한 것이다. 황하정루는 정면 7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3익공 구조로 1고주 11랑 가구건물이다. 현재 누각의 지하는 근역성보관인 박물관으로, 건물에 걸려있는 '선지종찰수덕사'와 '황하정루' 현판은 원담스님 글씨이다. 황하정루의 황(黃)은 부처님의 정신을 뜻하고, 하(河)는 큰 강이 흐르듯 정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황하정루 건물 지하에 근역(謹域)성보관이 있다. 성보박물관 안에는 경허, 만공이 쓴 붓글씨와 만공스님이 의친왕 이강에게 받았다는 거문고도 전시되어 있다. 최인호의 소설 '길 없는 길'의 출발점이 됐던 그 거문고다. 또한 개심사금동여래좌상, 일락사철불, 백의관음인 소조불상좌상,

만공스님 25조 금란가사가 전시되어 있다. 25조 홍색 금란가사(金欄袈裟)는 만공(滿空, 1871~1946)스님이 착의하였던 것으로 만공스님의 진영에서도 동일한 가사를 볼 수 있다. 금란가사는 가사에 금사(金絲)로 자수(刺繡)하거나 금사를 넣어 직조한 천으로 제작하였으며, 불교 의식법복(儀式法服)의 하나이다. 인도의 의복인 가사는 불교가 아시아로 전해지면서 각 나라의 기후와 민족성에 따라 전통 복식과 가사를 덧입기도 한다. 중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에서는 장삼 위에 가사를 걸쳐 입게 되었으며 현재는 종파와 법계(法階)에 따라 그 색과 형태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의친왕 이강 거문고



금강보탑과 대웅전

황하정루를 지난 다시 계단에 오르면 금강보탑(金剛寶塔)이 보인다.

성역화 중창불사 중 조인정사를 해체하면서 전탑좌대가 발견된 그 자리에 2000년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다. 3층 석탑인 금강보탑 기단부의 면석에는 문수보현관음보살을 부조해 보살의 자비를 상징하고 사천왕은 이를 지켜주는 의미로 함께 부조되어 있다. 기단부의 귀부분에는 사자상을 조각하여 세웠다. 탑의 상륜부는 금강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석탑의 높이는 950m이다.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은 고려 1308년(충렬왕 34)에 건립된 건물로 오랜 역사와 뛰어난 조형미는 한국 목조 건축물 중 백미이다. 조선시대에 부분적 보수가 몇 차례 행해졌으며, 1937~1940년 해체 복원 시 대웅전 내부에서 고려시대의 벽화가 발견되었으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현재 금룡도(金龍圖)를 비롯한 내부 부재에 그림과 단청이 일부 남아 있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대웅전 삼세불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맞배지붕으로 배흘림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하였다. 예전에는 폭 크기에 상관없이 건물의 기둥과 기둥사이가 한 칸이다. 지붕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짠 구조가 기둥위에만 있는 주심포양식이다. 간단한 공포구조와 우미량, 화반, 보아지 등의 부재가 조화를 이루어 대웅전의 건축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대웅전 내부에는 고려시대의 목조 연화대좌, 육각수미단, 불탁과

1639년 조성된 보물 제1381호 「수덕사목조삼세불좌상일괄」이 있다.

중앙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약사불, 아미타불의 삼세불이 모셔져 있다. 목조 삼세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연화대좌, 수미단 등을 한꺼번에 보물로 지정하면서 불인 이름이다. 삼세불좌상은 수덕사의 중흥조인 만공(滿空)선사가 전북 남원에 있는 만행산 '귀정사(歸淨寺)'로부터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수덕사노사나불괘불탱[보물 제1263호]

괘불은 사찰에서 야외법회를 할 때 의식용으로 거는 초대형 불화이다. 초대형이라 평소에는 접하기 힘들다.

수덕사 괘불탱화의 중심에 크게 그려진 불상의 머리 위에는 '원만보신노사나불'이라고 써놓았다. 노사나불은 석가모니의 보신(報身)의 하나이다. 보신은 삼신(三身)의 하나로 선행공덕을 쌓아 부처의 공덕을 갖춘 몸이다.

이처럼 큰 괘불탱화를 경내에 걸고 야외 의식을 하는 장엄한 분위기를 떠올려 보는 것도 괘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섬세하게 그려낸 괘불탱 앞에 서면, 이 그림을 그린 손길의 신심까지 느낄 수 있다.

"수덕사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재가 있다. 바로 보물 제1263호로 지정되어 있는 수덕사 괘불(1673)이다. 장황을 포함한 전체 크기는 길이가 1059cm, 폭이 745cm에 이르며 그림이 그려진 부분은 길이 900cm, 폭 696cm에 이른다." 박해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이 특별전을 소개하는 글에서 "수덕사 괘불은 본존의 도상이 일반적인 부처의 형상이 아니라 보관을 쓰고 화려하게 장엄한 보살과 같은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나괘불탱

우리 일행은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박물관에는 들 수 없었다. 대신에 저녁 예불시간인 지 법고각(法鼓閣) 앞에서 스님의 큰 법고(法鼓)를 두드리는 모습과 북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스님의 심(心) 字를 써가면서 북을 치는 모습이 성스러워 보였다. 사찰 아래에서 산채정식으로 맛있게 저녁식사를 한 일행은, 귀가행 버스에 올라서 밀려오는 피로감에 노곤히 잠을 청했다. 모두 행복한 표정이다. <끝>



법고각의 북치는 모습

문화는 시대의 자아(自我)다



이국진 칼럼니스트
의정부문화원 이사

문화란 한 시대의 산물이고 가치관이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축적되어 쌓여온 결과물이다. 특정 시기나 국가, 혹은 개인을 이해하고 조명하려면 문화를 먼저 읽고 분석해야 한다.

가령 누군가의 정체성이나 성향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문화를 소비하는 패턴을 읽으면 가능하게 유추해낼 수 있다.

미국 심리학자 샘 고슬링은 저서 '스냅'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속에 담겨진 소지품 혹은 책상위에 무심히 놓아둔 흔적들을 통해 그의 지적 수준이나 취미, 성향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어느 음식 전문가는 사람들의 음식취향이나 음식선택을 통해 그의 성격이나 생활 수준 뿐만 아니라 현재 그의 심리상태나 욕구를 읽을 수 있다고 했다.



〈누군가의 책상 위 물건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음식, 영화, 대중매체, 패션, 취미활동 등 다양한 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계급을 결정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를 티내기, 혹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distinction)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누군가의 취향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계급이며 다른 사람과 구별을 짓는 잣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명품가방이나, 시장에서 구입한 가방이나 혹은 짝퉁 명품가방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계급과 성향을 알 수 있다. 명품을 걸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명품족의 차림새- 의상, 악세서리, 가방, 구두, 시계, 와이셔츠에 붙어있는 커프스 등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모든 것-를 보고 한 눈에 브랜드와 가격을 알아맞히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과 취향을 파악할 줄 아는 안목을 가졌다면 그는 명품에 대한 일가견뿐만 아니라 대단한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계급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인들의 명품사랑은 대단하여 파리, 밀라노의 유명 백화점에는 명품을 쓸어 담아가는 동양 관광객들(특히 중국인, 한국인)의 싹쓸이 쇼핑을 견제하기 위해 판매개수를 제한할 정도로 특히 동양인들은 명품이라면 사족을 못쓴다.

이와 달리 정작 명품브랜드의 메카인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값비싼 명품에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두지 않는 풍조여서 다른 사람에게 티를 내고 싶어하는 동양인들의 소비정서와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비싸고 널리 알려진 명품 대신에 자신의 나라나 지방에서 수백년 동안 소규모로 운영하는 공방에서 그 가계만의 고유한 기공과 기술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어 만든 물건을 걸치고 소장하는 것에 대해 본인의 자부심은 물론, 품격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세상이 변하고 발전을 거듭해도 명품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생활화하는 유럽인들의 문화는 그들의 DNA에 단단히 새겨져 있는 듯하다.

한편 한국에서는 명품가격이 고공행진하며 식을 줄 모르던 명품사랑이 최근 한껏 사그러들고 있다. 명품관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존재해왔던 명품 브랜드에서 새로운 브랜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재발견된 브랜드, 혹은 개성있고 참신한 브랜드로 소비가 넓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침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의 양식을 향해 달려드는 집단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살려 다양성을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타인에 의한, 타인을 위한 수동적인 소비가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한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겠다는 의지이고 표현이므로 고무적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문화의 지도를 새롭게 재편할 것이다.

여성들에게 가방이 자신의 계급 혹은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남성들에게는 자동차가 그의 아이덴티티다. 남성들에게 있어 자가용은 자신의 체면을 지켜주며 그가 누구인가를 대변하고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고자하는 신분으로써 작용한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하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지나치게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려는 현상에서 체면과 이목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남성들에게 자동차는 그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로 인식된다.〉

이처럼 취향이라는 개인적인 기호가 곧 소비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를 설명해 주고 있다. 패션뿐만 아니라 일차적 욕구인 '먹거리'라는 테마는 언제나 그랬듯이 인간에게 에너지와 정신적·육체적 치유와 영감을 주고 있어서 문화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잡아 왔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왔다. 테크놀로지가 고도로 발달되고 국가의 위상과 개인의 삶의 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음식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뜨겁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방송〉 출처-스포츠 Q

TV채널을 틀면 요리프로그램과 스타 셰프들이 넘쳐난다. 어느 오락방송에서도 이들이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다.

볼거리, 놀거리, 할거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땃줄로 영원히 연결되었듯이 여전히 음식은 원시적이고도 원초적으로 끈질기게 사람들의 시선과 욕망을 사로잡고 있다.

심지어 음식으로 인해 여행문화도 바뀌고 있다. 한정된 재화와 시간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유적지나 관광지를 재빠르게 훑어봐야했던 유적지 위주의 여행방식은 이미 낡은 것이 되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행 빈도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한 도시 혹은 하나의 테마를 갖고 여유로운 혹은 어슬렁거리는 여행을 소비한다.

가령 노동으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들은 그저 호텔에서 하루종일 휴식을 취하고 식사는 룸서비스를 받으며 뒹굴거리는 형태가 최근 젊은 사람들의 여행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혹은 오직 맛집을 순례하기 위해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지역의 유명한 먹거리를 체험하는 여행객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여행목적이 오로지 맛집 순례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크로아티아 맛집 여행. 출처-일요신문 i

이러한 소비자들의 취향을 간파한 백화점은 발빠르게 해외나 지방의 맛집들을 유치함으로써 온라인 쇼핑과 해외직구의 증가로 점차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백화점에 새로운 활기와 매출을 늘리고 있다. 백화점 입장에서 는 맛집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백화점 쇼핑으로 이어지면서 맛집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한 백화점에서 유치한 지방 먹거리 초대전에 길게 서 있는 인파〉

소비자들은 다양한 곳에서 경험한 먹거리 체험을 블로그를 통해서 타인에게 보여준다. 음식만큼이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쉬운 아이콘도 없을 것이다. 이런 개인 블로그나 SNS로 개인의 일상의 소소한 경험담을 알리고 타인들과 공유하려는 행위 또한 현대의 문화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음식열풍과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화양식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와 가치관, 그리고 이 시대를 읽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같은 음식재료라도 음식을 소비하는 패턴이나 방법이라는 하위문화가 쌓여서 결국은 한 시대의 생활양식을 결정하고 특정 가치관을 형성한다.

크게 보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본질은 고대 그리스나 지금 여기 한국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형태와 문화는 시대 시대마다 문명의 발전과 시대적 상황과 대중들의 욕망과 이데올로기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흡수하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면서 리드미컬하게 혹은 격정적으로 발전하고 변해왔다.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관건이 되었다.

'어떤 재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구성할까'라는 고민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과 앞으로 살고 싶은 미래상을 반영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것이다.



〈한식당에서 한식과 한국문화를 재해석해 만든 요리 디저트 '돌하르방'〉

기부문화의 필요성



이국진 칼럼니스트
의정부문화원 이사

1. 미래의 존재방식, 문화에서 찾다

최근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20~30년이 지나면 기계가 인간이 처리할 정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옥스퍼드대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진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이 발달될 미래를 그린 영화 '엑스 마키나'의 한 장면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직업의 반이 사라진다는 그때가 되면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이 질문에 대해 김대식 카이스트교수는 3가지 직업군을 제시했다.

첫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창조적인 직업, 둘째는 감성적인 것 또한 인간적인 직업, 셋째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하는 직업군을 들었다.

김교수는 "인공지능이 시행되는 20~30년 이후에는 아름답고 창의적인 인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계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시기가 되면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부분 즉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직업이 미래의 생존 전략이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인문, 문화예술의 시장이 더욱 확대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창조적이고 인간적이며 감성을 지향하는 문화·예술분야

이미 세계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성장 동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문화산업에 주목했다. 문화가 패러다임이 되었다. 정치와 경제가 지난 시대의 당면 과제였다면 이제는 인간의 존재 방식, 즉 삶의 질에 주목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문화 융성과 창조경제를 국정 기조로 삼았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화가 국력'이라며 연설의 3분의 1을 문화융성에 대한 언급을 했을 만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2월 24일 박대통령은 재계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탈리아가 르네상스를 열었던 것은 메디치가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업인들이 한국의 메디치가문이 되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도 문화가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갈 주요 산업으로 봤기 때문이다.

메디치가문은 도대체 어떤 가문이길래 대통령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재계 총수들에게 메디치가문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던 것일까? 메디치가문이 문화융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일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열쇠를 풀기 위해서 메디치가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르네상스와 메디치 가문

14~16세기에 서유럽 문명기에 나타난 르네상스 시대는 천 년 동안 유럽을 지배한, 암흑기로 불리웠던 중세를 건너내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냈다. 이 시기에 학문, 문화, 예술, 사상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근대문화가 태동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 르네상스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탈리아의 피렌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메디치가문이 있었다.

메디치가문은 14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순까지 350여년 동안 대를 이어 유럽 최대의 부자가문으로 피렌체공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다. 상업과 금융으로 번 돈으로 권력을 잡았으며 문화 예술에 집중 후원했고 그 결과 르네상스를 열었다.

메디치가문 출신인 두 명의 교황을 포함해 모두 네 명의 교황을 배출했고 프랑스 왕비 두 명을 배출했다.



프랑스왕비인 카테리나 데 메디치와 메디치가 출신인 교황 클레멘스 7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집필해 헌정한 곳 또한 메디치가문이다. 당시 무명이었던 소년 미켈란젤로의 예술성을 발견하고 양자로 입양해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평생을 지원해 그의 천재성이 발휘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후원자도 바로 이 가문 중의 한 사람이었던 로렌초 데 메디치였다.

350여년의 영광을 뒤로하고 마침내 가문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메디치가문의 마지막 후손은 모든

재산과 예술품을 고향 피렌체에 기증하게 된다, 이 때 메디치가문 소유의 모든 예술품들은 피렌체공국 소유이며,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예술품들을 피렌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메디치가문은 문을 닫았지만 가문이 소장했던 찬란한 예술품을 피렌체의 공공유산으로 남김으로써 메디치가문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동시에 피렌체의 시민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게 된다.

당시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갈등과 분쟁을 거듭하던 시대였는데 메디치가문의 수장들은 피렌체의 군주로서 주변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분쟁과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당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평정했던 실질적인 통치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밖으로는 급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첨예한 이해관계, 힘의 대결 속에서 균형을 잡았고 피렌체 안에서는 메디



<군주론을 집필해 메디치가문에 헌정한 마키아벨리>

치가 사람들을 시샘해 제거하려는 귀족들의 살해위기를 여러번 넘기면서도 의연하게 35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가문이 문을 닫고 수백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가문이 세계 최고의 가문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여러 요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사로잡은 인간적인 면모 등 다양한 경로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문화 예술분야를 눈부시게 발전시켰던 점에서 이 가문의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다.

메디치가문을 이끈 사람들 중에서 특히 가문을 크게 키우고 르네상스를 만개시켰던 두 주역은 코시모와 손자 로렌초다. 코시모는 유럽각국의 수도원과 동방 비잔틴제국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문서들을 수집하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대안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 주목,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해 학자들로 하여금 플라톤 철학을 연구하도록 아낌없이 후원했다. 로렌초는 코시모가 설립한 플라톤 아카데미를 발전시키고 인문학과 예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데 당시 피렌체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예술가들과 인문학자들 중에서 로렌초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코시모를 시작으로 그의 자손들이 임종했던 곳이 플라톤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카레지 별장이었다고 하니 메디치가 사람들이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다.



르네상스를 찬란하게 꽃 피운 코시모 데 메디치와 로렌초 데 메디치

코시모 데 메디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정신으로 동양의 정신적인 사상인 플라톤주의에 주목했다. 그는 플라톤사상과 서양의 정신적 기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접목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냈다.

이 새로운 사상을 수혈받은 많은 예술가들은 영감과 자극을 받았고 창조적이고 걸출한 예술작품들을 만들어 내게 된다.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라파엘로, 아리스토텔레스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거장들을 배출해 내었다. 이로써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된 것이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라파엘로의 그란듀카 성모

바로 이런 이질적인 것들을 융합하고 섞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한 메디치가 정신은 통합과 융합형 정신을 추구하는 우리시대가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현 정부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국정방향으로 삼은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육성은 물론 메디치가문이 했던 것처럼 기업이나 자본가의 막대한 후원 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서양은 명문가가 되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만이 명실상부 명문가 대접을 받는다. 재력가들이 앞을 다투어 천문학적인 돈을 사회에 내놓는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아직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기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홍익인간과 경주의 최부자 집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바로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다. 단군신화에 의하면 천신 환웅이 단군을 낳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열면서 나라의 이념을 홍익인간으로 했다. 이는 우리 민족이 태생적으로 이타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가리켜 루마니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게오르규는 “한국의 홍익인간이라는 단군의 통치이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법률이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철학이 될 것”이라며 극찬했다. 즉 ‘홍익인간’이 범국가적으로 새롭게 조명되는 것은 그것이 미래를 이끌어갈 철학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주 최부자집

그렇다면 명색이 홍익인간이 대한민국 건국이념인데 우리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홍익인간을 실천한 집안이 없었던 것일까? 메디치가문 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열렬히 나눔을 실천했던 가문이 있었다. 바로 경주의 최부자집이다. 최부자집은 17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약 300년 간 부를 이어간 조선시대 최고 부자가문이다. 쌓은 재산만큼이나 자선과 베품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중이다.

1.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2. 재산은 만 석 이상 모으지 마라.
3.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4. 객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5. 사망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6. 머느리들은 시집은 후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최부자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지침

대대로 이어가며 엄격하게 지켰던 최부자집의 가훈이다.

최부자집이 300여년을 조선최대의 부자가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자세로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했던 나눔정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부자집 주변으로 백리 안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이 문중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한 선행 덕분에 사회적 혼란기에도 이 가문만큼은 무사할 수 있었다. 동학혁명 이후에 활빈당이 활개를 쳤지만 이웃들이



최부자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최준(오른쪽)과 그의 동생 최윤 <출처-녹색사관
나눔>

이 집안을 지켜주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공산당 치하에서 인민재판에 회부된 최부자집은 이 문종의 도움을 받았던 농민들이 도와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300년간 이어졌던 이 집안의 선행은 가문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이어진다. 일제강점기에는 막대한 독립자금을 지원했으며 해방 후엔 전 재산으로 대구 대학교와 계림학숙을 세우는 등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사회에 환원한 후 마침내 가문이 문을 닫게 된다.

최부자집 일대기는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다.

'행복한 왕자'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 한가운데 높은 곳에서 값비싼 보석들로 장식한 왕자동상은 하루종일 비참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음이 아프다. 어느 겨울날 남쪽으로 가지 못한 제비가 동상에 앉아 쉬고 있는데 왕자는 제비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휘감고 있는 보석들을 나누어 주라는 부탁을 한다.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느라고 모든 보석을 떼인 왕자동상은 흉물스럽게 변하고 심부름을 하던 제비도 추위에 눈을 감는다. 하느님은 왕자와 제비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하늘로 건어 들고 그들은 천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다.



<책 '행복한 왕자'> 출처-<http://blog.naver.com/yk173>

나눔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던 왕자동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산가로서 모든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주었던 최부자집 정신과 닮아있다.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실존적 질문과 함께 타인에 대한 조건 없는 선의와 희생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최부자집의 나눔정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가문은 우리민족의 피에 나눔이라는 DNA가 흐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나눔문화에 점화를 하며 우리 국민에게 잠재된 나눔 유전자를 건들 수만 있다면 여기저기서 불길은 거세게 타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4. 문화 발전을 위한 기부문화의 필요성

사회와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메디치가문이나 최부자집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후원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나 자본가입장에서도 후원은 win-win이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문화예술의 발전은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발전으로 확대된다. 노래,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광고, 음식, 장소 등 대중매체를 통해 노출된 상품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물론 한류에 열광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앞을 다투어 소비하며 체험한다.

한류의 열풍을 타고 한국 상품 판매는 고공행진을 하고 국가브랜드와 기업브랜드 홍보효과 또한 톡톡히 누리게 된다. 이처럼 기업이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은 문화예술 발전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상승과 매출로 이어진다. 기업 입장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은 문화예술의 세계 시장 진출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를 세계시장에 알리는 효과, 잠재적인 고객 확보, 매출 상승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르네상스시대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천재적인 작가들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불멸의 명화로 남아있듯이, 현재 활동하는 무명 예술가들의 작품이 후대에 어떤 명작으로 남을지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영영 세상에 묻혀버릴 수 있었을 수많은 천재들이 메디치 가문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재능이 발견되고 예술이 꽃피웠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깨어있는 자본가가 재능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할 때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그랬듯 이 땅에서도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후원가의 이름을 후대에 영원히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도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다.

셋째, 인간이 기계와 경쟁하게 될 가까운 미래에 문화는 기계와 대항할 하나의 수단이며 생존의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래에 살아남을 전략으로 문화에 대한 투자는 자신과 후손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5. 결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떤 삶이 가치있는 삶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유한(有限)한 인생을 살다가 지구상에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영원히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후손에게 문화유산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발자취와 정신을 영원히 남길 것인가? 그에 대한 선택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고산동 구성마을과 월봉 이서 이야기

의정부문화원 향토연구소장 최영희

I. 들어가며

조선 중기에 활동했던 완풍부원군 이서(李曙)의 묘역은 의정부 고산동 부용산 끝자락 구성마을에 있다. 이서의 묘를 찾아가는 길에는 알림 표지판도 없고, 만나는 마을사람에게 물어도 잘 모른다.

이서는 무신으로는 최초로 병조판서가 되었으며, 독서를 좋아했고 효성이 지극했다 한다. 또한 그는 충용사(悤戎使)로서 왕에게 건의해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군량을 많이 확보했으며 삼혈총(三穴銃)⁰¹⁾과 조총(鳥銃)을 많이 제조해 적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인조는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해, 경연특진관(經筵 特進官)으로 삼아 국방 문제를 항상 상의했다고 『승정원일기』에 전한다. 이서는 이러한 공으로 남한산성 온조왕묘(溫祚王廟)인 숭열전과 종묘 인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우리고장에서는 사후 이서 묘역이 경기도 지정문화재는커녕 지방 향토유적에도 지정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 글을 쓰면서 문화재 지정에 관한 문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픈 마음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문헌자료를 통해 이서(李曙)의 생애와 관료생활 흔적을 자세히 살피고 정리하면서, 그의 주요저서인 『마경언해(馬經諺解)』와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를 소개하고, 끝으로 종묘와 사직을 갖춘 조선시대 유일한 행궁인 남한산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구성마을과 윤림도정 후손

의정부 구석말(構石洞)은 조선 효령대군의 손자인 윤림도정 이핍(李幅)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으로, 효성이 지극하여 마을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입구에 있는 구석(構石)이라는 돌을 딛고 말을 타거나 내려서 걸어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요즘에는 구석말이 변음되어 구성말이라고도 한다.

1. 윤림도정 이핍(李幅)

01) 삼혈총(三穴銃) : 포신(砲身)이 세 개가 겹쳐있는 총

운림도정의 본관은 전주이고, 휘는 핍(幅)이고 초(初)는 수정(授正)이었으나, 후에 도정(都正)에 올랐다. 종친부 도정(宗親府 都正)은 정원이 없었으며, 세자(世子)의 중증손(衆曾孫), 대군(大君)의 중손(衆孫), 왕자군(王子君)의 중자(衆子)와 적장증손(嫡長曾孫)에 한하여 이 관직을 주었다.

이핍(李幅)의 조부는 효령대군 이보(李補, 1396-1486)이며, 아버지는 의성군 이채(李冢, 1411-1493), 어머니는 회인군부인(懷仁郡夫人) 성주이씨 직장(直長) 차궁(次弓)의 딸이다. 배위(配位)는 신부인 광주정씨로 군수 정종우(鄭宗禹)의 딸이다. 슬하에는 1남을 두었는데, 파성군 이철동(李哲全)이다.



운림도정 이핍 묘역

< 운림도정(雲林都正) 이핍 묘 >

묘는 쌍분으로 의정부시 송산동에 있으며 신도비와 장명등 문인석 2쌍이 있고, 부부 각자의 묘앞에 상석과 묘비가 서있다.

2. 파성군 이철동(李哲全, 1453-1537)

이철동은 헌감 변심(卞鎭)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오래도록 후사가 없었다가 도봉산(道峯山)에 빌어 1474년(성종 5)에 딸을 얻었다. 15세 되던 해에 김극핍과 혼인하고, 능히 부도(婦道)를 지켜 시부모에게 효(孝)로 섬겼고 동서 사이에 처함과 증을 거느림에 있어 한결 같이 은신(恩信)으로 대하니, 모두 그 환심(歡心)을 얻었다. 그리고 김극핍이 오랜 동안 권병(權柄)을 쥐었었으나 조금도 비의(非義)로 구하는 일이 없었으며, 성격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입는 의복을 힘써 소박하게 하였으므로 공이 늘 공경하기 손[賓]처럼 하였고 안팎 종척(宗戚)이 모두 본받았다고 한다.

◇ 1502년(연산 8) 1월28일

병조판서 이극돈(李克墩)과 참의 홍자아(洪自阿)가 아뢰기를, “어제 시사(試射)할 적에 이철동·김윤보(金胤甫)·곽희동(郭希同) 등은 활의 힘도 모두 세었고 맞힌 것도 또한 많았으나, 그 나머지 각도(各道)에서 선발된, 3백 보(步)까지 쏠 수 있는 자와 중각궁(中角弓)으로 말을 달리며 활을 쏠 수 있는 자들은 그 재주를 시험해 보니 모두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같은 사람들 양식을 싸가지고 머리 보내느라 그 폐단이 또한 많았을 것이니, 지금 이후로는 그 도(道)의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재주를 시험해 보고 올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겸사복(兼司僕)에 결원이 있으면 이철동 등으로 보임하게 하라, 그 나머지는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 1502년(연산 8) 2월1일

병조에 전교하기를, “무재가 특이한 이철동·곽희동·김윤희에게 검사복을 제수하라.”

◇ 1502년(연산 8) 2월 12일

센 활 4개를 내주면서 전교하기를,

“이철동 등 3인과 시위(侍衛)하는 장사 가운데 능히 활 시위를 가득 당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 활로 쏘아 과녁을 뚫으라.” 하였다. 병조판서 이극돈이 시위하는 장사 17명과 이철동 등 3명을 뽑아서 번갈아 시험해 보았으나, 모두 능히 활을 당기지 못했는데 유독 검사복 박세정(朴世貞)만은 이를 능히 당기었다.

[전설]

동대문 안 파성군 이철동(李哲全, 1453-1537)집에 큰 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처가에 기거하고 있던 파성군의 사위가 어느 날밤 사정(射亭)앞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있던 사람들 앞을 지나자 이들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파성군의 사위를 잡아 못매를 때려 초죽음이 되었다.

이때 한 키 큰 사나이가 나와 이 분은 내 주인이 되는 어른이라고 하며 그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키 큰 사나이는 파성군의 집 회나무 있는 데 까지 와서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뒤에 알아보니 그날 밤 사정에서 훈련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날 밤의 사람들은 귀신들이었고, 파성군의 사위를 구해준 키 큰 사나이는 회나무에 있는 귀신이라고 하였다.

* 사정(射亭) : 활을 쏘는 장소인 활터. 사장(射場)이라고도 하며, 관설사정과 민간사정이 있다. 고려 선종 8년(1091년) 호부남랑(戶部南廊)에 사장이 설치되어 군졸과 일반 백성들이 습사(習射)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이 국가가 도성내에 활터를 설립한 시초이다. 조선 태조는 서울을 한양으로 옮기고 도성 동편에 교장 훈련원을 설립하였는데 태종은 이곳에 사청(射廳)을 세우고 무관의 시험장소로 정하였으며, 동시에 무인과 군졸이 습사할 수 있게 하여 최초의 관설사장이 되었다.

< 파성군 이철동 묘역 >

파성군 이철동 묘역은 상계와 하계로 구분되어 있다. 상계에는 파성군과 형부인 초계변씨 부부 합장 봉분과 묘표와 상석이 조성되어 있고, 하계에는 문인석 1쌍이 좌우측에 서있다.

묘주측 입장에서 우측은 파성군 이철동, 좌측은 현부인 초계변씨가 나란히 모셔져 있다. 살아있을 때는 좌상우하(左上右下)여서 남자는 상석인 좌측에 여자는 하석인 우측에 자리하지만 죽어서는 그 반대로 우상좌하여서 우측이 상석이고 좌측이 하석이 된다.



파성군 이철동 묘역

3. 풍덕군수 이광윤(李光胤, 1490-1535)

증 병조판서 이광윤은 효령대군의 4대손으로 파성군 철동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현부인 초계변씨로 현감 담의 딸이다. 품성이 온화하고 관대하여 장자의 풍도가 있었다. 자는 사원(嗣元)이다.

1516년(중종 11)에 조지서(造紙署) 별제(別提)로 첫 벼슬 길에 오르고 얼마뒤에 사헌부 감찰로 승직, 백관을 규찰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직분을 다하였으나, 간흉배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의 농간으로 기묘·신사의 두 사화를 겪



이광윤 묘역

는 와중에서 1520년(중종 15)사직서령(社稷署令)으로 옮겼다. 1523년(중종 18)에 통정대부로 가자(加資)되어 돈녕부 도정으로 승직되었다. 1530년(중종 25)에는 풍덕군수로 제수되어 많은 치적을 남기고 임지에서 별세하였다. 증 가선대부 병조판서직을 받았다. 묘소는 의정부시 고산동 송산에 있다. 묘갈명은 월정 윤근수(月汀 尹根壽)가 지었다.

<이광윤 묘역>

가운데 봉분이 병조판서 이광윤, 향 왼쪽이 증정부인 경주 이씨, 향 오른쪽이 증 정부인 안동권씨이다.

4. 오위장 이간(李幹, 1527년 3월 6일~1598년 3월 3일)

이간의 자는 간지(幹之), 효령대군의 5대손으로 풍덕군수 광윤(光胤)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증 정부인 안동권씨로 군수 자선(自善)의 딸이다. 생모는 경주김씨로 사옹원직장을 지낸 이하신(李夏臣)의 딸이다.

오위장 이간은 10세가 안되어 부모를 모두 잃고 할머니 손에서 양육되었으며, 어려서부터 기쁘고 슬픈 것을 내색하지 않았다고 한다. 1560년(명종 15) 음서로 관직에 올라 전설사별제(典設司別提)가 되고, 1561년 가을에 북평관별제(北平館別提)를 거쳐 1563년(명종 18)에 금화시별제(禁火侍別提)를 지냈다.

1565년(명종 20년) 내섬시직장(內贍寺直長), 1567년(명종 22년) 사재감주부(司宰監主簿)와 사헌부 감찰을 거쳐 포천현감으로 나갔다. 포천현감 재직 시 명나라 사신이 조선 방문 중 포천에 여러 번 왔는데도 접대하는 절차를 축소, 간단하게 하여 고을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다시 김화현감으로 나갔다가 1570년(선조 3) 정읍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정읍현감 재직 시 만 5년 동안 선정을 쌓았다. 1575년(선조 8) 회덕현감으로 부임하여 6년 간 치적을 쌓아 명성을 얻었고, 1582년(선조 15) 경산현령으로 영전하였다.

1588년(선조 21년) 온양군수로 승직되었다. 온양군수로 부임 후 갑옷과 병기를 수선하고 양곡을 비축하였으므로 이때 백성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관군과 의병에게 병기와 군량을 나누어 주자 사람들이 그의 예지력에 감탄했다. 선조의 어가가 한성부를 떠나 의주까지 파천하고 관아의 관리들도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때 한 관리가 울면서 말하기를 "지킬 군병이 없고 왜적은 가까이 에



이간묘역

르렀는데 무엇을 믿고 이 고을에 계십니까?" 하니, "나는 봉강(封疆)에서 주는 것만 알 뿐 다른 일은 알지 못한다."하며 의연히 고을을 지켰다. 그의 의연한 태도에 백성과 관리들 중에 도망가는 자가 없었다. 임금이 이를 알고 가솔히 여겨 표창을 내리고 내직으로 전임시켰다.

1594년(선조 27년)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이 되고 1595년 전설사수(典設司守), 행통례원(行通禮院)상례(相禮) 등을 지냈다. 1597년(선조 30년) 특별히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진하여 오위장(五衛將)으로 제수되었다. 1598년 전란이 끝나자 황해도 봉산에서 죽었다. 지방관으로 재직 중 선정을 쌓아포천, 정읍, 회덕, 경산에 혜정(惠政) 선정비(善政碑)가 세워졌다.

사후 손자 이서의 영귀로 증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군 송산리(현,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송산) 선영하에 있다. 묘비문은 월정 윤근수(月汀尹根壽)가 썼다.

< 이간 묘 >

이간 묘 앞에 묘표와 상석, 향로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 상단이 이수에는 용 한 마리가 구름위를 유영하고 있으며, 용의 발은 줄이며 발가락이 4개인 4조룡이다. 묘역 좌우측에는 세호가 없는 망주석 1쌍과 문인석대신 동자석 1쌍이 있다.

5. 제주목사 이경록(李慶祿, 1543년~1599년)



이경록 묘역

이경록은 본래 왕족 출신으로, 효령대군(孝寧大君)의 6대 손으로 아버지는 오위장과 온양군수를 지낸 이간(幹)이다. 어머니 김씨(金氏)는 목사 김홍(金泓)의 딸이다. 경록은 일찍부터 암기력과 무예에 능하였고, 어려서부터 건강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겨 하였다. 또한 젊었을 때 호쾌하고 용맹스러웠으며 협기(俠氣)를 곧잘 발휘하곤 하였다. 승려 보우(普雨)의 위세가 한창 치솟자 아무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자 그는 보우가 있던 양주군의 한 사찰에 들렀다가 무례한 것을

분하게 여겨, 곧장 사찰 안으로 들어가 보우를 두들겨 팼다. 그런데도 그의 무리 수백 인이 둘러서서 숨을 죽이고 보기만 할 뿐 감히 행동을 취하지 못하였다. 문정왕후와 정난정의 총애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보우를 두들겨 패고도 무사하였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그를 대단하게 보았다.

무거(武舉)에 응시하여 잇달아 2장(二場)에서 수석을 차지한 뒤 1576년(선조 9년)에 무과에 급제했다. 무과에 나가 연속 두 번 장원하고 이후 선전관(宣傳官)이 되고, 단성현감(丹城縣監)으로 승진했는데 현감으로 부임도 하기 전에 다시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제수되었다. 이후 호조좌랑·하동현감(河東縣監)·고성현

령(固城縣令) 등을 역임하고, 고성현령으로 재직 중 부임지에서 정사를 잘 살피어 선정하였다 하여 지방관 성적에서 우수성적을 거둬 특별히 정3품으로 승진, 1587년 경흥부사(慶興府使)가 되었다.

1587년 오랑개가 녹둔도(鹿屯島)를 침공해오자 경흥부사로서 조산만호(造山萬戶)인 이순신(李舜臣)과 함께 이를 격퇴하였으나, 군사 10명이 피살되고 106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말 15필을 잃는 등의 피해가 많았다 하여 처벌을 받고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이듬해 다시 오랑개의 침입을 맞아 선봉에서 용감하게 싸운 공이 컸으므로 재서용하자는 논의가 일어나 나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대간이 나주는 대읍이므로 문관으로 부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해부사가 되었다.

이어 1592년 나주목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고 선조로부터 표리일습(表裏一襲: 속과 겉의 옷감을 한 벌)을 하사받았다. 이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의병을 일으키자 그를 도와 크게 공을 세웠으며, 그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고 제주목사로 전직되었다.

제주목사로 재임중 초병(抄兵) 300명을 뽑아 바다를 건너 선조를 호위하겠다는 장계(狀啓)를 올려 충신으로 칭송되었으며, 해외(海外)에서 7년간이 넘게 제한(滯限)없이 지킨 공로를 포상하여 가자(加資)되었으며, 1599년 1월 임지에서 순직하였다. 아들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서(曙)의 추은(追恩)으로 완령부원군(完寧府院君)·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이경록의 묘비명은 효종의 장인인 우의정 장유(張維)가 썼다.

이경록 묘역에는 문인석 대신 동자석을 배치했고 망주석에는 세호가 없다. 동자석은 주로 조선후기에 문인석 대신 세워졌다. 이경록 신도비의 비신 위에 얹은 이수(螭首)에는 교룡(蛟龍) 두 마리가 조각되어 있다. 비신의 문장은 계곡 장유가 썼다.



이경록신도비

이경록과 녹둔도사건(鹿屯島事件)

두만강 하류 강 가운데 위치한 녹둔도에 여진 부족 중의 하나인 시전부족(時錢部族)이 몰래 습격해오자 조선과 이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사건이다. 녹둔도를 지키던 조선의 군사들은 용감히 항전하였다.

그러나 격퇴하는 과정에서 11명이 전사했으며, 군민(軍民) 160여 명이 납치되고, 15필의 말도 약탈당하였다. 군관 김몽호(金夢浩)는 여진족의 뜻하지 않은 기습에 의한 무자비한 만행으로 희생된 11명의 처참한 광경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하류 녹둔도

이에 격분한 조선군은 보복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녹둔도를 관할하던 함경도 경흥부 부사(府使) 이경록(李慶祿)과 조산만호(造山萬戶) 이순신(李舜臣)을 선봉으로 하여 제1차 정벌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포로 160여명을 구출하고 소수의 적을 죽이기는 하였으나 아군의 피해 역시 엄청나게 컸다. 즉, 이 사건의 결과를 북병사 이일(李鎰)은 녹둔도함몰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던 것이다.

이일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경록·이순신을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조정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백의종군하게 하는 대신 공을 세워 죄를 면할 수 있도록 선처하였다. 또 당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병조판서 정언신(鄭彦信)도 빈번한 여진족의 침입을 이유로 왕이 사의를 거절하였다.

제1차 정벌에서 패한 아군은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여 제2차 출정을 준비하였다. 제1차 정벌 후 4개월이 지난 1588년 1월 14일 북병사 이일은 우후(虞候) 김우추(金遇秋) 등과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도(楸島)를 습격, 적 33명을 죽였다. 한편으로는 길주 이북의 여러 진병(鎭兵)과 중앙의 장수가 합세하여 2,500여기(騎)의 군대로 출정에 나섰다.

회령부사 변언수(邊彦琇), 은성부사 양대수(楊大樹), 부령부사 이지시(李之詩) 등을 각각 선봉장으로 하여 여진족의 4개 부락을 향하였다. 삼경(三更)에 두만강을 건너 다음 날인 15일 날이 밝자마자 일제히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다.

결과

이 정벌에서 여진부락 200여호를 불태우고 적 380명을 죽였으며, 말 9필, 소 20두를 획득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특히 아군의 희생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당시 백의종군한 이경록과 이순신은 큰 전공을 세워 백의종군에서 사면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여진 토벌은 역사상 여진 토벌 중에서 그 전과가 가장 빛나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녹둔도 침입에 대한 제2차 정벌로서 아군의 장쾌한 대첩이었다. 이 정벌에 참여해 전과를 올렸던 장수 및 병사들은 그 뒤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국난 극복에 여지없이 힘을 발휘하였다.

녹둔도는 조선과 청(淸)나라의 국경지대인 함경도 경흥부(慶興府)에 속한 섬이다. 세종 때 6진 개척 이후 조선의 영토가 되었으며, 북쪽으로 여진족들이 있어 섬 안에 토성과 6척 높이의 목책을 치고 인근의 농민들이 배를 타고 오가며 농사를 짓던 곳이다.

1583년(선조 16) 12월, 현지 군사들의 군량(軍糧)이 부족하자 녹둔도에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군량을 해결하자는 순찰사 정언신(鄭彦信)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사(府使) 원호(元豪)의 주관하에 둔전을 실시하고 병사 약간을 두어 방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진족의 침략 가능성이 높아 약간의 군사만으로 방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후 1587년 조산만호(造山萬戶) 이순신(李舜臣)에게 녹둔도의 둔전을 관리하도록 하여 그해 가을 풍년이 들었다. 이순신이 경흥부사(慶興府使) 이경록(李慶祿)과 함께 군대를 인솔하고 녹둔도로 가서 추수를 하는 사이에 추도(楸島)에 살고 있던 여진족이 갑자기 침입하여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책루(柵壘)를 지키고 있던 수장(戍將) 오향(吳享)과 임경번(林景藩) 등 조선군 11명이 죽고 160여 명이 잡혀갔으며 15

필의 말도 약탈당했고, 호추(胡酋) 마니응개(牟尼應介)는 참루(塹壘)를 뛰어넘어 들어오다가 수장(戍將) 이몽서(李夢瑞)에게 사살되었다.

이에 이순신과 이경록이 반격을 가하여 적 3인의 머리를 베고 포로된 사람 50여 인을 빼앗아 돌아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된 북병사(北兵使) 이일(李鎰)은 이순신에게 그 책임을 덮어 씌우고 사형에 처하려 하였으나 이순신은 죽음을 면하고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1588년 1월 북병사 이일은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진족의 본거지인 추도를 기습공격하여 200여 호를 불태우고 적 380여 명을 죽였으며, 말 30필, 소 20두를 획득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때 이순신이 여진족의 우을기내(于乙其乃)를 끌어내어 잡은 공으로 사면을 받아 복직되었다.

녹둔도는 역사상 고유 영토로서 문헌에 처음 기록된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이다. 처음에는 여진말의 음을 따서 사차마(沙次々) 또는 사차(沙次)·사혈(沙沅)·사혈마(沙沅麻, 沙沅磨) 등으로 불리다가 세종 때의 육진개척 이후에 북변의 지명을 점차 새로 지을 때 녹둔도라고 하였다.

섬 둘레는 2리(里) 정도이고 높이는 수면에서 10자 [尺 되는 작은 섬이다. 산물(產物)은 보리·밀·수수와 각종 어류 및 청백염(靑白鹽)이다. 육진개척 이후 국경 하천이 된 두만강의 하천도서였으므로, 그 건너편 지역에 살던 여진족들이 물자가 궁핍하면 그 때마다 녹둔도에 잠입해 자주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이 섬 안에 길이 1,246척의 토성을 쌓고 높이 6척의 목책을 둘러 병사가 방비하는 가운데 농민들이 배를 타고 섬에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 원래 사토로 이루어진 이 섬이 농경지가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시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이 녹둔도에 상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춘경추수기(春耕秋收期)에 한해 주로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곳에 출입하였다.

선조 때에는 출입의 번거로움을 덜고, 방수(防戍)를 강화하기 위해서 녹둔도에 둔전(屯田)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자주 나오기도 하였다. 이 섬에서 농작물이 생산된 뒤에는 여러 여진부족들이 생활 물자를 구하기 위해 자주 이 섬을 침입, 약탈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는 1587년(선조 20) 9월에 발생한 사건 때였다. 이 때 여진 시전부족(時錢部族)이 녹둔도에 몰래 침입해 방비하던 수호장(守護將) 오형(吳亨), 감관(監官) 임경번(林景蕃) 등 11명의 군사를 살해하고 군민(軍民) 160여명을 납치해 갔으며 말 15필을 약탈해 간 것이었다. 그 뒤 조정에서는 여진족에 대해 강경정책으로 대처하면서 영토수호 의지를 천명하였다.

녹둔도는 1800년대 이후 강 상류의 모래가 유속(流速)에 밀려 내려와 녹둔도와 그 대안(對岸) 사이에 퇴적됨에 따라 연륙(連陸)되어 갔다. 확실한 연륙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860년 북경조약(北京條約)의 결과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지역이었던 녹둔도가 조선·청·러시아 3국간의 국경지역으로 되었다.

1882년 1월 고종은 어윤중(魚允中)을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로 삼고 녹둔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와 국교가 열리자 러시아 공사에게 이 섬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또 고종은 김광훈(金光薰)·신선욱(申先郁)을 현지로 보내어 녹둔도 관계 지도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지도는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라는 이름으로 녹둔도의 지리적 상황을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

면 민가는 113호에 인구 822명이 우리 풍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녹둔도는 우리 영토로 유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나 1860년 북경조약(北京條約)으로 러시아로 넘어갔으며 오늘날까지 귀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수복 영토이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

6. 월봉 이서(月峰 李曙, 1580-1637) 이야기

1) 생애 및 활동사항

◇ 1580년(경진, 선조 13) 11월 22일, 이서 출생

이서는 아버지 이경록(李慶祿, 1543년~1599년)과 어머니 덕수이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성장하면서 문재(文才)를 보여서 일찍이 우계 성혼(成渾, 1535~1598)⁰²⁾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선업(先業)을 이어받아 학문을 버리고 무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

이서의 부친은 어려서부터 활쏘기를 즐겼으며, 1576년(선조 9)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으며, 연한이 차서 단성현감에 승배(陞拜)되었는데 부임도 하기 전에 다시 호조좌랑에 제수되었다. 곧 하동현감으로 옮겼고, 다시 고성현감으로 전직되었는데, 선치(善治)하였다 하여 경흥부사로 탁배(擢拜)되었다.

1587년 오랑개가 녹둔도(鹿屯島)⁰³⁾를 침공하자 경흥부사로서 조산만호(造山萬戶)인 이순신과 함께 이를 격퇴하였으나, 10명이 전사하고 160여 명의 병력이 여진족의 포로가 되는 등 피해가 많아 이 일의 탄핵으로 파면되고 백의종군하였다. 이듬해 다시 오랑개가 침입하자 선봉에서 용감하게 싸운 공이 컸으므로 재서용하자는 논의가 일어나 나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대간(臺諫)이 나주(羅州)는 큰 고을이므로 문관이 부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해부사가 되었다.

이어서 1592년(선조 25)에는 나주목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고 선조로부터 표리일습(表裏一體: 속과 겉의 옷감 한 벌)을 하사받았다. 이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의병을 일으키자 그를 도와 크게 공을 세웠으며, 그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고 1593년에 제주목사로 전직되었다. 경록은 제주목사로 재임중 초병(抄兵) 300명을 뽑아 바다를 건너 선조를 호위하겠다는 장계(狀啓)로 임금을 감동시켰고, 임진왜란중에 제주도 토산물을 해로를 통해 안전하게 의주행재소까지 진상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포상하여 가자(加資)⁰⁴⁾되었으며, 제주도 성산 외성을 쌓다가 과로로 1599년 1월에 임지에서 사망했다.

02) 성혼(成渾):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다. 자는 호원(浩原)이고, 호는 우계(牛溪)·묵암(墨庵)이며, 시호는 문간(文簡), 본관은 창녕이다. 기묘명현인 성수첩(成守琛)의 아들로 명망이 높았으나, 임진왜란 때 임금을 따라가지 않은 것과 일본과 화의를 주장한 것이 논란거리가 되었다. 서인들이 집권한 숙종 7년(1681)이 돼서야 이이와 함께 문묘에 배향되었다.

03) 녹둔도[鹿屯島]: 두만강 하류 조산(造山) 부근에 있었던 하천도서. 역사상 고유 영토로서 문헌에 처음 기록된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이다. 처음에는 여진말의 읍을 따서 사차마(沙次馬) 등으로 불리다가 세종 때의 육진개척 이후에 북변의 지명을 점차 새로 지을 때 녹둔도라고 하였다.

04) 가자(加資): 정 3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로 올려주는 은전을 말한다.

◇ 1603년(계묘, 선조 36)

이서는 24세 되는 해에 무과에 급제하여 행사용(行司勇)⁰⁵을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하게 된다. 일찍이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⁰⁶의 체부막(體府幕)의 비장⁰⁷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항복이 이 미 이서를 큰 그릇으로 여겨 특별히 그 대우가 남달랐다.

남포(藍浦)의 현감이 되어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뜻을 두어 치적(治績)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구함(構陷)⁰⁸을 받아 배척되어, 양주 대탄(大灘)⁰⁹가에 물러가 은거하였는데, 집안 형편이 심히 쪼들려도 편안해 하였다.

얼마 뒤에 포도청 종사관이 되어 거도(巨盜)를 잡아 미처 다 치죄(治罪)하지 못하였는데, 장련(長連)¹⁰현감이 되었고 절충(折衝)장군¹¹으로 승진하였는데, 이전에 쌓은 공로로 인한 것이었다. 그곳의 폐단이 제거되고 정사를 잘 수행하니 장련의 백성들이 따르고 좋아하였다.

고과(考課)에서 최고의 점수를 얻었기에 황해도 곡산(谷山)군수로 발탁되었다. 그가 임지로 가보니 관가 창고 안에 쌓여 있는 병기는 모두 숫자만 채워져 있을 뿐 하나도 쓸모가 없이 남아 있었다. 이서는 곧 육방 관속들을 불러 병기를 방치해 둔 채 고치지 않은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관속들은 “병기를 고칠 재정이 없고 그렇다고 지방 유지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도 없으니 별수가 없다”고 아뢰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이서는 새로 만들기로 계획하고, 아전을 불러 다음과 같은 방을 붙이게 했다. “만일 내가 시키는 대로 날천산(捺川山) 아래서 이틀씩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1년 동안 부역을 면제하여 줄 것이다.” 방이 나붙자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군수는 먼저 백성들을 산으로 올려 보내 큰 나무를 잘라 내려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그 재목들을 황주(黃州)봉산(鳳山) 지방에 내다 팔아, 그곳에서 흔한 면포를 많이 구입하여 이를 다른 지역에 팔도록 하였다. 이리하니 목재와 면포에서 많은 이문이 남게 되었다.

이서는 이익금의 일부를 백성들 부역의 품삯으로 보상해 주고, 또 남은 돈으로는 목수와 병기 만드는 공인, 대장장이들을 불러 모았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만들고, 화살을 만드는 공인은 화살을 만들게 하니 얼마 안 되어 활이 1천개나 되고 화살촉이 1만개가 넘었으며 조와 쌀을 저축한 것도 천 석이 넘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이서는 가선대부(嘉善大夫)¹²로 품계가 올랐다. 이후 진도(珍島) 군수가 되었다. 섬 백성들을 잘 어루만지니 백성이 부모같이 여겼으며, 그곳에서 임기가 만료되어 조정으로 돌아왔다.

05) 행사용(行司勇) : 사용(司勇)은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정9품 관직이다. 조선시대 품관과 관직의 불일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행수법 실시로,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를 ‘行’,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를 ‘守’라 하였다. 직함을 쓸 때 ‘行’ 또는 ‘守’를 품계 뒤 관사명 앞에 쓰게 되어 있었다.

06) 이항복(李恒福) : 백사 이항복은 조선시대에서도 특히 친숙한 인물이다. 그의 이름이 낯설더라도 오성과 한음이라고 말하면 금방 알아챌 것이다. 오성은 오성부원군 이항복이고 한음은 한원부원군 이덕형(李德馨)이다.

07) 비장 : 조선시대 감사·절도사 등 지방장관이 데리고 다니던 막료(幕僚)를 말한다.

08) 구함(構陷) : 계획적으로 남을 얹어매어 죄를 덮어씌우는 것을 말한다.

09) 양주 대탄(大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을 흐르는 한탄강의 옛 이름이다.

10) 장련(長連) : 황해도 서북부에 있는 은륜군 장명진(長命鎭)과 연풍장(連豐莊)이 합하여 생긴 지명이다.

11) 절충(折衝)장군 :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품계명이다.

12)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시대 종2품(從二品)의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 1606년(병오, 선조 39)

이서는 궁궐의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선전관이란 어가(御駕) 앞에서 훈도(訓導)하는 임무를 맡은 무관을 말한다. 선전관은 근시(近侍)의 직임을 가지므로 서반승지(西班牙承旨)로 지목되어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선전관 가운데 당상관·당하관을 막론하고 4인을 승전기(承傳岐)로 정하여 전명을 전담시켰는데, 그들은 6개월 만에 전직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 존재였다.

한편, 선전관은 장차 무반의 중추적 존재로 성장할 인재들이라는 점에서 무재(武才)가 있으며 굳세고 용맹한 사람을 뽑아 임명하고, 끊임없이 무예와 병법을 연마시키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선전관에 임명되는 사람은 승진(陞進)과 가계(加階)에 상당한 특전을 입을 수도 있었다.

◇ 1618년(무오, 광해군 10)

무오년에 대북파에서 국모(인목대비)¹³⁾를 폐하기 위하여 정청(庭請)하기로 의논하였다. 이서가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국모를 폐하자고 하나 의리상 정청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친이 계시니 장차 어찌하리까.”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의 뜻이 그러하면 나를 생각하지 말라.” 하니, 공이 마침내 참여하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중형에 처하기를 청하였다. 이 일로 이서는 태안(泰安) 바닷가에 물러가 조용히 살면서 명을 기다렸다.

얼마 후에 그는 모친 상(喪)을 당하여 바닷가로 옮겨가서는 벼슬에 대한 뜻을 끊고 남은여생을 거기서 마감하려 하였다. 그 무렵에는 친분이 있던 신경진(申景禎)¹⁴⁾과 더불어 서로 만나면, 문득 세상을 개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 1620년(경신, 광해군 12년) 이서가 모친 삼년상복을 벗으니 장단(長湍)부사 겸 경기 방어사로 제수(除授)되었다. 제수란 시험이나 천거 등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일을 말한다. 제(除)는 구관을 제거하고 신관(新官)에 취임시킨다는 의미이고, 수(授)는 관직을 준다는 뜻이다. 원래는 현재의 관직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직을 내려 취임시킨다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왕이 관리를 임명하는 모든 행위를 제수라고 하였다. 제수방법으로는 특지(特旨)·음서(蔭敍)·취재(取才)·보거(保舉)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었다. 음서는 부조(父祖)의 음덕(蔭德)에 따라 그 자손을 관리로 사용하는 제도로, 공신과 2품 이상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였다.

13) 폐모(廢母) : 선조는 1567년 16세 나이로 즉위, 2년 만에 왕비 의인왕후를 맞아들였으나 왕비는 3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리고 1600년에 병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선조는 50살에 19살 계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녀가 인목대비다. 그녀는 선조의 아들인 영창대군을 낳았으나 25살에 홀몸이 되었다. 그때 광해군이 즉위했는데 그의 나이가 인목대비보다 9살이나 많았다. 인목대비는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을 낳았으나 시대의 악운에 아들을 잃고 결국 대북세력들에 의해 '폐모론'까지 거론되었다가 경운궁에 유폐된다. 즉 대북세력들은 그녀의 아버지 김제남과 역모를 꾸민다는 투서를 보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전상인들을 동원해 폐모론을 주장한 것이다.

14) 신경진(申景禎) : 1575(선조 8)~1643(인조 21). 조선 중기의 무신. 광해군이 즉위하여 대북파(大北派)가 정권을 장악하자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중 1620년(광해군 12) 김류(金鑣)·이귀(李貴)·최명길(崔鳴吉)·구인후(具仁壺) 등과 모의, 그와 인척 관계에 있는 능양군(綾陽君 : 仁祖)을 추대하기로 하였다.

◇ 1623년(계해, 광해군 15)

계축옥사¹⁵⁾로 서인과 남인은 대부분 조정에서 쫓겨나고 대북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서인일파는 사람 세력의 이러한 불만을 이용하여 정변을 꾀했다.

김류(金瑬)·이귀(李貴)·최명길(崔鳴吉)·장유(張維)·심기원(沈器遠)·김자점(金自點) 등이 모의에 참여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들은 1622년(광해군 14)가을에 이귀가 평산부사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었다. 하지만 대간(臺諫)이 이귀를 잡아다 문초할 것을 청하였으나 심기원과 김자점이 후궁에 청탁을 넣어 사건은 흐지부지되었다. 그 뒤 반정 세력은 장단부사로 있던 이서가 덕진(德津)에 산성을 쌓는 것을 감독하게 되자, 그곳에 군졸을 모아 훈련시키며 정변을 준비하였다.

반정세력은 이듬해인 1623년 음력 3월 12일을 거사일로 정해 준비하였다. 그리고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을 한편으로 끌어들이고, 장단부사 이서와 이천부사 이중로(李重老) 등이 군졸을 이끌고 모여들었다. 하지만 이이반(李而旼)이 그 사실을 고변하여 정변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그래서 정변이 예정되었던 3월 12일 저녁에 박승종(朴承宗)등은 추국청(推鞠廳)을 설치해 고발된 모든 사람을 체포하려 했다. 하지만 후궁과 연회를 벌이던 광해군은 이를 재가하지 않았고, 붙잡았던 이흥립마저 풀어주었다. 결국 이이반의 고변으로 상황이 더욱 급박해진 반정세력은 예정대로 정변을 추진하기로 했다. 능양군¹⁶⁾은 친병(親兵)을 이끌고 연서역(延曙驛)으로 가서 이서 등과 합류하였는데, 무리가 1,400여명이 되었다. 이들은 삼경에 창 의문의 빛장을 부수고 도성으로 들어가 곧바로 창덕궁으로 갔다. 이흥립은 궁궐을 지키던 병사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내응하였고, 초관(哨官) 이항(李沆)이 돈화문을 열어 반정세력을 궐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정변은 손쉽게 성공하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광해군은 도망하여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었다. 이튿날 새벽녘에 후원에서 어보(御寶)를 수습하였다. 궁궐 백관이 반정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어떤 사람은 능양군 앞에 와서 배알하고 어떤 사람은 경운궁¹⁷⁾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담수가 왕(광해)이 숨어 있는 곳을 아뢰자, 능양군이 이중로 등을 보내어 대궐로 데려오게 하고 도총부 직방(直房)¹⁸⁾에 머물게 하였다. 또 한 능양군이 경운궁(현 덕수궁)에 나아가 대왕대비(인목대비)께 문안드리고 어보를 올렸다. 그러나 대비가 어보를 능양군에게 돌려주었다.

◇ 1623년(계해, 인조 1)3월13일

능양군이 반정을 일으켜 왕대비(인목대비)를 받들어 복위시킨 다음, 대비의 명으로 경운궁에서 임금(인

15) 계축옥사 [癸丑獄事] : 칠서지옥(七庶之獄)이라고도 한다. 1613년(광해군 5) 대북파(大北派)가 영창대군(永昌大君)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

16) 능양군(綾陽君, 후에 인조) : 선조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정원군(定遠君), 원종으로 추존, 어머니는 인헌왕후(仁獻王后)이다. 비는 한준겸(韓浚謙)의 딸 인열왕후(仁烈王后), 계비(繼妃)는 조창원(趙昌元)의 딸 장렬왕후(莊烈王后)이다. 1607년(선조 40) 능양도정(綾陽都正)에 봉해졌다가 후에 능양군(綾陽君)으로 진봉되었다.

17) 경운궁 : 조선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이었던 곳으로 선조가 임진왜란 뒤 서울로 돌아와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궁(宮)이 됨. 그 후 태상왕(太上皇)이 된 고종이 경운궁에 머무르면서 궁호를 덕수궁으로 바꿈.

18) 직방(直房) : 조선(朝臣)들이 조회(朝會) 시각을 기다릴 때 각사(各司) 별로 머물러 대기하는 곳. 대궐문 옆에 있었음.

조)으로 즉위하였다. 이후 광해군을 폐위시켜 강화(江華)로 내쫓고 이이첨(李爾瞻) 등을 처형한 다음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

이서는 반정 1등 공신으로 책록되어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의 호(號)를 받고 완풍군(完豐君)에 봉해졌다.

◇ 1623년(계해, 인조 1)3월17일

이서는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탁배(擢拜)¹⁹⁾되었다. 이서는 본래 무인으로 문사(文辭)에 통달하고 강개하며 계책이 있었다. 폐조(광해군) 때, 중국이 만주(滿州)를 치면서 우리에게 군사를 청하였는데, 조정 의논이 어렵게 여겼다. 이서가 분연히 말하기를, “의리상 어찌 차마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반대 소를 두 번이나 올렸던 일을 식자들이 훌륭히 여기었다. 김류·이귀와 함께 의거를 공모할 때 장단(長湍)의 임지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왔으므로 군사들이 마음속으로 그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사(靖社)의 공로에 크게 기여하였다.

반정 초기에 호조의 사무가 매우 많고 어지러웠으나 공이 칼날 같이 해결하니 교활한 아전이 기무(欺誣)하지 못하였다. 장차 비용을 절감(節儉)하고 부세를 감하는 큰 조치가 있었는데, 모리배가 그 사실이 밝혀짐을 꺼리어 방언(謗言, 헐뜯는 말)을 서로 선동하니 이서가 드디어 사직하였다. 곧 바로 경기 관찰사에 제수되었는데, 순선(旬宣)하는 직임에 무인[武人]을 등용한 것은 특이한 은수(恩數)²⁰⁾였던 것이다.

◇ 1624년(갑자, 인조2)1월 24일 이괄의 난

평안병사 이괄이 반역하니 이서가 관찰사 겸 부원수로 명을 받고 즉시 길을 떠나 공격하려고 송도(松都, 개성)에 이르렀는데 적이 야음을 틈타 갑자기 이르렀다. 이서가 험한 지역에 의거하여 굳게 지키고 나가 싸우지 않았으니 대개 군사가 기한(飢寒)으로 적봉(敵鋒)을 맞아 싸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서는 전투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이후 얼마 안 되어 다시 서용된 그는 복권되었다. 이때 대신이 건의하기를, “기보(畿輔)²¹⁾는 나라의 인후(咽喉, 가장 중요한 곳)이니 군사가 정예하지 못하면 위급한 시기를 당하여 득력(得力)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이서에게 총융사를 겸하게 하여 교련(敎鍊)을 위임하게 하였다. 그는 총융사형조판서·공조판서·판의금부사·훈련도감 제조 등을 역임하면서 남한산성을 비롯하여 전국 각처에 산성을 수축하였고, 삼혈총과 조총을 만드는 등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19) 탁배(擢拜) :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벼슬을 줌.

20) 은수(恩數) : 공(功)이 높은 사람에게 임금의 베푸는 특별한 은전(恩典)을 말한다. 높은 벼슬과 후한 봉록, 또는 주찬(酒饌)과 초피(貂皮)·의복·화(靴)·대(帶) 등의 특산물을 하사했음.

21) 기보(畿輔) : 왕조의 수도(首都)를 달리 이르는 말.

◇ 1625년(을축, 인조 3)

이서는 인조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 인조가 자신을 임금에 오르게 한 공신들을 신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를 경연특진관으로 삼아 국방문제를 1625년부터 1635년까지 조강, 주강, 석강 등 경연(經筵)²²⁾에 40여회나 참여하였을 정도로 항상 상의하였다.

인조는 반정 후 도성의 인심이 안정되지 않고 그릇된 말이 나돌자 이서 등에게 군관을 거느리고 궐내에서 교대로 숙직하게 하였다.

◇ 1625년(을축, 인조 3) 2월 16일

승록대부 행 한성부판윤(崇祿大夫 行漢城府判尹) 이서가 아뢰기를,

“삼가 아뢰입니다. 신은 우둔한 무변(武弁)으로서 요행히 각별한 대우를 받아 여러 차례 차지해서는 안 될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판윤, 총융(摠戎), 훈련도감, 군기시 제조, 별조청(別造廳)의 직임은 모두 기무(機務)가 바쁜 자리입니다.

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말자하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겸찰(兼察)하는 일이 5, 6가지에 이르니,

— 원문 빠짐 —

전념하여 감독하는 것도 또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더구나 겸관(兼管)하는 일이 많은데 정신은 한정이 있고 근력은 미치지 못하는 데야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삼가 재주와 분수를 헤아려 볼 때, 명하신 자리를 감히 다시 맡아 대역(大役)을 지체시키고 그르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매우 간절한 마음을 굵어 살피시어 겸관하라는 명을 환수하신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재결을 바랍니다.”

라는 판윤 이서의 차자(劄子)²³⁾에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경의 재주가 진실로 이 직임에 적합하니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하였다.

— 신여본에 의거함 —

◇ 1625년(을축, 인조 3) 7월 9일

완풍군(完豐君) 이서가 상차²⁴⁾하기를,

“삼가 아뢰입니다. 신은 작년 봄에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에 제수되었고, 얼마 안 있어 다시 기보총융(畿輔摠戎)에 제수되었는데, 내직과 외직을 겸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탕전(楊前, 임금의 자리 앞)에서 사면을 청하여 개차(改差)되었습니다. 지금 총융의 직임을 아직 맡고 있는데, 다시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

22) 경연(經筵) : 조선 시대 왕과 신하들이 경서와 역사 등 학문을 배우는 제도. 경연관은 3정승을 포함하여 10명이며, 강의를 홍문관에서 주관하였다. 강의를 마치면 국정의 현안 문제를 논하기도 하였다.

23) 차자(劄子) :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간단한 양식의 상소문

24) 상차(上劄) : 관료가 임금에게 차자(劄子)를 올리는 일. 차자는 소창(疎章)의 일종으로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간단히 사실만을 기록하여 올리며, 상소보다는 형식은 간단하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표현하는 이점이 있음. 상소처럼 단독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연명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음.

將)에 제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순찰을 나갈 날이 머지않았고, 또 남한산성의 역사를 감독하기 위해 내일 당장 나가야 합니다. 사소하지 않은 순찰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하루도 겹하여 행할 수 없으니, 신이 맡고 있는 우변포도대장을 숙히 체차하여 숙위(宿衛)를 엄중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재결하여 주소서.”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 1626년(병인, 인조 4) 4월 16일,

평안도 가도(假島)에 주둔하고 있던 모문룡의 모반계획이 조정에 알려지자 인조는 만약의 경우 평안감사의 중책을 맡을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물었다. 이때 좌의정 윤방이 이서를 추천하자 인조는 “이서가 관장하는 일이 많으므로 보낼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에 대한 신망을 대변하였다. 이서가 이토록 임금뿐 아니라 대신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록이 기록한 대로 그가 지조가 있고, 주어진 일에 강명(剛明)하고 부지런하게 마음을 다해 봉직하였기 때문이라.

행 형조판서 이서(李曙)가 상차하기를,

“삼가 아뢰입니다. 신은 본래 용렬한데도 맡고 있는 직명은 모두 군무(軍務)에 관한 중요한 직임입니다. 밤낮으로 분주하게 일하지만 일을 그르칠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형조판서에 제수하는 명이 또다시 뜻밖에 나오니 명을 듣고서는 놀랍고 당황스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즉시 사정을 아뢰어 면직을 청하려 했지만 거상(居喪) 중에 감히 번거롭게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잠자고 공무를 행하면서 삼가 세간의 물의가 저절로 없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처지에서 헤아려 보면 실로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고 총융청(摠戎廳)은 도성을 숙위(宿衛)하는 지위이니 하루라도 비워 두어서는 안 되는데, 신은 호위대장(扈衛大將)이라 순차적으로 총부에 체직(替直)할 수가 없으니 형세 상 그렇다고는 해도 매우 편치 못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사정을 살피시어 신의 본직과 총관(摠管)을 우선 체차하심으로써 신이 전적으로 호위청(扈衛廳) 입직과 호패 유사(號牌 有司)의 직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재결을 바랍니다.”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잘 알았다. 총관은 경의 뜻에 따라 주겠으나 본직은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 1626년(병인, 인조 4) 9월 20일

이서가 아뢰기를,

“신이 방금 장신(將臣)의 초기(草記)에 대해 윤희하신 뜻을 가지고 영의정에게 가서 물었더니, 답하기를, ‘산성을 비록 수축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마땅함을 잃으면 이내 반드시 버리게 되어 성을 쌓느라 고생한 일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객장(客將)이 손님처럼 머무르면 보전하여 지킬 리 만무하니, 광주(廣州)의 잡사(雜事)를 전부 면해 주고 오직 산성만 맡겨 광주 목사로 하여금 성중(城中)에

거주하면서 지키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조정에 반드시 주관하는 재신(宰臣)이 있어야만 서로 호응하여 조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승군(僧軍)을 모아 역사(役事)를 일으킨 것은 실로 심기원(沈器遠)이 시작한 일인데 지금 그가 이미 탈상하였으니, 이서와 협동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듯하다는 뜻으로 신이 항상 이서에게 사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지금 하교를 내려 심기원이 주관하도록 윤희하신다면 산성을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심기원이 출사(出仕)하기를 기다려 상의할 것이고 장만(張晩)에게도 물을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시다.’하였습니다. 감히 아웁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같은 해 12월 5일, 이서를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으로 삼았다.

◇ 1627년(정묘, 인조 5) 정묘호란

정묘호란의 난리에 임금이 강도(江都, 강화도)로 피난가면서 이서에게 명하여 남한산성을 지키게 하였다. 적이 물러가니 형조판서 겸 오위도총관 겸 훈련도감·원유사·사복시·군기시의 제조(提調)²⁵⁾가 되었고, 얼마 있다가 판의금부사를 겸임하게 되어 이서가 마음을 다하여 공무를 받들어 모두 적합하게 하였다.

형조에는 송옥(訟獄)이 다스러졌고 금오(金烏)²⁶⁾에는 의언(議讞)²⁷⁾이 평온해졌으며 태복시²⁸⁾에서는 마축(馬畜)이 번성하여졌고 무고(武庫)에는 무기가 날카로워졌다. 임금이 이서의 근로를 인정하고 이서를 더욱 중하게 여겼는데, 이때부터 그가 병을 앓게 되었다. 또한 명나라 장수 유흥치(劉興治)²⁹⁾가 가도(假島)에서 반역하자, “이 사람은 중국의 역적이니 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서에게 명하여 가서 치게 하였더니, 마침 섬 가운데 여러 장수가 모여 유흥치를 쫓아 버렸다.

이서가 병이 더욱 심해져서 면직을 청하였더니 총융사는 면직하고, 어영 제조로 제수하여 겸직(兼職)은 옛날과 같게 하였다. 본 병조(本兵曹)에 장관이 결위(缺位)되자 조정이 의논하기를 그가 비록 병이 들었으나 그가 아니면 합당한 자가 없다 하니 드디어 이서를 천거하여 대사마(大司馬)³⁰⁾로 삼았다.

무신으로 병조판서가 된 것은 이서(李曙)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병을 무릅쓰고 나가 사은숙배³¹⁾하고 행정을 함에 힘써 공정한 길을 쫓으니 물정(物情)³²⁾이 훌륭하게 여겼다.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사임하여 체

25) 제조(提調) : 제조는 도제조의 다음 가는 벼슬로서 도제조를 두지 않는 곳에서는 제조가 수반이 된다. 잡무와 기술계통 즉 조달, 제작, 접대, 어학, 천문, 어학, 천문, 지리, 음악 등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의 관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였다. 도제조는 정1품, 제조는 정2품 이상으로 규정했다. 동반(東班)관아는 제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반(西班)관아는 초기에는 제조가 없다가 후기에 생겨났다.

26) 금오(金烏) : 해가 뜨는 곳을 말하며, 태양의 별칭(別稱)으로도 쓰임. 태양 속에 세 발 달린 까마귀가 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말임.

27) 의언(議讞) : 죄의 경중을 평의하여 정함.

28) 태복시(太僕寺) : 궁중의 승여(乘輿)·마필(馬匹)·목장(牧場) 등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오늘날 목장(牧場)을 말함.

29) 유흥치(劉興治) : 명나라 장수 유흥치(劉興治)의 군대가 의주성(義州城)을 노략질함. 가도(假島)의 명나라 군영에서 난이 일어나 유흥치(劉興治), 진계성(陳繼盛)을 죽임.

30) 대사마(大司馬) :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주례(周禮)》에 따르면 중국 주(周)나라의 통치조직은 천관(天官)·지관(地官)·춘관(春官)·하관(夏官)·추관(秋官)·동관(冬官)의 육관(六官)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사마는 하관의 장관으로 군사의 일을 맡은 데서 유래함.

31) 사은숙배(謝恩肅拜) : 관료로 처음 임명된 자가 궁중에서 임금에게 국궁사배(鞠躬四拜)하여 왕은(王恩)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삼가 공손히 절함. 임금의 은혜를 감사히 여겨 경건하게 절함.

32) 물정(物情) : 세상의 인심을 말함.

직되었다. 후에 인조가 김자점(金自點)과 이서(李曙)를 인견한 뒤에, 각각 붉은 칠을 한 환도(環刀) 1병(柄, 자루)을 사급하였다.

◇ 1628년(무진, 인조 6) 이서는 형조판서가 되었으며, 1632년(임신, 인조 10) 특명으로 공조판서가 되어 각처에 산성을 수축해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였고, 1634년(갑술, 인조 12) 판의금부사를 겸했다.

◇ 1636년(병자, 인조 14) 병자호란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이서는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총융대장으로서 산성의 북성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서가 포위된 성중(城中)에서 북문을 지키면서 자주 출병(出兵)하여 살획(殺獲, 죽이고 사로잡음)이 매우 많으니 사람들이 다 이서장군을 의지하여 중하게 여겼다.

그는 쇠질(衰疾)이 심한 데도 풍설(風雪)을 무릅쓰고 오고 가며 경수(警守)하기를 병이 없는 사람 같이 하니 간혹 이서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가 있어 말을 하거늘 그가 이르기를, "나라의 위급함이 이와 같은데 어찌 몸을 돌보겠는가?" 하였다. 체찰사(體察使)가 이서와 함께 출병을 의논하는데 이서가 대풍(大風)³³⁾에 부닥쳐 갑자기 땅에 넘어져 들것에 태워 성중의 촌사(村舍)로 갔는데 병환이 날로 위독하였다. 그는 병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내가 죽어도 한이 없으나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은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 때문이다"고 할 정도로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지극하였다.

병자호란이 끝난 뒤, 인조는 국가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산성 덕택이라며 이서의 공로를 치하하는 동시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 1637년(정축, 인조 15) 정월 3일,

이서가 역책(易簣)³⁴⁾을 하니 수(壽)가 58세이다. 6일 전에 큰 별이 성중(城中)에 떨어져서 사람이 이상하게 여겼다. 부음(訃音)이 알려지자 임금이 슬퍼하여 소식(素食)을 하고, 염습을 하는데 의금(衣衾)³⁵⁾을 주고 초상으로부터 임시 매장에 이르기까지 중사(中使)³⁶⁾를 명하여 가서 보게 하고, 관찰사가 호상(護喪)³⁷⁾하게 하였다. 뒷날 계빈(啓殯)³⁸⁾ 발인(發靚)하는데 한양에 들어와 빈소를 마련하라고 특명을 내리니 참으로 세상에 드문 영광이다.

33) 대풍(大風) : 문동병, 여풍(癘風), 장자절론(長刺節論)에서 "골절(骨節)이 무겁고 수염과 눈썹이 빠지는 것을 대풍(大風)이라 한다.(骨節重, 鬚眉墮, 名曰大風.)"라고 하였다.

34) 역책(易簣) : 《예기(禮記)》 단궁편(檀弓篇)에 중자(曾子)가 죽을 때를 당하여 대자리를 바꾸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의 죽음을 이르는 말. (한국고전종합DB,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5) 의금(衣衾) : 의복과 금침(衾枕)을 말한다.

36) 중사(中使) : 궁중에서 임금의 명령을 전하던 내시.

37) 호상(護喪) : 상례를 거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 안팎의 일을 지휘하고 관장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호상으로는 죽은 사람과 상주의 집안사정 및 인간관계를 잘 아는 친척이나 친우 가운데에서 상례절차를 잘 알고 또 절차에 따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모신다. 그렇게 하여 상주가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단지 상주로서의 의무만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호상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38) 계빈(啓殯) : 상례(喪禮)의 한 절차. 발인할 준비로서 관을 꺼내기 위해 빈전(殯殿)에 나아가 빈소(殯所)를 여는 것.

4월에 양주 선산(先山)에 환장(還葬)하였다. 이보다 먼저 이서의 남한 축성을 비방하는 자가 있더니 난리에 미쳐서는 사람들이 그 누점(壘堞)이 완고하고 무비(武備)가 수리(修利)된 것을 보고 이서의 선견지명에 탄복하고 다 말하기를, “공의 공로는 마땅히 온조(溫祚)와 짝이 된다.”하니, 임금이 드디어 남한산성에 사당을 짓고 이서의 위패를 배향하게 하였으니 공론을 따른 것이다.

이서는 키가 크고 살결이 희며 용모가 아름다웠다. 아버이 섬기기를 효도로 하여 생전에는 극진히 봉양하고 돌아간 뒤에는 제사를 받들며 그 정성을 다 하였다. 친척들을 돌보는 데에도 적극적이어서, 귀하게 되었을 때 임금에게 하사받은 물건들을 모두 나눠주어서 집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고,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자녀들의 혼사까지 도맡았으므로, 온 집안이 그를 의지처로 삼았다.

관직에 나가서는 일처리가 명확하고, 아랫사람 거느리기를 까다롭게 하지 않아 그를 원망하는 자가 없었다. 독서를 좋아하였으며, 때때로 회포를 시로 읊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겐 보이지 않았다. 시문의 내용이 지극히 명확하고 간절하여 사람들이 많이 찬탄하였다.

이러한 신하였기에 인조는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고 객사한 그의 시체를 본가에 모셔 들여오도록 하는 은전을 베풀었다. 당시에는 성 밖에 나가서 죽은 사람의 시체는 성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는 것이 국법이였다. 훗날 이서의 낡은 인조의 위패와 함께 인조묘정(仁祖廟廷)에 모셔져 죽은 뒤에도 군신의 의(義)를 나누었다.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충정(忠定)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의 묘와 신도비는 생가 뒷산인 의정부시 고산동 구성마을에 있다.

◆ 다음은 이서의 장례(葬禮) 및 사후(死後) 기록을 옮긴 것이다.

◇ 1637년(정축, 인조 15) 3월 1일,

왕이 전교하기를,

“완풍부원군 이서를 법대로 예장(禮葬)하라. 그 상구(喪柩, 시신을 넣은 관)는 경저(京邸)³⁹⁾로 들여와 염빈(殮殯)⁴⁰⁾하도록 하고, 3년상 동안 제전(祭奠)에 쓰일 물건은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⁴¹⁾ 때의 예대로 매달 제급하라.”하였다.

— 내하 일기초(內下日記草)에 의거함 —

◇ 1637년(정축, 인조 15) 3월 13일,

호조가 아뢰기를,

“예장(禮葬)⁴²⁾하는 일은 재정이 미치지 못하니, 완풍부원군 이서의 상례는 거의 다 거행하되, 그 나머지는 약간의 장례 물품만 적절하게 제급하도록 하는 일과 관련하여, 본조가 초기를 올리니, ‘알았다. 장만하기 어려운 물건을 이와 같이 주지 않는다면 예장이라 할 수 없으니, 그중 절실하게 쓰이는 물건은 모두 갖

39) 경저(京邸) : 조선시대 한양에 둔 지방 각관(各官)의 분실공서(分室公署)를 말한다.

40) 염빈(殮殯) : 장사지내기 전에 시신을 관에 넣어 일정한 곳에 안치하는 일.

41)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의 친정아버지로 김제남을 말한다.

42) 예장(禮葬) : 종친·공신(功臣)·종1품 이상의 문·무신이 죽으면 나라에서 예를 갖추어 장사지내주는 일.

취 주도록 하라. 또 역량⁴³⁾ 10석은 너무 약소한 듯하니, 등급을 나눠 마련해서 제급하도록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중 절실히 쓰이는 물건을 어찌 감히 갖춰 제급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본색(本色)을, 혹은 값을 거의 다 갖춰 제급하겠지만, 목관분(木盥盆, 나무둥이그릇) 등과 같은 물건은 모두 긴요하지 않으니, 재정이 되는 대로 갖춰 제급하려는 것이고, 지석(誌石)에 쓰일 쇠 같은 것은 지석을 묻는 것이 장례를 지내는 때에 미치지 못할 듯해서 나중에 갖춰 제급하려는 것이며, 신주(神主)의 독장(櫝藏, 위패를 담는 함)을 조성하여 칠을 입히는 것은 모두 쉬운 것이 아니어서 또한 나중에 조성하여 제급하려고 하는 것이지, 갖춰 제급하지 않으려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신들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니 예장등록(禮葬謄錄)에는 있지만 고례(古禮)에는 실려 있지 않은 것은 비록 쓰지 않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사세가 이와 같으니, 절가(折價)하여 제급하면 장례와 제사에 쓰일 물건을 장만하는 데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청홍수안(靑紅繡鞍, 청홍실로 수놓은 안장)과 같이 위의(威儀)⁴⁴⁾를 꾸미는 데 쓰이는 물건은 장만할 수 없더라도 예장을 해야 할 사람에게 내외의 관곽(棺槨)⁴⁵⁾과 역량 10석을 적절하게 제급하는 것은 선왕조의 구례와 오늘날의 재정으로 보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 《충훈부등록(忠勳府謄錄)》에 의거함 -

◇1637년(정축, 인조 15) 3월 14일,

정원이 아뢰기를,

“이달 3일에, 완풍부원군 이서의 상구(喪柩, 시신을 넣은 관)를 경저(京邸)에 들여와 염빈(殮殯)하도록 전교하셨습니다. 범인(凡人)의 상구를 지방에서 성안으로 들여와 염빈하는 것은 규례가 없습니다. 만일 본가가 전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성안으로 들여와 염빈하게 되면 아주 온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 밖에 와서 염빈하도록 분부하소서. 감히 아뢰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저로 들여와서 염빈하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의 옛 규례가 있으니 번거롭게 품의하지 말라.”하였다.

- 《비국등록》에 의거함 -

◇1637년(정축, 인조 15) 3월 15일,

호조가 아뢰기를,

“본조 초기에, ‘예장하는 일은 재정이 미치지 못하니 완풍부원군 이서의 상례는 거의 다 거행하되, 나머지는 약간의 장례 물품만 적절히 주도록 하소서.’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알았다. 장만하기 어려운 물건을 만약 주지 않는다면 예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그중 절실하게 쓰이는 물건은 모두 장만해서 주도록 하

43) 역량(役糧) : 역사(役事)할 때 쓰이는 양식.

44) 위의(威儀) : 위엄이 있는 몸가짐이나 차림새를 의미한다.

45) 관곽(棺槨) : 죽은 사람을 땅 속에 묻을 때 시체를 넣는 널. 관은 속널로서 형태에 따라 상자식관•배형태관•사람형태관 등으로 나누어지고 재료에 따라 도관(陶棺)•목관(木棺)•석관(石棺)•금속관(金屬棺) 등이 있으며, 곁은 겉널로 관을 담는 궤로 목재가 많음.

라. 또 역량 10석은 너무 약소한 듯하니, 등급을 나눠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하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 중 절실히 쓰이는 물건을 어찌 감히 장만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혹은 본색을, 혹은 값을 거의 다 갖춰 제공하겠지만, 목관분(木盥盆, 나무로 만든 물둥이대야)등과 같은 물건은 모두 긴요하지 않으니, 재정이 되는 대로 갖춰 제공하려는 것이고, 지석(誌石)에 쓰이는 철물은 장례를 지낼 때에 지석을 묻지 못할 듯하여 나중에 갖춰 제공하려는 것이며, 신주(神主)의 독장(櫝藏, 신주 넣을 함)을 조성하여 칠을 하는 것은 모두 쉬운 것이 아니어서 또한 나중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갖춰 제공하지 않으려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신들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니, 예장 등록에는 있지만 고례에는 실려 있지 않은 것은 비록 쓰지 않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물며 지금 사세가 이와 같으니, 절가(折價)해서 제공하면 장례와 제례의 비용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청홍수안(靑紅繡鞍) 같이 위의를 꾸미는 데 쓰이는 물건은 만들지 않더라도 될 것입니다. 또 예장해야 할 사람에게 내외의 관곽과 역량 10석을 주도록 하는 것은 선왕조의 구례와 오늘날의 재력으로 보건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약소한 것 같으니 등급을 나눠 마련하라고 전교하셨으니, 2, 3등을 막론하고 모두 내외 관곽을 주되, 2등은 역량 15석을 주고 3등은 10석을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역군 값을 이미 마련하였고 예장하지 말도록 이달 12일에 윤허를 받았는데, 김상용(金尙容)⁴⁶⁾ 집안은 11일에 이미 받아갔으므로 이때는 절반으로 정한 해조의 예대로 제공하였지만, 이서의 집안에는 전교대로 횡간(橫看)⁴⁷⁾에 맞춰서 제공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병조등록》에 의거함 -

◇1637년(정축, 인조 15) 3월 16일,

호조가 아뢰기를,

"본조가 예장에 대하여 초기를 올린 것과 관련하여 좌승지 최혜길이 계사를 올리니, '해조(該曹, 해당관청)로 하여금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최혜길이 계사로 올린 내용은 모두 신들이 깊이 우려하여 누누이 아뢰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사세에 선왕조의 구례(舊例)를 참고하면, 예장하는 일은 결코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근신이 아뢴 내용은 몹시 안타깝고 절박하니, 그 각별하게 굶주려 죽는 이를 진구(賑救)⁴⁸⁾하려는 뜻이 말 밖으로 넘쳐납니다. 사세가 이와 같으니 혹 규례대로 장만하여 줄 수 없더라도, 이서(李曙)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였으니 비록 구천(九泉)⁴⁹⁾ 아래에 있지만 반드시 예장을 장만해서 주지 못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유감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혜길의 계사대로 전에 마련한 10석을 1, 2등에게 제공하는 숫자로 하고 3등에게는 8석을 제공하고, 일이 안정되어 물력(物力)이 조금

46) 김상용(金尙容) : 김상용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로 왕을 호종하였으나 청나라 군이 이곳까지 함락하자 남문루(南門樓) 위에 화약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순국하였다.

47) 횡간(橫看) :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세출예산표, 세출예산표를 가로 [橫] 으로 기재해 가로·세로로 대조해보는 서식(書式)에서 생긴 명칭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경비식례횡간(經費式例橫看)이 바른 명칭이다.

48) 진구(賑救) : 흉년(凶年)에 곤궁(困窮)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49) 구천(九泉) : 구지(九地)의 바로 밑에 있는 샘으로 황천(黃泉)을 말하며, 흔히 저승을 뜻함. [유사어] 황천(黃泉). [반대어] 구천(九天)

넉넉해질 때까지 항식(恒式)으로 정하고, 그 밖의 별치부(別致賻) 등과 같은 일은 성지(聖旨)가 있는 뒤에 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어제 계사에서는 단지 예장을 하지 말도록 청한 것이 윤희를 입기 전에 김상용(金尙容)의 집안에서 이미 받아갔다는 것만 아뢰고, 나머지 숫자를 도로 거둬들인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니 몹시 소루합니다. 또 이서의 집안은 역량(役糧)을 미처 받아가지 못했으니, 승지의 계사로 보건대 횡간대로 제공하는 것이 또한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히 아뢰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긴요하지 않은 물건은 우선 제공하지 말라. 역군의 값은 몇 년 전 감생(減省)한 수량대로 제공하라.”하였다. — 《병조등록》에 의거함 —

◇1638년(무인, 인조 16) 3월 9일,

완풍부원군 이서는 가장 먼저 호조 판서가 되었는데, 대개 이서의 사람됨은 충성스럽기가 해를 꿰뚫고 정성된 마음이 국사만을 생각하니 조정의 신하 가운데 그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세심하고 정밀함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하여 터럭의 끝도 분석하고 극히 미세한 것도 빠뜨리지 않을 정도였다.

2) 이서(李曙, 1580년~1637년) 묘역 해설

의정부 고산동 구성마을은 효령대군 이보(李補)의 손자인 윤림도정(雲林都正), 다시 말해 윤림군 이팝(雲林君 李福)의 후손들이 내려와 살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윤림도정의 도정(都正)이란 윤림군 이팝(李福)이 종친부·돈녕부·훈련원 등의 정3품 당상관 관직에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의정부 지명유래집에는 이러한 구성마을 유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한다.

이서의 자는 인숙(寅叔), 호는 월봉(月峰), 시호는 충정(忠正), 본관은 전주로 조선 제3대 임금인 태종의 차남인 효령대군의 7세손이다. 효령대군부터 2대인 의성군 이채(李棗, 1411~1493)는 포천군 내촌면 팔아리에 장사지냈다.

구성마을에는 효령대군의 손자 윤림군 이팝(李福)의 묘(墓) 뿐만 아니라, 3대 파성군 이철동(李哲全)의 묘, 4대 이광윤(李光胤)의 묘, 5대 오위장 이간(李幹)의 묘, 6대 이경록(李慶祿)의 묘와 더불어 7대 완풍군 이서(移書)의 묘가 있다.

의정부 고산동 구성마을 안쪽에 있는 이서묘역은 정경부인 해남 윤씨와 쌍분으로 원형봉토분이고, 쌍분 앞 중앙에 묘갈,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있고 좌우로 망주석(望柱石)⁵⁰⁾과 문인석등의 석물을 각각 배치하였다.



이서묘역

50) 망주석(望柱石) : 망주석은 무덤을 꾸미기 위해 무덤 앞, 양 옆에 하나씩 세우는 돌기둥으로 멀리서 바라보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 표지의 기능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현존하는 왕릉과 상류층의 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망주석은 크게 기둥 부분과 대석(臺石)으로 나뉘어 있는데, 기둥의 윗부분이 보주형두(寶珠形頭)로 되어 돌받침 위에 올린다. 망주석은 흔히 놀러 나갔다가 되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무덤 양 옆에 세운 돌기둥이다. 이때 혼은 망주석에 새겨진 도룡뇽을 타고 드나든다고 한다.



이서 묘갈

이서의 묘갈(墓碣)명에는 「증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 경연홍문관에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행분충찬모입기명륜정 사공신 보국승록대부완풍부원군 겸 판의금부사병조판서 증 시충정공 이공서지묘 정경부인 해남윤씨부우」라 쓰여 있다.

망주석에는 세호(細豪)⁵¹⁾가 조각되어 있으며, 문인석의 모습은 금관조복을 하고 두손으로 홀⁵²⁾을 받쳐든 모습이다.

묘역 내에 신도비가 있는데 4각 대석위에 한식기와 팔작지붕을 하였으며 비신의 높이는 187cm, 폭 88cm, 두께가 48cm이다. 신도비 명은 오도일(吳道一)이 찬(撰)하고, 남취명이 전(篆)하였으며, 남한

명이 글씨를 썼다.

이서는 1603년(선조 36) 무관에 급제하여 행사용, 진도군수 등을 지내고, 1618년(광해군 10) 대북파에서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났을 때 정청에 불참했는데 무인으로서 정청에 불참한 사람은 그뿐이었다.

그 뒤 장단부사 경기방어사를 겸하였고, 1623년 인조반정 때 김류(金瑬)·이귀(李貴) 등과 함께 공을 세워 호조판서에 승진되고 정국공신 1등에 책록되었으며, 완풍군(完豐君)에 봉해졌다.

1624년(인조 2)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자 경기도관찰사로 부원수를 겸하여 적을 공격하기 위해 송도에 이르렀으나, 휘하 군사들이 추위와 허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반란군이 야음을 틈타 기습을 해왔다. 이 때 나아가 싸우지 않고 진영만 굳게 지켰다하여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그러나 다시 서용되어 총융사로서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군량을 많이 확보하였으며, 삼혈총(三穴銃)과 조총(鳥銃)을 많이 제조하여 외적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인조는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경연특진관으로 삼아 국방문제를 항상 상의하고는 하였다. 1628년 판의금부사를 겸하였고, 1636년(인조 14) 병으로 일시 시작하였다가 곧 훈련도감제조를 거쳐 병조판서로 기용되어 군비를 갖추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 해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어영제조로 왕을 호종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지키다가 이듬해 정월에 적군이 겹겹이 포위하고 항복을 재촉하는 가운데 군중에서 죽었다.



이서신도비

3) 무인이면서 책자 편찬에도 탁월한 능력 발휘

이서의 가장 큰 업적은 남한산성을 축성하고 군량을 확보하는 등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비를 증강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실록에서 '무인(武人)으로서 문사(文辭)에 통달하였다'고 기록할 만큼 문무

51) 세호(細豪) : 망주석 3분의 2 지점에 새겨진 작은 호랑이 형상을 가리켜 세호라 한다. 사대부 묘소의 망주석에서는 세호 대신 도룡뇽이 새겨져 있다.

52) 홀 : 신하들이 임금의 뉘를 뵈러 올 때 예를 갖추기 위해 손에 들던 것.

를 겸한 인물이었다. 무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책읽기를 좋아하였고, 『마경언해(馬經諺解)』와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를 편찬 간행하였을 뿐 아니라 전국의 목장을 소개한 목장지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저작물은 한결같이 군사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 『마경언해(馬經諺解)』

이 책은 이서가 1635년(인조 13)에 간행하였다.

그는 일찍이 마필(馬匹) 관리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중국 마의학서인 『마경(馬經)』을 구해 『신각참보침의마경대전(新刻參補針醫馬經大全)』을 간행하였으며, 원래 전해 내려 오던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을 우리말로 번역한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도 펴내었다.

책에는 말의 탄생과정을 비롯하여 관상법, 진맥법, 양마법(養馬法), 방목법, 행침법(行針法), 골명도(骨名圖), 다양한 질병의 원인과 증세 및 처방,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증상 등 115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정확한 이해를 위해 말의 신체를 정밀하게 그린 삽화를 첨부하였는데, 각각의 부위에 이름을 붙이고 해설을 곁들임으로써 관료층은 물론 목자나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한자로 된 어려운 수의학 서적을 한글로 쉽게 풀이하여 보급했다는 점이 그의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데 말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지 못하는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서의 마의학 서적 한글 번역 보급이야말로 우리 땅의 말과 사람을 모두 이롭게 한 위대한 출판 사업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서는 사복시(司僕寺), 즉 조선시대 왕실의 가마, 말, 마구간과 목장 등 말의 사육과 방목을 맡았던 기관의 제조(提調)를 지낸 인물이다. 무과 출신의 이서는 왕에게 건의해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마필을 번성케 하였으며 무기를 정비하여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마경언해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이 서적은 1635년(인조 13)에 이서가 당시 사용된 각종 화포(火砲)의 총쏘는 방법과 화약굽는 방법을 기술하여 한글 번역한 병서(兵書)이다. 1685년(숙종 11)에 중간(重刊)되었고, 여러 이본(異本)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藏書閣)과 국립중앙도서관, 서강대 도서관 등에 전한다. 책의 내용은 먼저 제반 총통(銃筒)의 일반적인 용약법(用藥法)을 기술한 다음, 각종 화약병기의 용약법과 발사물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에 비록 조총류(鳥銃類)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또한 사거리(射距離)를 밝히지 않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 사용된 화약병기의 종류와 용약법



화포식언해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등을 연구하는 데에는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후반부의 『신전자취염초방언해』는 임진왜란 이후 새로 습득한 화약제조법의 내용과 숙종 연간에 이루어진 김지남(金指南)의 『신전자초방』과의 상관관계를 밝혀주는 중요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17세기의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특히 이본(異本)들의 비교를 통하여 표기법의 변천 및 음운의 변천을 연구할 수 있다. 『신전자취염초방언해(新傳煮取焰硝方諺解)』는 2권 1책으로 되어있는 목판본 다. 1635년(인조 13)에 이서(李曙)가 무고(武庫)인 군기시(軍器寺)에서 편찬하여 간행한 언해본으로, 염초(焰硝) 즉, 화약의 원료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와 합철되어 있다.

III. 천혜의 요새인 남한산성 이야기

1. 남한산성의 역사적 변천

도립공원이자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은 광주시 중부면 일장산(日長山)과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산성으로 북한산성과 함께 한양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다.

성벽의 바깥은 급경사를 이루지만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여 방어에 유리하고, 논이 있어 자체적으로 식량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 년 내내 물이 풍부하다는 것 등 한마디로 ‘하늘이 만든 성’이라 할 만큼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찍이 백제 온조왕 때 쌓은 성이라는 이견도 제기되었지만, 신라문무왕 때 흙으로 쌓은 주장성(書長城)에 뿌리를 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장성 혹은 일장산성은 이곳의 산세가 높은 대신 산성주위가 평지여서 일찍 해가 뜨고 늦게 지기 때문에 낮이 밤보다 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뒤 몇 차례 축성(築城)이 있었지만 현재 견고한 석축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조선시대 들어와서이다.

계곡 장유(張維)가 기록한 「남한성기(南漢城記)」 의하면,

남한산성은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40리 지점 한강의 남쪽에 있으며, 광주의 옛날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5리 쯤 거리에 있으니, 본래 백제의 옛 도읍이다. 지지(地志)를 자세히 살펴보면 백제 온조왕 13년(B.C. 6)에 위례성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겨 12세(世) 380여 년을 지내고, 근초고왕 26년(371)에 또 남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남평양은 바로 오늘의 서울이다. 근초고왕(346~375)으로부터 백제·신라·고려를 거치는 천여 년 동안 이 산성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살피기는 어려우나, 우리 조선이 천명을 받으면서 정치의 방향이 무력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산골짜기 성곽을 단단하게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어찌 일이 없었겠는가? 임진왜란을 겪고 난 이후로 큰 계산과 굳은 계획을 생각하는 선비들이 이 산성에 깊은 관심을 쏟아 왔는데, 정작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건의하지 않았으니, 어찌 또한 기다릴 바가 있겠는가? 우리 임금께서 즉위하신 이듬해에 이괄(李适)의 변란이 있어 나라의 근심을 의논하는 자로서 서울 가까운 곳에 마땅히 안전한 곳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많았다. 이에 영의정 이원익(李元翼)과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

귀(李貴)가 건의하여 이 산성의 보수할 것을 청하였다. 처음에 청원군 심기원에게 명하여 그 일을 그 일을 맡겼는데, 그가 노는 사람들을 불러 일을 시키고, 도첩(度帖)을 가지고 승도들을 부리다가, 마침 상(喪)을 당해 그만두고 말았다. 이에 총융사인 완풍부원군 이서가 그 임무를 대신 맡고, 바로 명승인 각성(覺性)과 응성(應聖) 등을 널리 불러들여, 각자 그 무리들을 거느리고 구역을 나누어 공사를 하였다. 이때 목사 문희성, 별장 이일원, 비장 이광춘 등이 실제로 감독했는데, 성 둘레의 옛 터가 뚜렷하니 온조왕이 옛날에 쌓았던 곳이다. 이를 기초로 그 위에 증축하면서 평평하고 험난한 지형을 참작하여 높고 낮게 하였다. 1624년(갑자, 인조 2) 9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626년(병인, 인조 4) 7월에 완공하였다. 산성은 둘레의 총 길이가 약간 장척(丈尺)이요, 여장(女牆)⁵³⁾이 1700첩(堞)이며, 4문(門)을 설치한 외에 암문(暗門)⁵⁴⁾이 8개 시설되었고, 그 속에 사찰 일곱이 새로 건립되었고 관청과 창고 등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대저 남한산성 안은 가운데가 평평한 반면 밖으로 높으며 짜임새가 조밀하고 형세가 웅장하며, 산성은 산령에 갓을 씌운 듯 높은 것을 당기고 평평함을 감싸며, 성 안에 샘솟는 곳이 매우 많아 겨울이건 여름이건 마르는 날이 없다. 산골짜기의 여러 물이 합하여 개울을 이루어 동으로 수문을 통하며, 수문 밖은 언덕과 골짜기가 서리고 얹어져 양의 창자처럼 꼬불꼬불한 길이 몇 십리를 두고 이어져 있다. 사면의 산세가 급하고 온통 깎아지른 듯하여 어떻게 부여잡고 올라갈 길이 없는데, 오직 동남쪽 모퉁이 산기슭만은 약간 경사져 있을 뿐이라서 포루(砲樓) 세 곳을 설치해 놓았다. 조그만 봉우리가 있어 성 안을 내려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누대(樓臺)를 하나 세우고 용도(甬道)⁵⁵⁾를 쌓아 성과 연결시켰다. 드디어 읍치(邑治)를 이곳으로 옮기고 아전과 백성과 물자를 비축함으로써 은연중에 하나의 웅진(雄鎭)이 되었다.

『주역』에서는 왕공(王公)이 험한 곳을 설치하여 그 나라를 지켰다고 했고, 춘추전에서는 거(葛)나라가 좁고 작음을 믿고 성곽을 보수하지 않았으니, 군자가 말하기를 허물 가운데 큰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낭와(囊瓦)⁵⁶⁾가 영(郢)땅에 축성을 쌓으니 심윤수(沈尹戌)가 심히 나무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본말을 함께 해야 성이 견고하여져 백성을 보호할 것인데, 진실로 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무익한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 성상께서 중흥의 운세를 맞이하여 다시 사람의 도리를 바로 잡으신 뒤 화난(禍難)을 경계하고 충직한 신하들에게 임무를 맡기시면서 사전 대비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 이 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게 하시었다. 그리하여 천 년 동안 가시덤불에 묻혀 있던 폐허의 땅이 일약 면목을 일신하면서 마침내 서울을 방어하는 요새로 삼으셨다. 이는 아마도 기수(氣數)⁵⁷⁾에 은하는 것이고 천인(天人)이 합함이며 그 성을 쌓아 나라를 지키는 의(義)를 또한 가히 얻었다 하겠다.

이제부터 안으로는 조정의 대신과 밖으로는 방백과 장수들이 협심하고 진력하여 함께 좋은 계획을 넓혀

53) 여장(女牆) : 성위의 알은 담. 여원(女垣)이라고도 함.

54) 암문(暗門) : 성벽에 누(樓)없이 만들어 놓은 문.

55) 용도(甬道) : 흙담을 양쪽에 쌓아 올려서 만든 통로, 누각의 사이에 만들어 놓은 복도, 정원의 셋길.
『남한지』 번역본 p. 303에서 인용.

56) 낭와(囊瓦) : 중국 춘추 시대 초(楚)나라 장왕(莊王)의 아들로 자는 자상(子常)임. 재물을 탐하여 채(蔡)나라와 당(唐)나라의 원한을 산 까닭에 그들과 연합한 오(吳)나라에 크게 패하였음.

57) 기수(氣數) : 스스로 돌아가는 그 자신의 길흉, 화복의 운수를 말함.

인화(人和)와 지리(地利)로 하여금 그 유익함을 얻도록 한다면, 이 성이 묵적(墨翟)⁵⁸⁾의 계(械)를 기다리지 않고도 길이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성을 보존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한갓 험준한 산세(山勢)나 견고한 성루(城樓)만은 믿고서 ‘누가 감히 나에게 덤벼들까.’ 한다면 정말 졸렬한 짓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 성을 수축하여 원대한 계획을 삼으려 했던 그 본의로 볼 때 어찌 그렇게 되기야 하겠는가. 감히 이런 내용으로 군자들에게 고하는 바인데, 그동안 공사를 주관하며 공로를 세운 제인(諸人)에 대해서는 아래에 별도로 기록하였다.

- 『계곡집』 제 8권에서 옮김 -

2. 남한산성 축성 총지휘자

완풍부원군 이서의 가장 큰 업적은 남한산성을 축성하고 군량을 확보하는 등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비를 증강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도립공원이자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은 광주시 중부면 일장산(日長山)과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산성으로 북한산성과 함께 한양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다. 성벽의 바깥은 급경사를 이루지만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여 방어에 유리하고, 논이 있어 자체적으로 식량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 년 내내 물이 풍부하다는 것 등 한마디로 ‘하늘이 만든 성’이라 할 만큼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찍이 온조왕 때 쌓은 성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지만, 신라 문무왕 때 흙으로 쌓은 주장성(晝長城)에 뿌리를 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장성 혹은 일장산성은 이곳의 산세가 높은 대신 산성 주위가 평지여서 일찍 해가 뜨고 늦게 지기 때문에 낮이 밤보다 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뒤 몇 차례 축성이 있었지만 현재 견고한 석축(石築)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조선시대 들어와서이다.

이미 조선초기부터 산성 수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남한산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광해군 때에도 남한산성을 도성을 지키는 이른바 보장지지(保障之地, 군사상 중요한 요충지역)로서 산성 수축론이 제기되었으며, 이괄의 난 이후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한산성의 축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이에 이귀·이원익 등의 주장으로 1624년에 총융사 이서를 총 책임자로 하고, 벽암대사 각성(覺性)을 팔도도총섭으로 삼아 전국의 승군을 동원하여 산성의 서북쪽을 축성하게 하는 한편, 이회(李晦)에게는 성의 동남쪽 축성을 맡게 하였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은 공사 시작 2년여 만에 완공을 보게 되었으며, 이 때 이서의 모습은 몸이 파리하고 피로가 겹쳐서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어 노옹(老翁)으로 변해 버렸다한다. 또한 이서는 남한산성을 유사시 왕실의 피난처로 삼고자 행궁 건축을 건의하여 230여 칸을 건설해 완성하였으며, 이후에도 산성에는 여러 시설물들이 계속 축조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이서는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총융대장으로서 산성의 복성을 지키는

58) 묵적(墨翟) : 전국시대 송나라 사람. 『墨子』를 지었음.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자신이 성을 쌓고 군비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던 이곳 남한산성에서 치욕스런 항복만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이듬해 정월 초순에 청나라 군사가 산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재촉하는 와중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병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내가 죽어도 한이 없으나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은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 때문이다”고 할 정도로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지극하였다. 병자호란이 끝난 뒤 인조는 국가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산성 덕택이라며 이서의 공로를 치하하는 동시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충정(忠定)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3. 남한산성의 특징

1) 종묘와 사직을 갖춘 조선시대 유일한 행궁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남한산성은 행정구역상 광주시에 63%, 하남시에 24%, 성남시에 13%가 속해 있다. 광주는 고려 태조가 이름 짓기 이전까지 한강 남쪽의 넓고 오래된 땅 한산(漢山)이었다. 하남이라는 지명은 한강의 남쪽, 성남은 남한산성의 남쪽에 면했다고 해서 붙여졌다. 서울과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남한산성의 지리적, 공간적 존재감을 알 만하다.

남한산성은 전란이 일어났을 때 왕의 안전을 담보하는 보장처였다. 왕의 선택지는 대개 강화 섬이 아니면 남한산성이었다. 남한산성에 대한 기록은 주로 광주행궁이라고 남아 있다. 조선시대 전국 각지에는 23 곳에 이르는 행궁이 있었다. 이를 별궁 또는 이궁이라고도 했다.

전란에 대비한 행궁으로는 광주행궁, 양주행궁(북한산성), 강화행궁, 전주행궁이 있다. 능행을 목적으로 한 행궁에는 화성행궁, 이천행궁, 파주행궁, 고양행궁, 풍덕행궁을 지었다. 왕은 질병 치료와 휴양차 온양행궁, 청주행궁, 목천행궁, 고성행궁, 전의행궁 등에 행차했다. 온양행궁 가는 길인 과천행궁과 수원행궁에도 머물렀다.

그러나 종묘와 사직을 갖춘 행궁은 남한산성이 유일했다. 국가에 전란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임시 수도로서의 위상이다. 조선시대 5군영 중 하나인 수어청의 근거지였으며 광주부가 1917년 경안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290년 동안 광주부 관아가 있던 조선시대 최대의 산악 군사행정 도시였다. 규모도 예사롭지 않았다. 광주행궁은 두 개의 궁으로 나뉘었는데 상궐은 73칸, 하궐은 154칸으로 총 227칸의 당당한 규모였다. 대부분의 행궁은 말이 궁이지 왕이 실제 머문 횟수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남한산성 행궁은 인조가 모두 6차례 행차했고 머문 기간도 농성 47일을 비롯해 50일을 넘었다. 이후 숙종과 영조가 서장대를 둘러보았고, 정조는 서성과 남성을 거쳐 북성까지 돌아보고서 서장대에서 군사훈련까지 했다. 이후 철종과 고종 등 모두 6명의 왕이 찾았다.

남한산성이 몽골과 청은 물론 일제에 항거한 외세 저항의 본거지였던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1895년 명성황후시해사건 이후 광주, 이천, 여주 지역의 의병 1600명으로 이뤄진 연합의병부대가 주둔하면서 삼남지방 및 강원도 지역의 의병 3000명과 합세해 서울로 진격하기로 한 을미의병의 주요 거점이었다. 이후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항거한 을사의병과 1907년 고종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령에 반발한 정미

의병도 이곳에서 일어났다. 일제는 산성 안 행궁과 사찰을 불태우고 철저히 파괴했으며 광주읍성도 성 아래로 옮겨버렸다. 조선시대 20여개의 행궁 중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갖춘 남한행궁은 국가 전란 시 부수도의 역할을 했으며, 왕(인조)이 실제로 가장 오래 이어(移御)한 역사적 기록이 있는 곳이다.

1624년(인조 2)남한산성의 대대적 수축을 위하여 관군 이외에 전국 8도에서 소집된 승군이 주둔한 8개의 사찰과 중앙지휘사찰인 개원사 등 총 10개의 사찰이 운영 되었다. 명실상부한 호국불교의 상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2) 단 한 번도 뚫린 적 없는 난공불락 요새

남한산성은 가운데가 평평한 반면 밖으로 높이 솟아오르는 등 그 에워싼 형세가 치밀하기 그지없는 가운데 웅혼한 자태를 보여 주고 있으며, 산 정상에 능선들로 이어져 높은 지세에 웅거하면서 평평한 지대를 포용하고 있다.

또한 성 안에 늘 샘솟는 곳이 매우 많아 겨울이건 여름이건 마르는 날이 없는데, 계곡을 흘러내리는 물들은 대간(大澗)으로 합쳐져 동쪽 수문(水門)을 통해 빠져 나간다. 문의 바깥으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들이 곳곳에 서려 있고 양의 창자처럼 꼬불꼬불한 길이 몇 십리를 두고 이어져 있다. 산세는 사방이 온통 깎아지른 듯하여 어떻게 부여잡고 올라갈 길이 없는데, 오직 동남쪽 모퉁이 산기슭만은 약간 경사져 있을 뿐이라서 포루(砲樓) 세 곳을 설치해 놓았다. 이와 함께 건방(乾方, 북서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에서 성 안을 내려다 볼 수가 있었으므로 누대(樓臺)를 하나 세운 다음 용도를 쌓아 성과 연결시켰다. 그러고는 마침내 주치(州治)를 이곳으로 옮겨 인력과 물자를 비축함으로써 은연중에 하나의 요새지가 형성되게 하였다.

18세기 방랑 실학자 이종환은 『택리지』에 “경기도 여주 서쪽은 광주로, 석성산에서 나온 한 가지가 북쪽으로 한강 남쪽에 가서 고을이 형성되었으며 읍(광주부)은 만 길 산꼭대기에 있다. 옛 백제 시조였던 온조왕이 도읍하였던 곳으로, 안쪽은 낮고 앞이나 바깥쪽은 높고 험하다. 청나라 군사들이 처음 왔을 때 병기라고는 날도 대보지 못하였고, 병자호란 때도 성을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인조가 성에서 내려온 것은 양식이 부족하고 강화도가 함락되었기 때문이었다. 인조가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내려온 것이지만 남한산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남한산성은 한성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13세기 전 세계를 휩쓴 무적 몽골군의 두 차례 공격과 병자호란 당시 12만 대군을 이끈 청 태종의 파상공세도 47일간 막아냈다. 해발 400m를 넘나드는 험준한 지형을 따라 본성과 외성을 합쳐 11.7km가 넘는 성벽을 쌓았는데 내부는 넓고 평평했다. 우물이 80곳, 연못이 45개에 이를 정도로 물이 풍부해 군량미와 소금만 잘 비축하면 수만 명의 병력이 장기농성 할 수 있는 철벽의 금성탕지였다.

관아로는 좌승당(坐勝堂)·일장각(日長閣)·수어청(守禦廳)·제승헌(制勝軒) 등이, 군사기관으로는 비장청(裨將廳)·교련관청(敎練官廳)·기패관청(旗牌官廳) 등을 비롯한 20여 시설과 더불어 종각(鐘閣)·마랑(馬廊)·뇌옥(牢獄, 감옥),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묘(溫祚王廟), 서낭당·여단(厲壇) 등이 들어서고, 승도청(僧徒廳)을 두어 승군(僧軍)을 총괄하였다. 당시에 나라를 지키는 성군(聖軍)으로서의 불도(佛徒)의 힘은 대단히 컸기 때문이다.

3) 이서, 온조왕의 사당 '송열전'에 배향되다

송열전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던 사당이다. 처음에는 인조 16년에 온조왕묘(廟)로 건립했다. 이후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병자호란 때 싸우다 죽은 수어사 이서를 함께 배향하였다.

1795년 정조 19년에 왕이 사액(賜額)하여 '송열전'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남한산성 성곽의 북서쪽 산 능선 아래 남향으로 지어진 작은 건물이다. 담장 안에는 근래에 새로 복원한 강당과 그 북쪽에 담장으로 막아 구성한 사당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1972년 5월 4일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송열전>. 출처: 인터넷

온조왕과 이서의 위패는 대체 어떤 연유로 한 사당에 모셔지게 된 것일까. 병자호란 중 인조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서 자기의 사당을 세워 준 것에 고마워하며, '산중에 혼자 있기가 너무 적적하니 이서 장군과 함께 있도록 해주시오'라고 하였다한다. 공교롭게도 다음날 이서가 세상을 떠나자, 온조왕이 이서를 데리고 간 것이라 믿고 사당에 그의 위패를 함께 모시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한다. 그런데 이서는 온조왕묘를 짓기 이전인 163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서를 추모하는 마음들이 모여 이러한 설화를 만들어 낸 것이리라.

이서장군은 남한산성을 쌓을 때의 총 책임자였다. 약 370여 년 전 험한 산에 돌로 성을 쌓는 일을 맡아서 약 2년여 만에 완공했다. 지금처럼 헬리콥터나 중장비가 없던 시대였으니 대단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병자호란 때에 성안에서 적과 싸우다가 병사하였으니 남한산성을 있게 하고 남한산성에 목숨을 바친 분이다. 물론 산성을 직접 쌓으며 희생되었던 분,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다 숨진 영령들, 그 모두를 대신하여 모셔졌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IV. 끝맺으며

앞에서 우리는 이서의 생애와 관료생활 등 변모를 살펴보았다.

이서는 왕조실록에서 '무인(武人)으로서 문사(文辭)에 통달하였다'고 기록할 만큼 문무를 겸한 인물이었다. 무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책읽기를 좋아하였고, 『마경언해(馬經諺解)』와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를 편찬 간행하였을 뿐 아니라 전국의 목장을 소개한 목장지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저작물은 모두 군사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서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남한산성 수축은 바로 그의 건의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는 인조에게 "백제가 고구려와 싸우면서 이곳에 성을 수축했던 이유는 그 지형이세가 수도를 방어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고 말해 재가를 받아냈다. 그리하여 얼마 후 인조가 피신하게 되는 남한산성의 축조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병조판서에도 올랐던 이서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자 함께 들어가 방어 전략을 지휘했고 과로로 이듬해 초 숨을 거둔다. 그는 사위 채유후에게 "나는

죽어도 한이 없으나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은 청에 패하여 당한 치욕이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서는 인조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 인조가 자신을 임금에 오르게 한 공신들을 신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를 경연특진관으로 삼아 국방문제를 항상 상의하였고, 이서의 죽음에 인조가 통곡할 정도로 남달랐다. 인조는 반정 후 도성의 인심이 안정되지 않고 그릇된 말이 나돌자 이서 등에게 군관을 거느리고 궐내에서 교대로 숙직하게 하였다. 또 1626년에는 평안도에 주둔하고 있던 모문룡의 모반계획이 조정에 알려지자 인조는 만약의 경우 평안감사의 중책을 맡을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물었다. 이때 좌의정 윤방이 이서를 추천하자 인조는 '이서가 관장하는 일이 많으므로 보낼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에 대한 신망을 대변하였다. 이서가 이토록 임금뿐 아니라 대신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록이 기록한 대로 그가 지조가 있고, 주어진 일에 강명(剛明)하고 부지런하게 마음을 다해 봉직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서가 사망한지 370여년이나 지났지만, 우리지역에서 그를 위해 행한 선양사업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번 기회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지자들을 찾아 후세들이 헌창하고 숭모(崇慕)의 마음으로 존경을 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선지자의 삶을 후세들에게 전해줄 의무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역사에 부끄럽지 않겠다.

< 이상 >

※ 참고문헌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종합 DB」에서
 『국조보감』 제34권, 『인조왕조실록』, 『승정원 일기』번역본 인용.
 『국조인물고해제』번역본 인용.
 『연려실기술』별집제8권, 관직전고(官職典故), 총융청, 이금익(李肯翊), 1966년
 제29권 인조조 고사본말 인조조의 훈신(勳臣)
 『옥담시집』『옥담유고』, 남한산성 중수, 이응희(李應禧), 2009년
 장유, 『계곡집』 제7권 ~ 제8권,
 의정부시, 『의정부지명유래집』, 2007년.
 오성·김세민 譯, 『重訂 南漢志』번역본, 하남역사박물관, 2005년.
 한영우, 『조선의 집, 동궐에 들다』, 열화당, 2006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망월사 신규 유형문화재

의정부문화원 향토연구소장 최영희



망월사 가람배치

수행도량 도봉산 망월사(전통사찰 8호), 망월로 28번길 211-500(호원동)

- ① 관음전 ② 천중선원 ③ 심검당 ④ 고불원 ⑤ 영산전 ⑥ 지장전 ⑦ 범종각 ⑧ 문수굴 ⑨ 칠성각
⑩ 혜거국사부도탑 ⑪ 천봉선사탑과 비 ⑫ 월조문 ⑬ 해탈문 ⑭ 자비문 ⑮ 여여문

도봉산 망월사는 자운봉, 만장봉, 선인봉, 주봉 등의 암봉이 수려하고 빼어난 도봉산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이다. 망월사 전철역에서 내려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를 지나 안내판 따라 2시간가량 등산로로 진행하면 사찰에 이르게 된다.

아주 오래전 639년(신라 선덕여왕 8)에 해호(海浩)가 창건하였으며, 망월사라고 부르게 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선덕여왕은 해호를 존경하여 측근에 머물러있게 하고자 했으나, 해호(海浩)는 이를 사양하고 산중에 암자를 지어 나라를 위해 홀로 기도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고 한다. 당시 해호가 머물렀던 도봉산 동대(東臺)의 옛 산성 이름이 망월성(望月城)이었고, 신라 서라벌의 왕성이 월성(月城)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따서 망월사(望月寺)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사찰 연혁을 기술하고 있는 『봉은본말사지』에 의하면, 639년(선덕여왕 8)에 해호대사가 개산하였으며, 1066년(고려 문종 20)에 헤거국사가 중창하였다. 그 뒤의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으나, 14번이나 병화와 전란으로 절이 황폐해졌다가 조선시대인 1691년(숙종 17) 동계(東溪) 설명(高明)선사가 중건하였다. 조선말 1880년(고종 17)에 완송(玩松)선사가 칠성각과 영산전을 중건하였으며, 1884년(고종 21)에 인파대사가 독성각을, 1888년(고종 25)에는 완송선사가 약사전을 신축하였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1901년(광무 5) 인파선사가 대방을 보수하였고, 1906년에는 화광(晦光)선사가 선실 및 설법루를 보수하였다. 1941년에는 김용운이 약사전을 중건하였고 독성각을 중축하였다. 그러나 이런 전각들은 모두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모두 소실되었다.

1969년 주지 춘성(春城)이 퇴락한 선실을 철거하고 2층의 석조건물을 지었다. 1972년 주지 도관(道觀)이 본래 있던 염불당과 낙가암(洛迦庵)을 헐고 현대식 건물의 낙가암을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망월사 경내에는 관음전, 지장전, 천중선원, 심검당, 칠성각 등 많은 전각이 있으며, 헤거국사 부도탑, 1793년에 건립한 천봉탑과 1796년에 수관거사가 지은 천봉선사탑비 등 지정문화재가 있다.

지난 2012년 망월사 경내 5점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추가 지정되어서 먼저 여기에 소개하고, 기존문화재의 해설도 곁들이도록 하겠다.

1. 영산전 목조불삼존상 및 심육나한상 일괄

[경기도 유형문화재 270호]

(망월사 영산전에 봉안된 불상 및 권속 일괄 28존)



망월사 영산전 전경

영산전은 맨 왼쪽 언덕에 있는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팔작 지붕의 안정감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하고 그 좌우에 제화갈라(연등)보살과 미륵보살을 협시로 모시며,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의 불국토인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설법하고 있는 영산회상도가 후불탱화로 모셔져 있다.

여기 도봉산 망월사 영산전에는 석가모니불이 영축산에서 제자들에 둘러싸여 법화경을 설법할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본존불상의 크기는 59cm 가량으로 크지 않지만, 머리와 상체를 강조하고, 하체에는

결가부좌한 다리 사이로 커다란 부채꼴 모양의 옷주름을 배치하여 형태상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수인은 보통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무릎 위에 놓는데 반해 여기서는 반대로 들고 있다. 협시보살상은 화염보주로 장엄된 보관을 제외하고는 일절 장식이 없어 여래형에 가깝다. 또한 얼굴표현에서 마치 양 볼에 바람을 가득 넣은 듯 부풀려 놓은 것이 이 작가의 특징인 듯하다.



영산전 안에 봉안된 불상 및 권속 일괄

목조석가삼존상 외에는 모두 소조로 제작되었는데, 법당의 정면과 좌우 측면 벽면에 일렬로 대칭되게 늘어섰다. 높이 58.5cm의 가섭입상은 영산회상도 불화 속의 도상처럼 지권인과 유사한 수인을 결하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아난은 마치 석가모니와 예불자를 연결시켜주듯이 합장하면서 얼굴과 몸을 약간 비틀어 표현했다. 높이 35cm 내외의 십육나한상은 둥굴둥굴한 얼굴, 짙막한 체구에서 마치 실제 승려를 보는 듯한 생동감과 개성이 넘치며, 얼굴의 인상이 나한상끼리 서로 매우 유사하여 마치 한 승려가 다양한 표정으로 변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 것이 재미있다. 그러면서도 착의법과 자세에서 많은 변화를 주어 각 상의 개성도 드러내고 있다. 그 외 사자상과 인왕상이 함께 봉안된 것은 명부전 도상의 경우와 비슷한데, 인왕상은 나신이 아니고 갑옷을 차려입고 있으며, 동자상은 원래 4구가 짝을 맞췄던 것 같다.

2. 망월사 고불원 목조불삼존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71호]

망월사 천중선원 뒤쪽에 있는 고불원 내 수미단 위에 봉안된 목조불삼존상은 조선후기 전형적인 불상으로, 석가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을 배치하였다. 목조불삼존상은 높이가 93.5cm 정도의 중형불상으로, 불상은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머리에는 뽕족한 나발(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肉髻)가 있고,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앙계주(中央髻珠)와 정수리 부위에 낮은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를 장식하였다. 타원형의 얼굴에는 가늘게 뜬 눈, 원통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 약간 뽕족한 턱을 표현하였다.

목에는 세 줄기 주름 표현인 삼도(三道)를 자연스럽게 새겼다. 삼도란 생사(生死)를 윤회하는 인과(因果)를 나타내며 번뇌도(煩惱道), 업도(業道), 고도(苦道)를 의미한다. 원만하고 광대한 불신(佛身)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불상과 보살상에서 볼 수 있다.

불상의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에 거의 사선을 그리며 대의(大衣) 자락을 살짝 덮고 있고, 팔꿈치 뒤와 배부분을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있다. 반대쪽 대의 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수직으로 내려와 복부(腹部)에서 반대쪽 대의 자락과 자연스럽게 접혀있다. 허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오른쪽 발목에서

밑으로 곡선을 이루며 펼쳐져 있고, 왼쪽 무릎 위에 소매 자락이 밑으로 늘어져 있다. 오른손은 촉지인(觸地印)을 하였고, 왼손은 배 높이로 들고 엄지와 중지를 맞잡고 있다. 아미타불과 약사불은 본존인 석가불과 인상이 유사하지만, 대의 안쪽에 편삼을 걸치고,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 자락 표현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 아미타불은 엄지와 중지를 불인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약사불은 왼손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있다. 망월사 고불전에 봉안된 목조 불삼존상은 조성발원문이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조성시기와 봉안 사찰을 밝힐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부처란 과연 무엇인가에 그토록 많은 상(像)들이 만들어지고 예배되었을까? 종교 예술의 본질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관념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 노력에 따라 그것을 얻게 되듯 종교 관념 역시 부단히 추구하면 궁극적으로는 실현된다.



고불원 목조불삼존상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자질이나 능력[근기(根機)]이 서로 다른 수많은 중생들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부처가 시대의 부침을 타고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만들어졌다. 중생들은 제각기 다른 바탕과 소원을 지녔으므로 거기에 맞는 무량(無量)한 부처를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그 하나하나의 부처는 우리 자신들을 반영한 것이다. 부처는 마음의 반영이요 거울이다. 이처럼 불상은 관념을 형상화한 것이며, 또 그것이 무한히 만들어진 이유를 알게 될 때, 불상 조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신의 탐구이자 자아의 발견임을 깨닫게 된다. 결국 불상을 탐구하는 일은 곧 우리네 인간사를 탐구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여래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관계없이 법은 존재한다고 하여, 석가는 법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불상과 함께 불경(佛經)이 끊임없이 전개되어왔던 것이다.

이처럼 다종다양하게 출현한 불상들은 하나의 관념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곧 법이며, 법신(法身)이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수없이 만들어진 불상들은 곧 진리라는 법신부처[법신불(法身佛)]의 분신이자 화신(化身)인 것이다. 법과 부처와 불상은 개별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달과 달빛과 물에 비친 달'처럼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3. 망월사 괘불도(괘불함 및 복장낭 포함)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72호]

(괘불도1폭, 괘불함 1점, 복장낭 3점)



망월사 괘불도

이 괘불도(掛佛圖, 괘불탱)는 1887년(고종 24)에 조성된 아미타괘불화로 영산재 등의 야외 법회에 사용되었던 의식용 불화이다. 연하계창을 수화사로 하여 해산축연, 석옹철유 등 11명의 화승이 그렸다. 하정덕혜 등 5명의 상공과 4명의 여신도가 시주하여 조성한 19세기 대표적인 아미타계 괘불화이다.

망월사 괘불탱(괘불도)은 세로 6.4m, 가로 3.54m의 크기에 비단 바탕에 채색하여 그렸다. 화면 중앙에는 거대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측에 관음보살과 가섭존자, 우측에 보현보살과 아난존자가 시립한 오존도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앙의 아미타불은 오른손을 가슴 부근으로 올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손가락을 마주잡고 있으며 왼손은 배 부근으로 내려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손가락을 마주한 특이한 수인을 취하였다. 좌측에는 보관을 쓴 관음보살이 두 손으로 길게 여의를 들고 있으며 우측의 대세지보살은 연꽃가지를 길게 잡고 있다. 두 보살은 입상으로 표현되었으면서도 마치 앉아있는 것처럼 신체가 짧

아 어색한 느낌을 준다. 관음보살위로는 노비구(老比丘) 모습의 가섭존자가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손가락을 곧게 세워 올렸으며, 반대편에는 젊은 승려의 모습으로 아난존자가 합장하고 서 있다.

조선말기 불교 교단은 만일염불회(萬一念佛會)와 수월도량공화불사가 성행하였고, 만일염불회에서는 아미타 염불 신앙이 크게 유행되어 불사를 진작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선말기 아미타신앙은 괘불화에서도 아미타불 도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채색은 붉은색, 남색,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였고, 화면 상부에 갈색 구름의 음영법이 강하다. 이외에도 음영법은 인물의 주름이나 옷의 주름에서도 표현되었다. 인물표현의 특징으로는 유난히 상반부가 하반부에 비해 큰 비율이며 손이 크고 손의 표현법도 특이하다. 특히 아미타불의 손은 손안쪽의 손금까지 표현하였는데 도식화되었다.

4. 망월사 건륭53년명 동종(銅鐘)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73호]



망월사 동종

망월사 동종의 명문에 의하면 1786년(정조10)에 300근의 중량을 들여 '낙양북도봉산망월사(洛陽北道峯山望月寺)'용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종의 고리는 한 마리의 용으로 형상화했고 음통이 있다. 천판은 낮게 솟아 있고 몸체는 종의 입구로 갈수록 살짝 벌어지는 형태이다. 천판 아래에는 범자문 24개가 띠처럼 둘러져 있고 하대는 당초문으로 장식되었다. 종의 몸체 중심에는 황대를 둘러 상하를 구분하였으며, 상단에는 연곽 4개, 보살 2구, 인왕 2구가 교대로 배치되었다. 보살상은 합장한 모습이며, 인왕상은 양손에 무기를 들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종의 몸체에 인왕상이 부조된 것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변화이다.

종의 하단에는 전패와 명문이 나타난다. 전패는 주상전하, 왕비전하, 세자



종의 인왕상

저하 삼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원문이며, 특별한 장식은 없다. 그 옆에 1786년(정조 10)의 제작 연대가 있으며, 종을 만드는데 관련한 삼강, 도감, 별좌, 화주, 편수 등이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

5. 망월사 간행 진언집 책판 관련 목판4종

[경기도 유형문화재 276호]

망월사에는 모두 네 종류의 목판 63판이 전해지고 있는데, <금강경탑다라니>와 <부적판>·<다라니>가 각각 1판씩 있다. 특히 <다라니>목판은 1878년(고종 15)에 이곳 망월사에서 각판 했다는 간기(刊記)가 남아있다. <진언집>목판은 현재 60판이 보존되어 있는데, 상하 2권으로 나누어서 총 290종의 진언을 수록하였으며, 각 진언마다 범어와 한자, 한글을 표기해 놓고 있다. 원래 이 <진언집>은 용암(鎔巖)과 그의 제자 백암(白巖)이 함께



망월사 진언집 책판

전라남도 화순의 만연사에서 편집·개판했던 것을 이곳 망월사에 주석하며 절의 면모를 일신했던 영월 낭규(映月朗奎)가 수정하고 각판하여 1800년(정조 24)에 완성한 것이다. 특히 이 진언집은 글자 모양이 정교하고 조각 수법이 섬세하여 우리나라 목판 인쇄문화의 발달사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밀교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망월사 간행 진언집 판각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1장 2판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진언집과 금강경탑다라니 등도 성격상 다량이 인출되었을 것이지만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진언집 판각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진이나 책의 원판이다. 따라서 인출된 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특히 본 진언집 등 관련 유물은 진언집류 사찰 판각의 일습을 갖춘 매우 드문 경우라는 점에서 가치 인정된다.

끝으로, 다음은 먼저 지정된 문화재 설명해설이다.

◇ 망월사혜거국사부도 (유형문화재 제122호)



망월사 혜거국사부도

망월사 영산전 아래 길을 따라 뒤로 돌아가면 다른 기슭에 혜거국사 부도가 보인다.

혜거국사부도(慧거國師浮屠)는 고려 시대 혜거국사의 사리를 봉안한 팔각원당 부도(승탑)이다.

전체의 높이는 3.4미터이고 탑의 몸통 둘레는 3.1미터이다. 기단부 위에 구형 탑신을 안치하고 옥개석과 상륜부로 구성돼 있다. 기단부는 지대석과 대석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대석은 팔각형 삼단의 일석으로 조성되고 높이가 80cm이다. 탑 몸통은 공 모양으로 조성되고, 괴임대 위쪽과 옥개석 아래

쪽에 홈을 파서 탑 전체의 안정감을 꾀했다. 옥개석은 복발과 보주까지 한 개의 돌로 만들었는데, 낙수면은 목조건물의 지붕 모양이며 귀퉁은 모두 8개이다. 상륜부는 옥개석과 일석이며 복발면에 연꽃무늬를 새긴 것이 특징이다. 부도 앞에는 화강암으로 된 사각형의 배례석(拜禮石)이 있는데, 여기에 ‘혜거탑(慧거塔)’이라고 새겨져 있다. 혜거국사의 위는 혜거(慧거)이고, 자는 홍소(弘昭)이며, 속성은 노씨(盧氏)이다. 혜거 국사(慧거國師)는 현재의 도봉 서원 자리에 있었던 영국사(永國寺)에 머물렀다 고 알려져 있으나 그의 행적은 비문과 승사류(僧史類)에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을 뿐이다. 영국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문은 극히 일부가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 실려 있으나 현재 비(碑)의 존재는 알 수 없다.

◇ 망월사 천봉당태흠탑과 탑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6호, 67호)

천봉선사 태흠(1710~1793)은 조선시대 승려로서, 16세에 출가하여 명탁의 제자가 되었고, 도원으로부터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을 받았다. 20세에 호점에게서 불경을 배워, 배천의 호국사에서 깨달음에 이르렀으며, 정조 17년(1793) 84세로 목숨을 다하였다.

승탑(부도)은 넓은 바닥돌 위로 기단을 두고,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바닥돌을 제외한 각 부분이 8각을 이루고 있다. 기단은 각 모서리마다 다섯 개의 구슬무늬를 세로로 두어 장식하였다. 길쭉한 탑신의 몸돌은 아래에 작은 잎의 연꽃을 두르고, 윗부분에는 큼직한 잎을 가진 연꽃을 둘러 새겼다. 가운데 부분에는 탑의 이름과 함께 조성연대를 세로로 기록해 두었다. 지붕돌은 윗면의 여덟 모서리가 꽤 두툼하게 표현되었고, 역시 두꺼워 보이는 처마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다. 꼭대기에는 연꽃을 새긴 둥근 돌 위로 꽃봉오리 모양의 돌이 놓여 머리장식을 하고 있다. 탑에 새긴 기록으로 보아 1794년(정조 18)에 새웠음을 알 수 있다.

승탑 옆에는 천봉선사 태흠(1710~1793)의 탑비가 있는데, 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碑)를 세우고 한식기와 팔작지붕을 조각한 지붕돌을 얹은 단순한 모양이다. 스님이 입적한 지 4년 후, 탑을 세운 지 3년 후인 1797년(조선 정조 21)에 건립된 것이다. 비문은 이충익이 글을 짓고 단아한 필체로 글씨를 썼다.



망월사 천봉당태흠탑과 탑비

2016

의정부문화원 문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의정부문화학교'는 전 시민 모두가
'한사람 한문화'를 몸에 익혀 뿌리 내리게 하는
시민문화의 샘터입니다.

교육기간 2016년 1월 ~12월 1년과정

문 의 의정부문화원 ☎872-5678 홈페이지 www.iloveculture.or.kr





문화학교 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요일	시간	강의실	교육참가비(월)
전통	경기민요장구	초급	화	14:00~17:00	204	15,000
		중급	월	09:00~12:00	204	15,000
		고급	수	10:00~12:00	204	20,000
	서도민요장구		금	10:00~13:00	204	15,000
	남도민요장구		금	13:30~16:30	204	20,000
	가야금병창		월	10:00~12:00	지하	30,000
	난타	초급	월	14:00~16:00	지하	15,000
		중급	목	14:00~16:00	지하	15,000
	한국무용	초급	화/목	11:00~12:30	304	15,000
		중급	화/금	13:30~15:00	304	15,000
	사물놀이		금	14:00~17:00	지하	20,000
	규방공예		월	09:30~12:30	301	15,000
	전통생활자수		목	09:30~12:30	301	15,000
	한글서예		화	10:00~13:00	202	15,000
	한문서예		목	10:00~13:00	202	15,000
	문인화		수	10:00~13:00	202	15,000
	한국화		금	10:00~13:00	202	15,000
	채색민화		금	14:00~16:00	202	30,000
	닥종이인형		수/목	10:30~14:30	303	15,000
	수제도장만들기		화	10:00~13:00	301	15,000
악기	클래식기타	초급	화	13:00~16:00	201	15,000
		중급	수	10:00~13:00	201	15,000
	어쿠스틱기타 (통기타)		목	10:00~13:00	201	15,000
	오카리나		월	13:00~16:00	201	15,000
	첼로 레슨1		금	09:00~11:30	201	40,000
	첼로 앙상블1		금	11:30~13:00	201	40,000
	첼로 레슨2		화	10:00~12:00	201	40,000

구분	강좌명		요일	시간	강의실	교육참가비(월)
일반	디지털사진	초급	화	10:30~14:30	302	15,000
		중급	월	10:30~14:30	302	15,000
	요가	오전1	화/목	09:30~11:00	204	15,000
		오전2	화/목	11:00~12:30	204	15,000
		오후1	월/수	15:00~16:30	204	15,000
	서양화		금	10:00~13:00	203	15,000
	수채화		화	10:00~13:00	203	15,000
	인물소묘		목	10:00~13:00	203	30,000
	펜화		화	15:00~17:00	301	20,000
	벨리댄스경력자		화/수 목/금	10:00~11:20	지하	30,000
아동	청소년예인챔버오케스트라		1.3주 토	13:00~15:00	201	30,000
	초등미술		금	15:10~16:20	303	25,000
야간	오카리나		월	19:00~20:00	201	20,000
	요가		화/목	19:30~21:00	204	20,000
	벨리댄스		화/목	19:30~20:30	지하	30,000
	서양화		수	19:00~21:00	203	30,000
	한국무용		수	19:00~21:00	304	20,000
	디지털사진		화	19:00~21:00	302	20,000



회룡문화

회룡문화 통권 제31호

발행인 조수기

발행처 의정부문화원

홈페이지 www.iloveculture.or.kr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123

전화 031-872-5678

편집 · 인쇄 애드플러스



의정부문화원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123
031)872-5678 www.iloveculture.or.kr